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NABO

Economic · Industrial Trends & Issues

CONTENTS

경제·산업동향

경제·산업현안 |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 주가 및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2022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및 주요 쟁점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제·산업이슈 |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변동요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8월호 통권 제20호

Contents

경제·산업동향	3
I. 경제동향	6
II. 산업·고용동향	32
III. 해외경제 동향	67
경제·산업현안	85
I.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 주가 및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86
II. 미국의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96
III. 2022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및 주요 쟁점	106
IV.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12
경제·산업이슈	119
I.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변동요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20

경제·산업동향

I. 경제동향	6
1. 생산	6
2. 소비	9
3. 투자	11
4. 대외거래	16
5. 소비자물가	19
6. 금융시장	22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28
II. 산업·고용동향	32
1. 제조업	32
2. 서비스업	45
3. 에너지 및 원자재	51
4. 고용	55
5. 인구	61
6. 부동산	63
III. 해외경제 동향	67
1. 미국	67
2. 중국	72
3. 유로지역	74
4. 일본	76
[전세계 코로나19 현황]	79
[주요 경제정책]	82

주요 거시·산업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2Q	3Q	4Q	1Q	2Q	5월	6월	7월
전산업생산	1.0	-1.2	-3.7 (-3.0)	-0.9 (2.8)	-1.5 (1.6)	2.7 (1.7)	7.3 (0.4)	7.0 (0.0)	6.7 (1.6)	
광공업생산	0.4	-0.4	-5.9 (-6.5)	0.2 (6.0)	0.0 (2.9)	4.4 (3.4)	13.0 (-1.0)	14.9 (-1.0)	11.9 (2.2)	
서비스업생산	1.4	-2.0	-3.4 (-1.3)	-1.7 (2.0)	-2.0 (0.9)	2.2 (0.7)	5.7 (1.7)	4.2 (-0.4)	4.9 (1.6)	
소매판매액	2.4	-0.2	2.0 (5.9)	1.6 (-1.1)	-1.2 (0.9)	6.4 (1.7)	4.4 (2.7)	3.1 (-1.8)	1.6 (1.4)	
설비투자지수	-5.7	6.0	5.8 (2.7)	7.7 (2.2)	2.8 (0.8)	11.9 (6.9)	12.4 (0.4)	10.9 (-2.9)	10.0 (-0.2)	
건설기성액	-2.3	-4.1	-5.5 (-2.9)	-4.2 (-2.8)	-5.3 (2.5)	-7.2 (-3.6)	-4.4 (-1.6)	-6.9 (-3.0)	-3.1 (2.0)	
수출(통관)	-10.4	-5.5	-20.3	-3.4	4.2	12.5	42.1	45.6	39.8	29.6
수입(통관)	-6.0	-7.1	-15.8	-8.7	-1.7	12.1	37.4	37.9	40.7	38.2
경상수지 (억달러)	596.8	752.8	61.1	240.0	322.4	228.2	215.2	107.6	88.5	
실업률	3.8	4.0	4.4	3.6	3.7	5.0	3.9	4.0	3.8	
취업자수 (천명)	301	-218	-407	-314	-441	-380	618	619	582	
소비자물가	0.4	0.5	-0.1	0.6	0.4	1.1	2.5	2.6	2.4	2.6
원/달러환율	1,166	1,180	1,220	1,188	1,116	1,115	1,121	1,123	1,122	1,145
국고채금리 (3년)	1.53	0.99	0.91	0.85	0.95	1.04	1.19	1.13	1.30	1.42

주: 1. ()는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모습

■ 6월 중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증가한 가운데 7월 수출은 높은 증가율이 지속되는 등 국내경기의 회복흐름이 이어짐

- 6월 전산업생산은 수출호조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유지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 활성화로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늘어나 전월대비 1.6% 증가
- 6월 소매판매액은 하절기 의류판매 증가, 코로나19 의약품 수요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1.4% 증가
- 7월 수출은 월기준 역대 최고치(554.4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29.6% 증가
- 7월 고용시장은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54.2만명 증가하여 지난 3월 증가 전환 이후의 개선세를 지속

■ 하지만 7월 이후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경우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우려

7월 중 소비자물가는 4개월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내며 전년동월대 2.6% 상승(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농축수산물 물가는 이상기후와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9.6%)이 지속되었으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9.7% 상승

■ 한편 전기수도가스 물가는 도시가스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전환

- 지난해 7월 유가하락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평균 13.1%)함에 따라 도시가스물가는 올해 6월까지 10.3% 하락세 지속

7월 중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3년)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며, 주가(KOSPI)는 하락

■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보다 민감히 반응하며 전월(1.30%)보다 상승한 1.42%를 나타냄

■ 원/달러 환율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미·중간 대립 등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전월(1,122원) 대비 큰 폭(23원)으로 상승한 1,145원을 기록

■ 주가(KOSPI)는 코로나19 재확산과 통화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의 우려가 반영되며 전월말(3,297) 대비 94포인트 하락한 3,202를 시현

I.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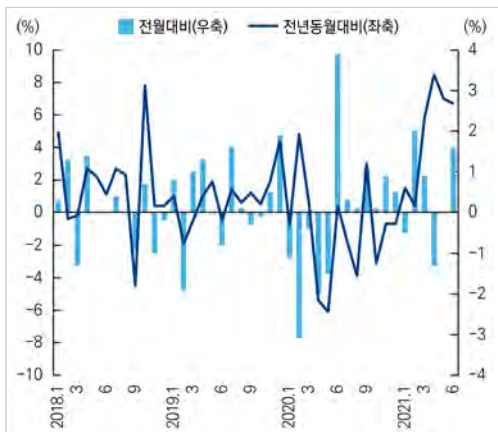
1. 생산

6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전월의 감소에서 벗어나며 증가 전환

■ 전산업생산은 광공업(-0.1%→2.2%), 서비스업(-0.4%→1.6%), 건설업(-3.0%→2.0%) 등에서 증가 전환되며 전월대비 1.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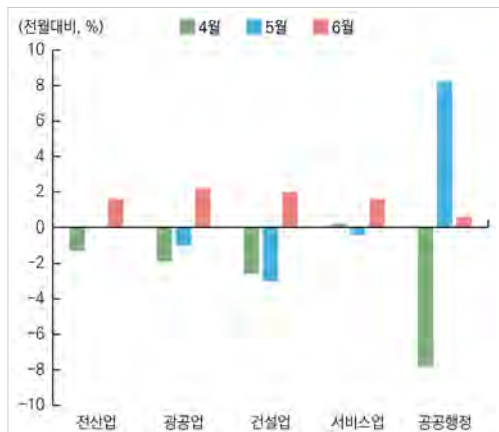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은 제조업(2.3%)에서 반도체(8.6%), 자동차(6.4%), 섬유(4.0%), 철강(2.4%) 등을 중심으로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유지의 영향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늘며 예술스포츠및여가 관련서비스(4.8%), 금융및보험(3.2%),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1.9%), 도소매업(1.6%) 등에서 증가 전환되고 숙박및음식점(2.7%)은 양호한 증가세 유지
- 2/4분기 전산업생산은 전분기대비 0.4% 증가하여 1/4분기(1.7%)에 비해 증가세 둔화
- 7월 전산업생산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세가 주춤할 전망

[그림 1]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경기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모두 지난해 6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월 이후 민간의 경제활동 회복세가 지속되며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액 등의 내수관련 지표와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101.3)에 비해 0.1p 상승한 101.4을 기록

•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의 지표에서는 하락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제심리지수와 금융시장 선행지표인 코스피와 장단기금리차 등에서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도 3개월 연속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104.1)에 비해 0.3p 상승한 104.4을 나타냄

- 반면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하락(4월 -1.5%p→5월 -1.8%p→6월 -6.0%p)
- 최근에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0년 1월 이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시차 없이 움직이고 있어 경기국면 예고 지표로서 유용성이 떨어진 상황¹⁾

[그림 3]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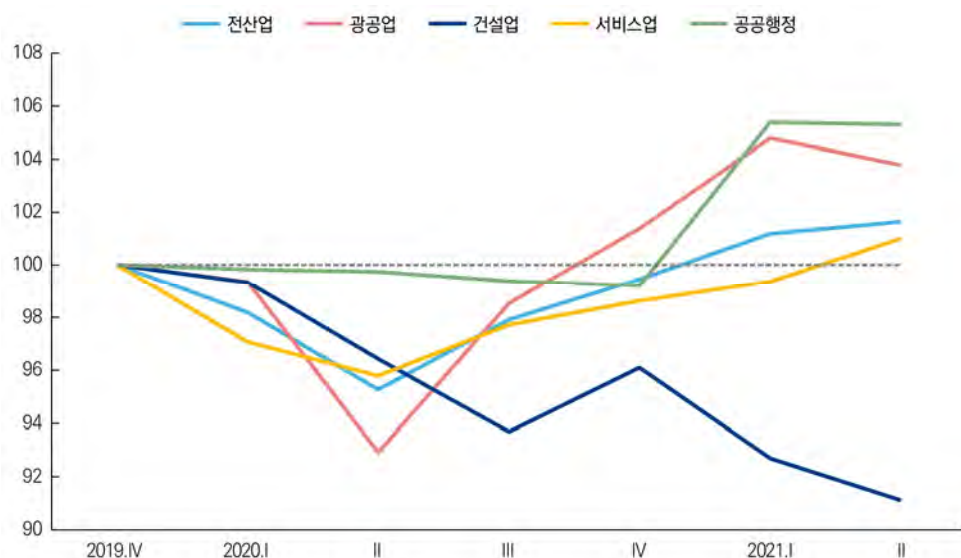
1) 통계청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제 10순환의 경기수축기(2011. 8월~2013. 3월)와 제 11순환의 경기확장기(2013. 3월~2017. 9월)에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각각 5개월, 1개월 선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이후 전산업생산 추이]

■ 코로나19 이후 전산업생산은 2020년 2/4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2021년 1/4분기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광공업은 2020년 2/4분기에는 코로나19 이전(2019년 4/4=100) 수준을 7% 이상 하회하였으나, 이후 수출호조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며 2020년 4/4분기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서비스업은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위축되었으나 2020년 2/4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2021년 2/4분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 건설업은 2020년 4/4분기 중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2021년 들어 급격하게 위축되며 2/4분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8% 이상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행정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 중 큰 폭으로 증가

[코로나19 이후 부문별 생산 추이(2019년 4/4분기=100)]



주: 계절조정지수 기준

자료: 통계청

2. 소비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와 의약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면서 전월 감소에서 증가 전환

- 6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4% 늘어 전월 감소(-1.8%)에서 증가 전환
- 전년동기대비로는 지난해 6월 중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를 앞둔 승용차 판매 호조에 따른 높은 증가율(6.6%)의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1.6% 증가
 - 소매판매지수(전년동월대비, %): ('21.4월)8.7→(5월)3.1→(6월)1.6

[그림 4]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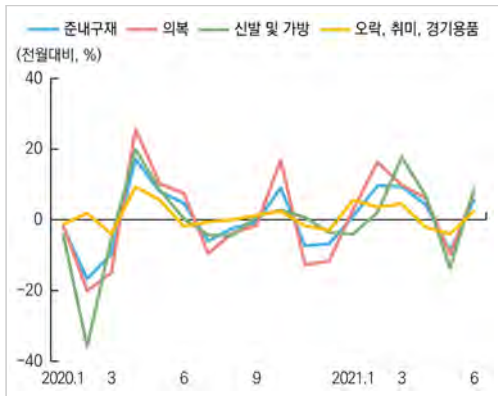
[그림 5] 재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6월 중 준내구재 판매는 전월 큰 폭 감소(-8.7%)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프로모션 등으로 하절기 의류판매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5.8% 증가
 - 준내구재 판매(전월대비, %): ('21.4월)4.2→(5월)-8.7→(6월)5.8
 - 품목별 준내구재 판매 증가율(전월대비, %): 의복(7.8), 신발 및 가방(9.0), 오락·취미·경기용품(2.6)
- 비내구재 판매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차량연료 판매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1.0% 증가
 - 비내구재 판매(전월대비, %): ('21.4월)2.3→(5월)-0.4→(6월)1.0
- 내구재 판매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등으로 판매대수가 줄면서 승용차 판매가 감소 전환(5월 6.3%→6월-1.9%)하였으며, 지난해 높은 판매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가전제품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월대비 1.0% 감소
 - 내구재 판매(전월대비, %): ('21.4월)0.4→(5월)0.9→(6월)-1.0

[그림 6] 준내구재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7] 내구재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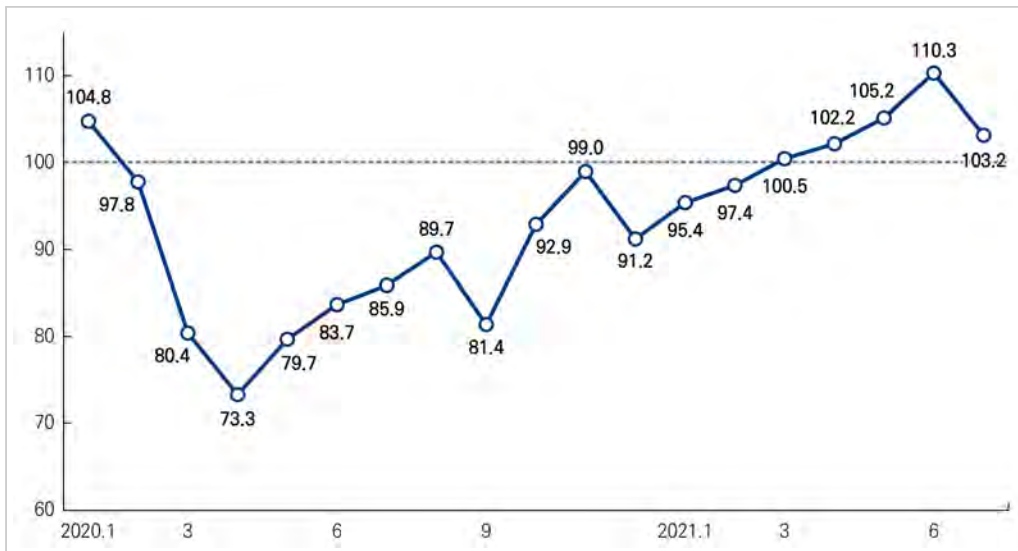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4차 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의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7.1p 하락한 103.2를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들어 백신 접종,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 등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7개월만에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항목이 모두 하락으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향후경기전망과 소비지출전망은 각각 전월대비 2.1p, 1.7p 하락

[그림 8]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21년 2/4분기 민간소비]

■ 2/4분기 중 GDP 계정 민간소비는 지난해 큰 폭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

-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각각 전기대비 3.5% 증가하며 지난해 부진(-5.0%)에서 벗어나는 모습
 - 의류 등 준내구재와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 부문이 증가
- 민간소비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실질GDP(전기대비 0.7%)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1.6%p로 2/4분기 경제성장을 견인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지출부문별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3.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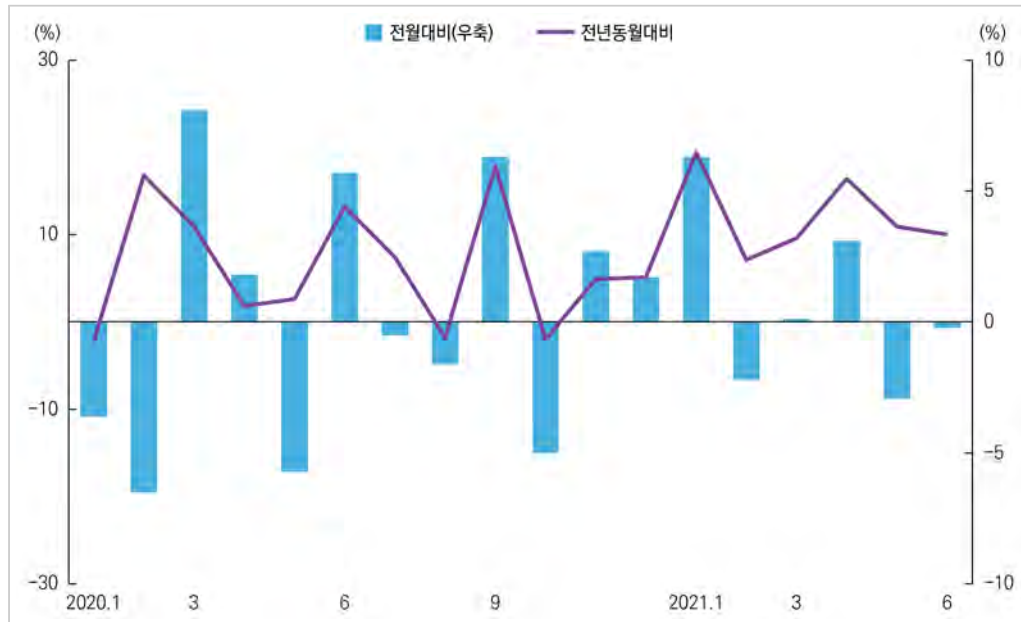
가.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기계류에서 2개월 연속 감소하며 전월대비 감소

■ 6월 중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3.3% 증가하였으나 컴퓨터 사무용 기계 등 기계류에서 1.5% 감소하며 전월대비 0.2% 감소

- 전년동월대비 설비투자는 운송장비(6.2%)에서 전월(1.6%)보다 증가폭이 확대되고 기계류(11.4%)에서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10.0% 증가

[그림 9] 설비투자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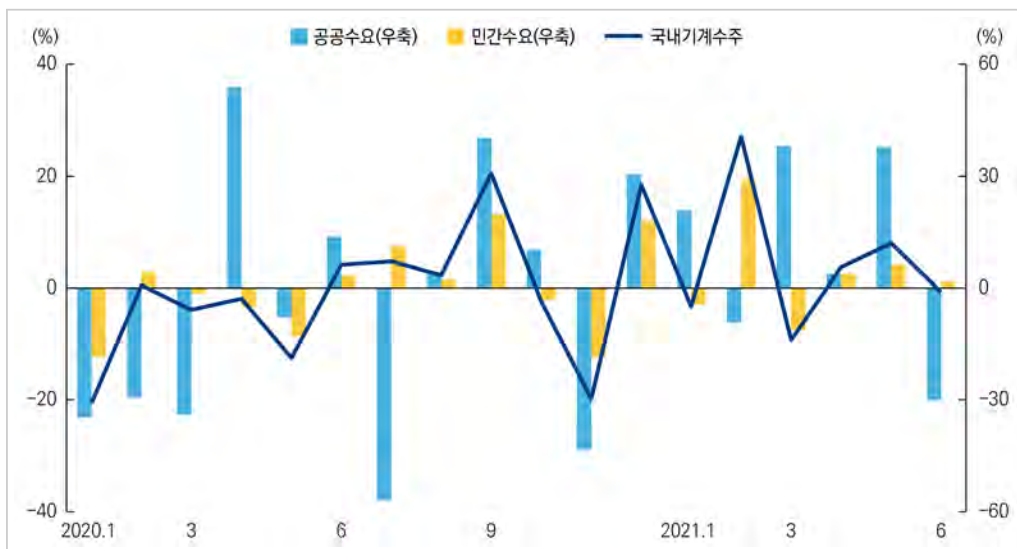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기계류 투자는 기타기기(1.3%)를 제외한 일반기계류(-0.4%), 전기 및 전자기기(-4.8%), 정밀기기(-1.6%)에서 모두 감소하며 전월대비 1.5% 감소
- 운송장비 투자는 자동차(-10.4%)가 전월(9.6%)의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28.1%)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대비 3.3% 증가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기계류 수입액은 증가세를 유지

- 6월 국내기계수주는 비제조업(26.9%)을 중심으로 민간부문(1.5%)에서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30.1%)이 감소로 전환하며 전월대비 0.7% 감소
- 6월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2.7% 감소하며 전월(2.1%)의 증가에서 감소 전환

[그림 10] 국내기계수주 전월대비 증감을 추이



자료: 통계청

■ 기계류 수입액은 반도체 제조용장비,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유지

- 6월 중 기계류 수입액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10.5%)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14.6%)와 자동차 부품(29.2%)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28.1% 증가
- 자본재 중 반도체 제조 장비의 7월 수입액(속보치)는 전년동월대비 58.8% 증가

■ 7월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관련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소폭 하락

- 제조업 설비투자실적 BSI: ('21년 5월) 98 → (6월) 100 → (7월) 99(수출기업 105, 내수기업 95)

[그림 11] 기계류 수입액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추이



자료: 무역협회, 통계청



자료: 무역협회

나.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토목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으나 건축은 감소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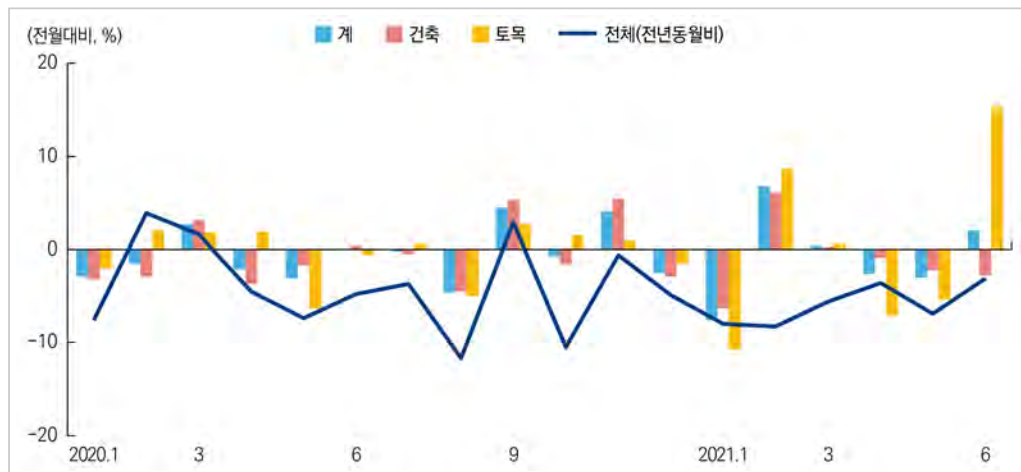
■ 2021년 6월 중 건설기성액(불변)은 토목(전월대비 15.4% 증가)의 증가에 힘입어 전월대비 2.0% 증가

- 반면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3.1% 감소하여 부진이 지속

■ 공공부문에 의한 건설기성이 전월대비 19.8%(경상) 증가한 점에 비추어 공공 토목이 증가하여 전체 건설투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1.4월)-2.6→(5월)-3.0→(6월)2.0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 ('21.4월)-3.6→(5월)-6.9→(6월)-3.1
- 건축(전월대비, %): ('21.4월)-0.9→(5월)-2.2→(6월)-2.8
- 토목(전월대비, %): ('21.4월)-7.1→(5월)-5.4→(6월)15.4
- 공공(경상, 전월대비, %): ('21.4월)-3.4→(5월)-6.2→(6월)19.8
- 민간(경상, 전월대비, %): ('21.4월)0.4→(5월)-0.7→(6월)-0.7

[그림 12] 공종별 건설기성액(불변)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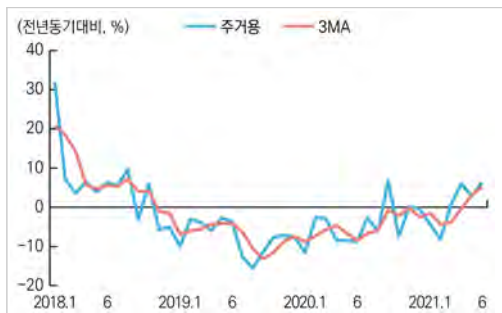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건축부문별로 보면 주거용과 비주거용건축 모두 올해 2/4분기 경부터 완만한 회복세

- 주거용(주택)건축은 2019~2020년 중 정부의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금융규제의 영향으로 부진했으나 2020년 수주된 물량이 올해 들어 점차 기성액에 반영되면서 완만히 회복하며 전년동월대비 6.4%(경상기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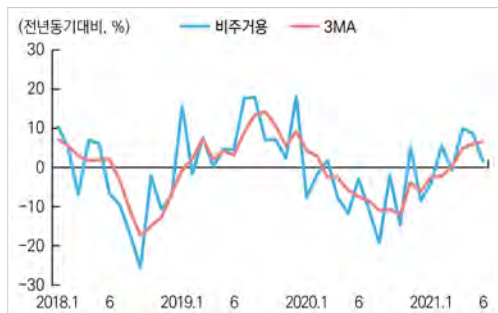
- 비주거용건축은 6월 중 전년동월대비 1.4% 증가로 전월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3개월 이동평균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 비주거용건축은 주거용건축의 증가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생활형SOC, 경기회복에 따른 공장·창고 등의 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거용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1.4월)6.1→(5월)2.9→(6월)6.4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21.4월)9.9→(5월)8.8→(6월)1.4

[그림 13] 주거용(경상) 건축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4] 비주거용(경상) 건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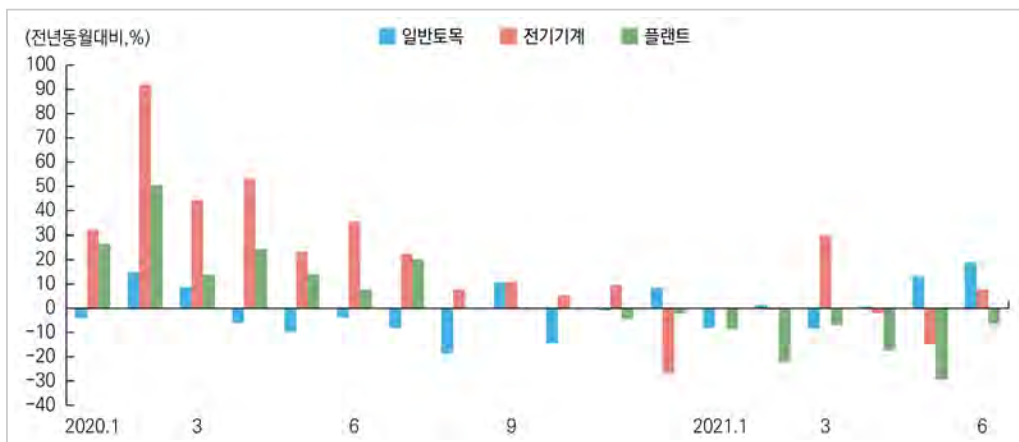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토목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일반토목이 전월보다 신장세가 확대된 18.8% 증가하고 전기기계도 전월 감소에서 벗어나 7.8% 증가한 데 힘입어 플랜트(-6.6%)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8.9% 증가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1.4월)0.7→(5월)13.2→(6월)18.8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21.4월)-2.0→(5월)-14.7→(6월)7.8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 ('21.4월)-17.4→(5월)-29.4→(6월)-6.6

[그림 15] 토목 부문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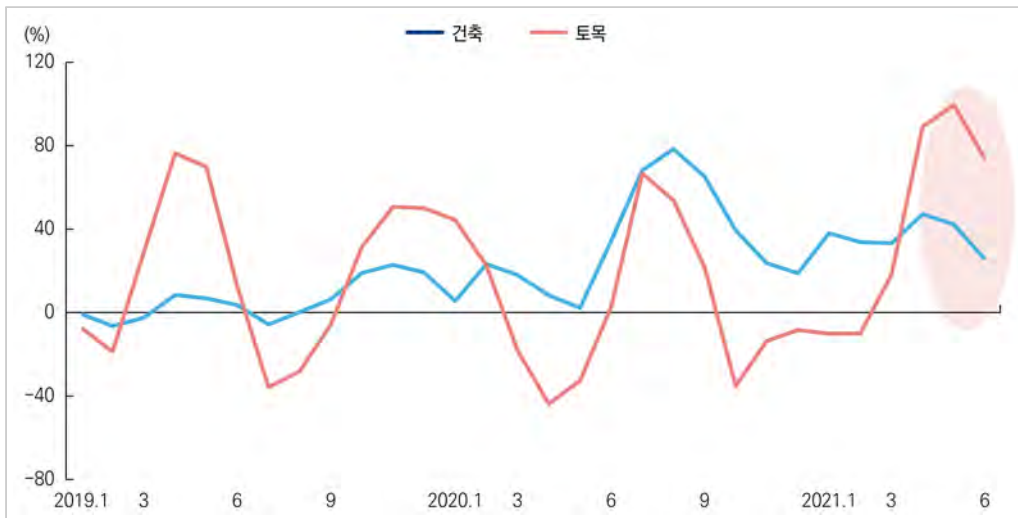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6월 중 건설수주(경상기준)는 건축과 토목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17.4%, 24.8% 감소함에 따라 18.7% 감소. 이는 전년동월에 건설수주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2021년 1~5월 중 건설수주가 큰 폭 증가한 데 따른 반락효과 때문

- 건축수주(경상, 전년동월대비, %):('21.4월)93.4→(5월)0.8→(6월)-17.4
- 토목수주(경상, 전년동월대비, %):('21.4월)186.2→(5월)60.2→(6월)-24.8

[그림 16] 토목 공종별 증가율 추이



주: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4. 대외거래

가. 수출

수출은 세계 경기와 교역이 회복된 가운데 주력품목들이 고르게 호조를 보이며 9개월 연속 증가세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9.6% 늘어난 554.4억 달러로 역대 월 수출액 기준 최고치 달성

-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수출은 22.6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2% 늘어 10개월 연속 증가
- 특히 2개월 연속 15개 주요 품목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8.2% 늘면서 8개월 연속 증가세

- 내수회복과 수출경기 호조 등으로 1차상품(69.0%), 중간재(40.7%), 소비재(21.6%), 자본재(14.6%) 수입이 모두 증가

■ 무역수지는 17.6억 달러로 15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으며, 교역액은 1,091.4억 달러를 기록

[그림 17]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18]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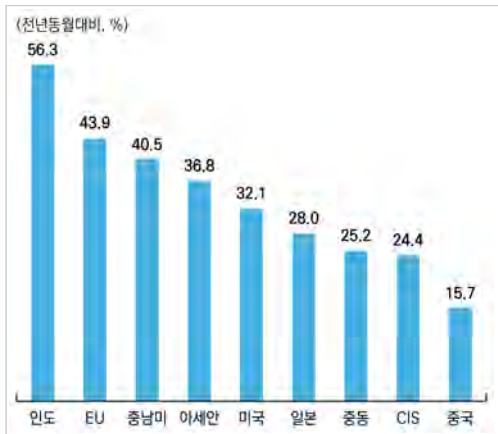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전세계 교역이 회복되면서 9대 지역 모두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4대 시장(중국·미국·EU·아세안)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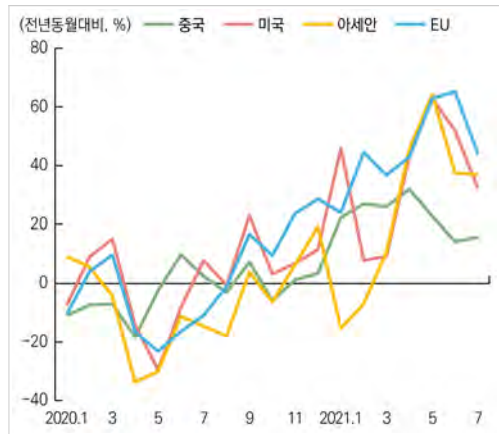
- 미국으로의 수출은 건설경기 개선에 따라 일반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반도체와 차부품 등이 호조를 보이며 32.1% 증가(11개월 연속 증가)
- EU지역으로의 수출은 정부 주도 경기부양책에 따라 소형굴삭기를 중심으로 일반기계 수요가 증가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면서 43.69% 증가(11개월 연속 증가)
- 중국으로의 수출은 노트북 PC용 메모리 증가세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의 수요가 확대되어 15.7% 증가(9개월 연속 증가)
- ASEAN 지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등이 선전하며 36.8% 증가(5개월 연속 증가)
- 인도로의 수출은 코로나 철강,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이 호조를 보이며 56.3% 증가
- 중남미지역으로의 수출은 자동차 수요회복으로 철강과 차부품 수요가 늘면서 40.5% 증가

[그림 19] 2021년 7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0]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수출이 늘어나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고, 운송수입 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14개월 연속 흑자

■ 6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88.5억 달러로 전년동월 71.6억 달러에서 확대

■ 6월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수출(536.3억 달러)이 수입(460.2억 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76.2억 달러로 확대

- 수출은 세계교역 확대로 대부분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수입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설비투자 개선 지속 등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증가

■ 6월 서비스수지는 해상화물 운송수입 증가로 운송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면서 전년동월(-13.5억 달러)보다 적자규모가 축소된 9.5억 달러 적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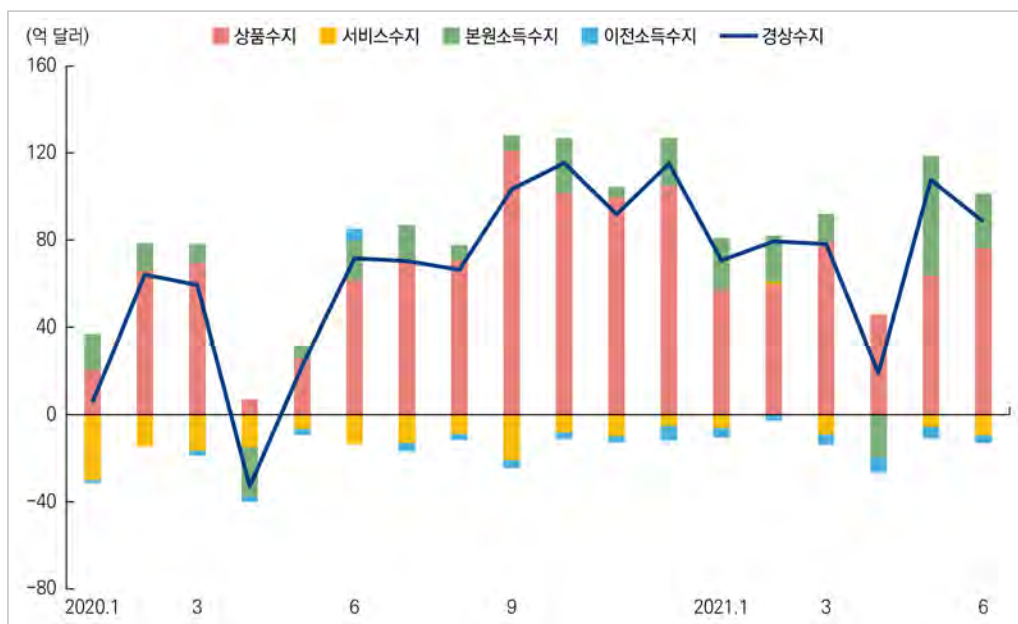
- 6월 운송수지 흑자규모(12.9억 달러 흑자)는 해상수출 화물운임 상승²⁾ 및 운송량 증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
- 6월 여행수지는 해외출국자 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3.9억 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된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

2) 6월 선박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년동월대비 277.8% 증가

■ 6월 본원소득수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이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배당지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월(18.1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늘어난 25.3억 달러 흑자를 기록

- 배당소득은 전년동월 7.0억 달러 흑자에서 16.5억 달러로 흑자규모가 확대

[그림 21]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5.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과 서비스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도시가스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4개월 연속 2%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

■ 7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며 4~6월에 이어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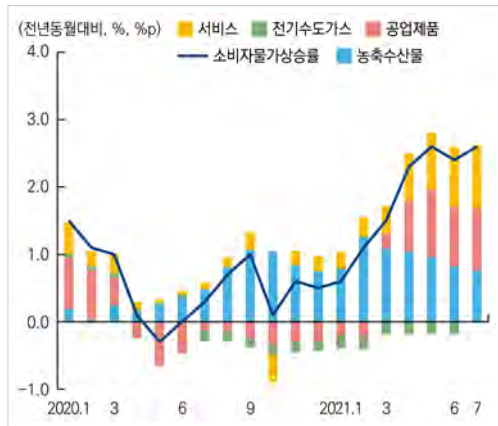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제외)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에 힘입어 전월과 같은 1.2%를 기록

[그림 22]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3]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 농축수산물 물가는 과실류, 축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9.6% 상승하였으나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는 모습

- 봄철 이상기후 등으로 채소류와 과실류 작황이 부진하여 이들 가격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달걀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축산물 가격이 상승폭 확대
- * 7월 중 축산물 물가는 달걀 가격이 57.0% 오르면서 전년동월대비 11.9% 상승
- 농축수산물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전년동월대비 0.8%p를 기록

[그림 24]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5]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Bloomberg

■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지난해 석유류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8% 상승

- 국제유가가 전년동월대비 74.2% 오르면서 석유제품 가격은 19.7% 상승

* 국제유가³⁾(달러/배럴): ('20.7월)42.0→('21.7월)73.3

- 이에 따라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전년동월대비 0.9%p를 기록

■ 전기수도가스 물가는 지난해 7월 도시가스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0.3% 증가 전환

- 지난해 유가하락 등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함에 따라 도시가스 물가는 2020년 7월부터 10.3% 하락세 지속
- 전기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전기요금의 일반가구 주택용 필수사용공제⁴⁾ 할인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어들면서 하락폭이 축소(6월 -2.1%→7월 -0.4%)
- 전기·수도·가스 물가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전년동월대비 0.01%p로 상승 전환(2020년 7월부터 -0.2%p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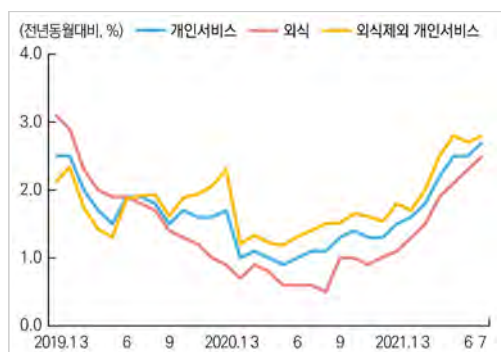
■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물가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외식 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월보다 0.1%p 높은 1.7% 상승하여 6개월 연속 오름세

-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물가와 외식제외물가가 각각 2.5%, 2.8% 오르며 2.7% 상승

* 외식물가는 외식수요 증대, 농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2.5% 올라 전월(2.3%)보다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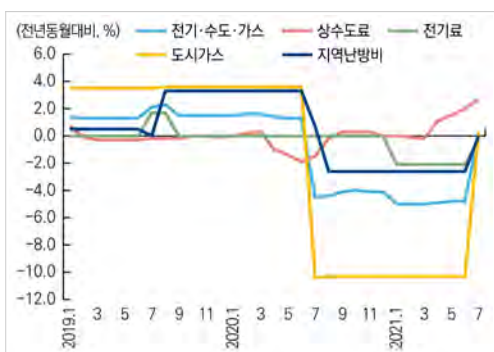
- 공공서비스 물가는 무상교육 추가시행 효과가 지속(고등학교 납입금 전년동월대비 100.0% 하락)되고 있으나, 하수도료와 국제항공료 가격의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하락폭 축소 (4월 -1.0%→5월 -0.7%→6월 -0.6%→7월 -0.5%)

[그림 26] 개인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7] 전기수도가스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3) 두바이, 브렌트, WTI 3개 유종 평균(자료: Bloomberg)

4)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해 적용되는 할인액

6.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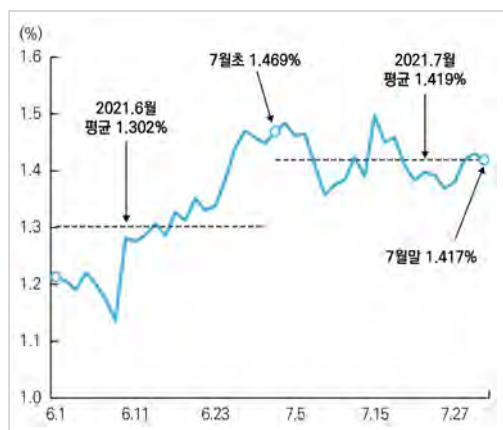
가. 금리

국고채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3년 만기채의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10년 만기채는 해외금리와 연동되며 하락

■ 2021년 7월 중 월평균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1.42%로 상승한 반면, 10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1.98%로 하락하여 2개월 연속 상반된 추이를 시현

- 3년 만기채금리는 코로나19의 확산세, 광공업 생산 정체(2/4분기 전기비 1.0%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이어져 상승
- 반면 10년 만기채는 세수증가로 수급부담이 감소한 데다 미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국내 금리가 영향을 받는 모습
- 미국채금리는 연준이 미국 물가급등세(6월 전년동월대비 5.4%)에도 불구하고 수급불일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를 시사한 점과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10년 만기채가 6월 평균 1.52%에서 7월 1.32%로 큰 폭 하락
- 3년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 ('21.5월)1.13→(6월)1.30→(7월)1.42
- 10년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 ('21.5월)2.13→(6월)2.10→(7월)1.98
- 10년만기 미국채금리(월평균, %): ('21.5월)1.62→(6월)1.52→(7월)1.32

[그림 28]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29] 국고채와 미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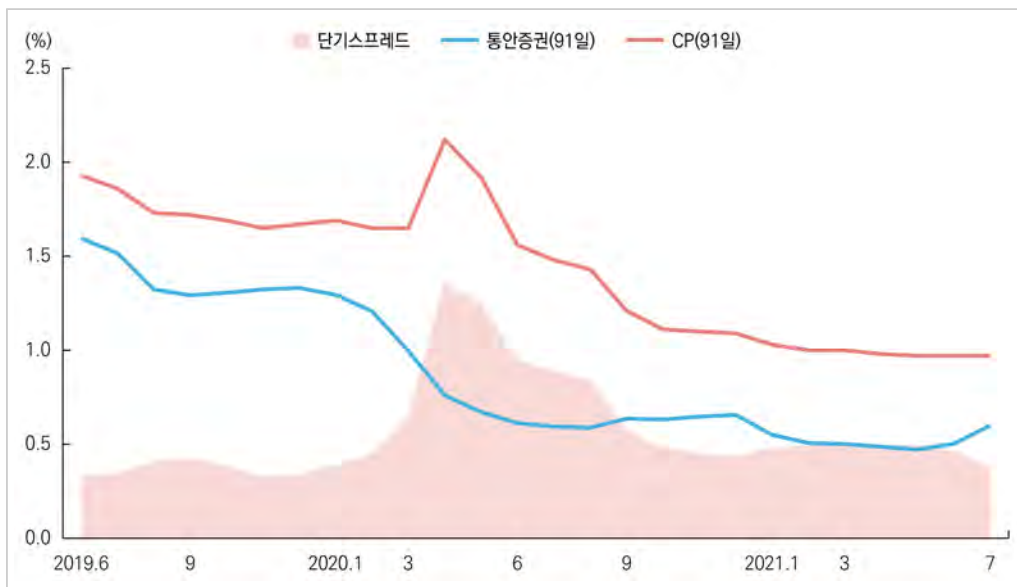


주: 10년 만기
자료: 한국은행, Fed

■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통안채(91일물)금리가 한국은행의 긴축가능성으로 0.1%p 상승한 0.60%를 나타냈으나 기업CP금리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대기업의 단기자금사정이 양호해짐에 따라 전월과 동일한 0.97%를 기록

- 통안증권금리(91일물, 월평균, %):('21.5월)0.47→(6월)0.50→(7월)0.60
- CP금리(91일물, 월평균, %):('21.5월)0.97→(6월)0.97→(7월)0.97

[그림 30] 단기금리와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2021년 7월 회사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6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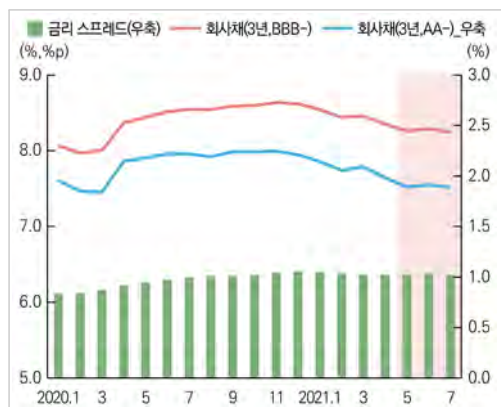
■ 2021년 7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하락

- 7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말 대비 3bp 하락한 1.89% 나타냈으며 회사채 3년물(BBB-) 금리도 4bp 하락한 8.25%를 기록
- 7월 회사채(3년, AA-등급)와 회사채(3년, BBB-등급)간 신용스프레드는 전월대비 2bp 하락한 636bp를 기록

■ 2021년 6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상승한 가운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출 금리차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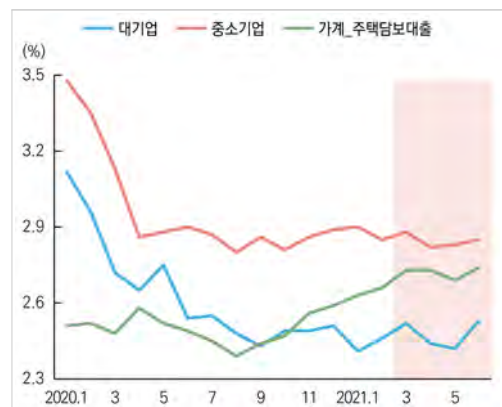
- 6월 기준 대기업 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11bp 상승한 2.53%,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2bp 상승한 2.85%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41bp에서 32bp로 축소
- 한편 6월 기준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월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전월대비 5bp 상승한 2.74%를 기록

[그림 31]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32]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 1) 예금은행 대출 기준
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나. 환율

원/달러 환율은 수출 호조 등 한국의 양호한 기초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월 중 상승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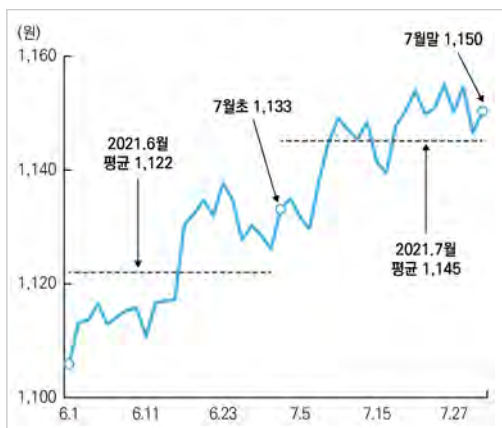
■ 2021년 7월 중 원/달러 환율은 월평균 1,145원으로 전월(1,122원)에 비해 23원(2.0%) 상승

-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민간소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나 7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9.6%(554.4억 달러)로 4개월 연속 20%대 증가하는 호조에 힘입어 국내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미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 미국 내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 미·중 대립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상승, 중국의 사교육 금지에 기인한 중국 및 홍콩증시 약세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
- 원/달러 환율(월평균): (21.5월)1,123→(6월)1,122→(7월)1,145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는 주식순매도와 채권순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체 증권투자가 8.4조원 순투자되었으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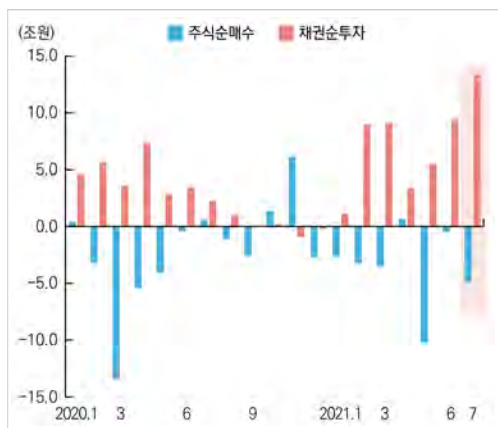
- 외국인국내증권순매수(조원): ('21.5월)-4.7→(6월)8.9→(7월)8.4

[그림 33] 원/달러 환율 추이(일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4]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추이



주: 주식순매수와 채권순투자의 합

자료: 금융감독원

다. 주가

2021년 7월말 우리나라 주가는 코로나19 재확산 양상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글로벌 주가는 경기회복 기대와 대외불확실성 확대 영향이 상충되며 혼조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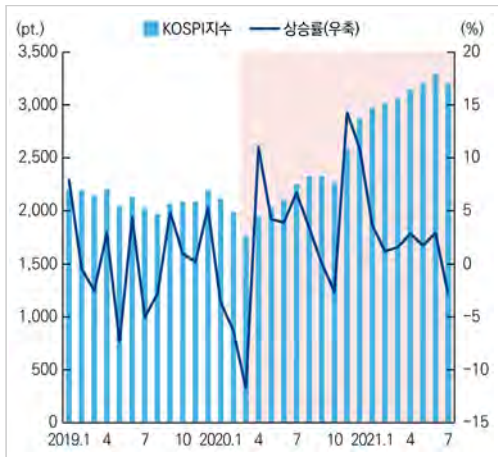
■ 2021년 7월 국내 주가는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전월말 대비 하락

- 7월말 KOSPI지수는 전월말(3,297) 대비 2.9%(94pt) 하락한 3,202를 기록
- 월말기준 KOSPI지수 하락은 2020년 10월 2.6% 하락 이후 9개월 만에 기록

■ 개인 투자자는 2020년 1월 이후 2020년 11월을 제외하고 순매수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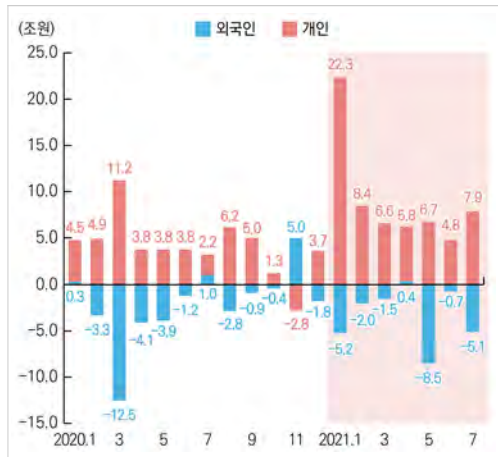
- 개인 투자자는 2020년 중 47.5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였으며, 2021년 1~7월에도 62.6조원, 월평균 8.9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
- 한편 외국인 투자자는 2020년 중 24.5조원, 2021년 1~7월 중 22.6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였으며 7월에도 5.1조원을 순매도

[그림 35] KOSPI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36]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



주: KOSPI시장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 7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경제 성장 가속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기조 변화, 코로나19 변종 확산 우려 등으로 혼조 양상

- 7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 대비 1.7% 상승하였으나 신흥국 주가는 7.0% 하락
- 한편 7월말 기준 미국, 독일 주가는 전월 대비 각각 1.3%, 0.1% 상승하였으나 일본 주가는 5.2% 하락

[그림 37]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38]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라. 신용위험

2021년 7월 우리나라 신용위험 지표는 통화정책 기조 변화 우려 등으로 상승한 가운데, 글로벌 신용위험 지표도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상승

■ 2021년 7월 한국의 신용위험지표는 기준금리 인상,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

- 2021년 7월말 기준 한국의 CDS프리미엄⁵⁾은 전월대비 0.4bp 상승한 18.4bp를 기록하였으며, 한국 CDS프리미엄 상승은 2021년 2월 이후 처음

■ 신흥국 채권가산금리⁶⁾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도 코로나19 재확산세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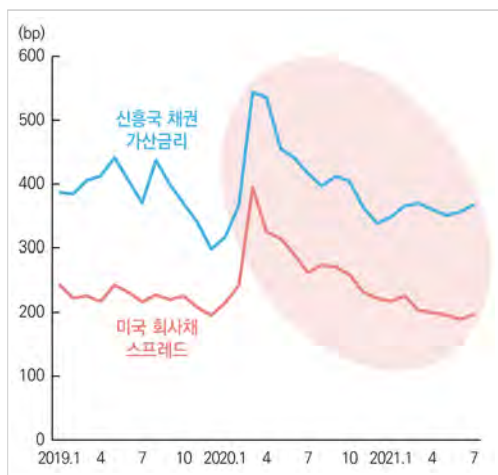
- 2021년 7월말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전월대비 12.0bp 상승한 368.1bp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도 전월대비 7.6bp 상승한 196.8bp를 기록

[그림 39] 한국 CDS프리미엄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40]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5)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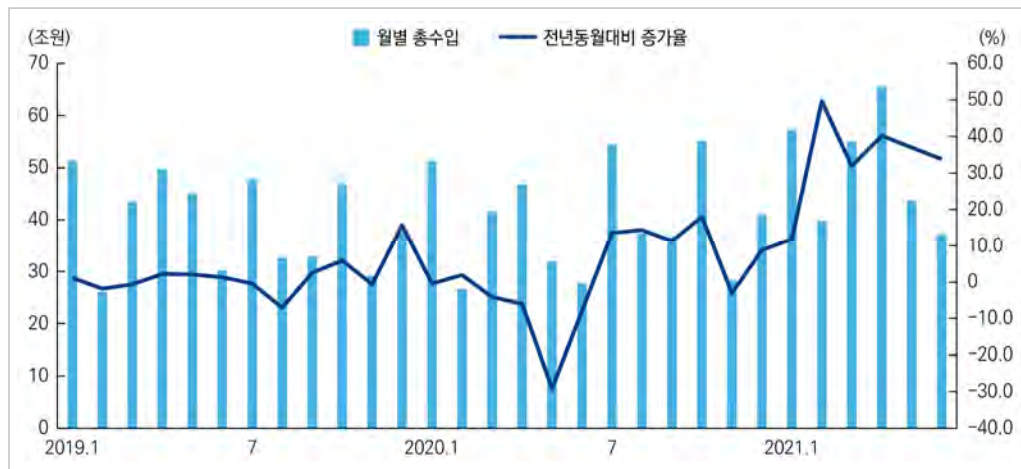
6)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짐

7.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중앙정부 총수입은 소득세와 기금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1년 6월 총수입은 37.2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4조원(33.8%) 증가

[그림 41] 총수입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 국세수입은 20.0조원으로,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⁷⁾·우발세수⁸⁾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2조원 증가

- 소득세는 8.6조원으로,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부동산 및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농특세 증가⁹⁾¹⁰⁾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4조원 증가
- 부가가치세는 2.6조원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¹¹⁾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8조원 증가
- 법인세는 1.8조원으로, 납부기한이 작년과 상이함¹²⁾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4조원 감소

■ 세외수입은 1.8조원으로, 공정위 담합기업 과징금과 '20년 부담금 유예에 따른 기저효과¹³⁾로 전년동월대비 1.0조원 증가

7) 종합소득세 등의 작년 납부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 또는 올해로 이월 및 납부 유예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약 13.3조원)를 제외하면 국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누계 약 35.5조원 증가에 해당

8) 상속세 등 우발세수로 2021년 6월 누계기준 16조원 증가

9) 증권거래대금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81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9.0% 증가

10) 주력매매량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2.7만호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

11) 소매판매지수는 2021년 2월 전년동월대비 8.2%, 3월 11.1%, 4월 8.7%, 5월 3.1%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12) 2020년 12월 연결납세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올해 4월 30일이며 한 달 이내에 법인세가 납부되어야 함. 2019년의 경우 4월 30일(석가탄신일)과 5월 1일(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관계로 신고기한이 5월 4일이었음

13) 공정위 담합기업 과징금, 경찰청·법무부의 벌금·과료(0.7조원)와 '20년 정유업계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및 항공업계 과징금 유예(0.4조원)에 기인

■ 기금수입은 15.4조원으로, 기여금수입 및 경상이전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1조원 증가

- 사회보장기여금은 9.9조원으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9조원 증가

[표 1] 중앙정부 총수입 현황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6월	1~6월	추경	6월	1~6월	6월	1~6월
총수입	470.7	478.8	27.8	226.0	483.0	37.2	298.6	9.4	72.6
국세수입	279.7	285.5	14.7	132.9	282.7	20.0	181.7	5.2	48.8
- 소득세	88.5	93.1	4.2	40.9	89.8	8.6	60.3	4.4	19.4
- 법인세	58.5	55.5	3.1	29.3	53.3	1.8	39.7	-1.4	10.4
- 부가가치세	64.6	64.9	1.8	31.0	66.7	2.6	36.1	0.8	5.1
- 기타	68.1	72.0	5.6	31.7	72.9	7.0	45.6	1.4	13.9
세외수입	29.1	26.9	0.8	13.1	29.3	1.8	16.4	1.0	3.2
기금수입	161.9	166.2	12.3	79.9	171.0	15.4	100.4	3.1	20.5
-사회보장기여금	95.8	100.0	9.0	49.5	99.5	9.9	65.6	0.9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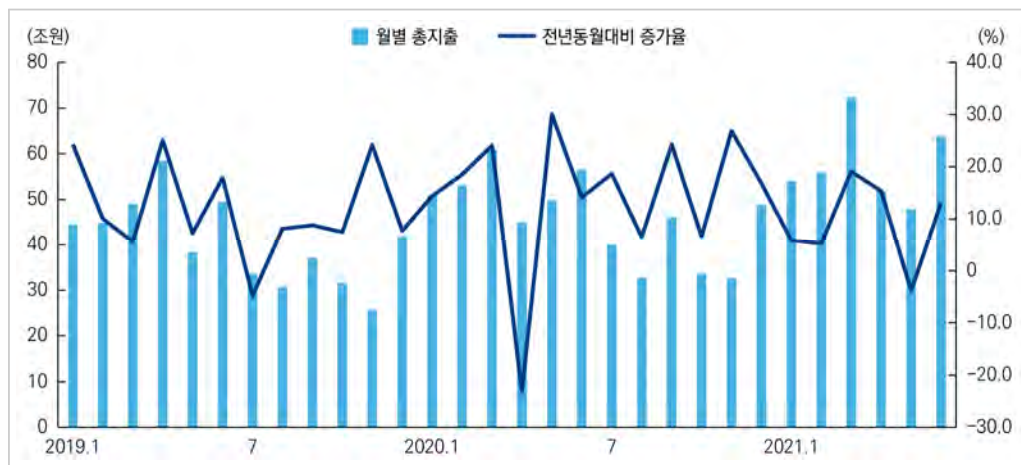
주: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기여금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중앙정부 총지출은 코로나 피해 지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 방역강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1년 6월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4조원(13.1%) 증가

[그림 42] 총지출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 예산은 45.5조원으로, 기초연금(+1.7조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0.85조원) 등 사회안전망 확대, 감염병 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0.7조원)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5조원 증가
- 기금은 18.5조원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9조원 증가

[표 2] 중앙정부 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2020년				2021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6월	1~6월 누계	추경	6월	1~6월 누계	6월	1~6월 누계
총지출	554.7	549.9	56.5	316.0	572.9	63.9	345.8	7.4	29.8
예산	377.5	374.4	39.9	228.7	382.3	45.5	238.5	5.5	9.8
일반회계	323.5	320.8	31.9	193.9	321.6	37.3	197.6	5.4	3.7
특별회계	54.0	53.6	8.0	34.8	60.8	8.1	40.9	0.1	6.1
기금	177.3	175.2	16.5	87.2	190.6	18.5	105.0	1.9	17.8
사회보장성기금	61.2	59.1	5.1	28.9	62.9	5.4	33.1	0.3	4.2
세입세출외	-	0.4	0.0	0.1	-	-	2.3	△0.0	2.2

주: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II

산업·고용동향

6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조선업을 제외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2.3% 증가

2021년 7월 주요 11대 산업의 수출은 7월 수출액 기준 1, 3위인 반도체, 화학이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주력 산업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조선,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9개 산업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3.4% 증가(9개월 연속)하였고, 전월대비로도 2.0% 증가

6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 도매 및 소매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세 지속

- 금융 및 보험(10.1%), 도매 및 소매(3.9%), 예술·스포츠·여가(11.7%) 등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4.9% (5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도매 및 소매(1.6%), 금융 및 보험(3.2%) 등에서 늘어 1.6% 증가로 전환

7월 석유와 석탄, 가스 가격 상승으로 수입에너지가격지수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상승하였고,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및 귀금속 광물지수도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석유와 석탄 가격은 최근 5년 최고가에 근접하거나 크게 상회하여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6.6% 상승
 - 7월 원유는 배럴당 73.3달러, 석탄은 톤당 152.0달러,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당 9.8달러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74.2%, 194.7%, 25.8% 상승
- 7월 농산물 및 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8.5%와 36.7% 상승하였으며 금속광물 지수와 귀금속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57.4%, 2.0% 상승

고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대면서비스업에서 나타났으나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전월에 이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

- 7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영향이 일부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반영되면서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둔화
 - 7월 중 전체 취업자 수(2,764.8만명)는 전년동월대비 54.2만 명(2.0%) 증가하며 전월(58.2만 명, 2.2%)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
 -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도소매업(6월 -16.4만명→7월 -18.6만명)과 음식숙박업(6월 1.2만명→7월 -1.2만명) 등의 일부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남

7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수도권(1.04%→1.17%) 및 지방(0.56%→0.57%)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국은(0.79%→0.85%) 상승폭 확대

II. 산업·고용동향

1. 제조업

6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조선업을 제외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의 생산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 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

-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25.5%, 23.5%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화학, 일반기계 부문도 각각 16.2%, 15.9% 큰 폭으로 증가
- 다만, 조선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9% 감소

■ 전월대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주변장치 등의 생산이 감소하여 제조업 전체로는 전월대비 2.3% 증가

- 제조업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전월대비 생산은 각각 8.6%, 6.4% 증가
- 조선업의 경우 전월대비로도 4.1% 생산이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무선 통신기기의 생산도 전월대비로는 8.9% 감소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0			2021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자수)	101.6	97.0	104.8	114.6	111.8	117.5	2.3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5.3	-11.0	-1.3	12.8	15.3	12.1	
반도체	16.9	25.8	22.3	29.7	26.8	25.5	8.6
자동차	-20.2	-36.8	-15.4	20.0	31.5	23.5	6.4
화학	-4.8	-12.3	-5.3	12.4	18.7	16.2	1.2
일반기계	1.6	-7.7	4.3	17.6	19.3	15.9	1.1
철강	-6.8	-15.5	-17.5	5.9	14.2	20.8	2.4
조선	6.8	4.0	19.1	-13.8	-15.8	-21.9	-4.1
석유	-13.7	-7.1	-7.2	5.6	9.1	4.4	-4.0
섬유	-25.6	-31.0	-17.0	25.2	28.6	20.1	4.0
무선통신기기	-24.1	-26.8	-14.6	52.5	53.3	21.5	-8.9
가전	-5.2	5.5	13.3	40.7	31.3	29.3	1.6
컴퓨터 주변장치	-6.1	-17.0	-1.9	1.8	17.2	10.2	-2.0

주: 2021년 5월, 6월은 잠정치(*)

자료: 통계청

2021년 7월 주요 11대 산업¹⁾의 수출은 7월 수출액 기준 1, 3위인 반도체, 화학이 역대 7월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주력 산업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조선,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9개 산업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3.4% 증가하며, '20년 11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

- 전월대비로는 석유, 무선통신기기, 가전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가운데, 반도체, 일반기계 등 2개 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이 증가하며 2.0% 증가

[표 2]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0년				2021년					
	4월	5월	6월	7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7월	전월대비
11대산업	-31.7	-27.2	-15.5	-10.6	46.5	49.3	43.2	8.7	33.4	2.0
반도체	-14.9	7.0	0.0	5.6	30.2	24.5	34.4	11.1	39.6	-1.5
자동차	-41.0	-58.4	-37.0	-12.6	81.3	117.0	75.0	13.1	18.8	1.5
화학	-34.2	-34.9	-11.6	-21.3	82.8	94.3	68.4	1.9	59.5	1.6
일반기계	-20.2	-27.9	-7.0	-15.9	17.1	25.7	21.4	10.1	18.4	-5.5
철강	-24.3	-34.8	-20.5	-18.6	38.9	62.9	51.7	7.7	41.5	1.0
조선	-60.9	35.7	-28.3	18.2	14.4	-14.9	41.2	42.5	9.3	0.2
석유	-62.3	-67.3	-45.7	-42.2	99.7	168.4	80.1	-3.9	73.0	19.8
섬유	-35.7	-44.3	-22.8	-15.2	46.5	57.1	36.9	4.8	17.6	1.4
무선통신기기	-33.5	-22.3	-11.7	4.3	79.8	41.4	3.6	-12.4	5.0	11.1
가전	-32.5	-38.4	-5.4	5.3	69.3	89.3	47.5	6.9	29.7	10.5
컴퓨터 주변장치	-5.4	3.3	15.2	-0.4	22.0	22.4	22.5	10.3	32.6	7.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1)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반도체 산업의 생산과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 전월대비 생산도 지난달 5.2% 증가한 것에 이어 8.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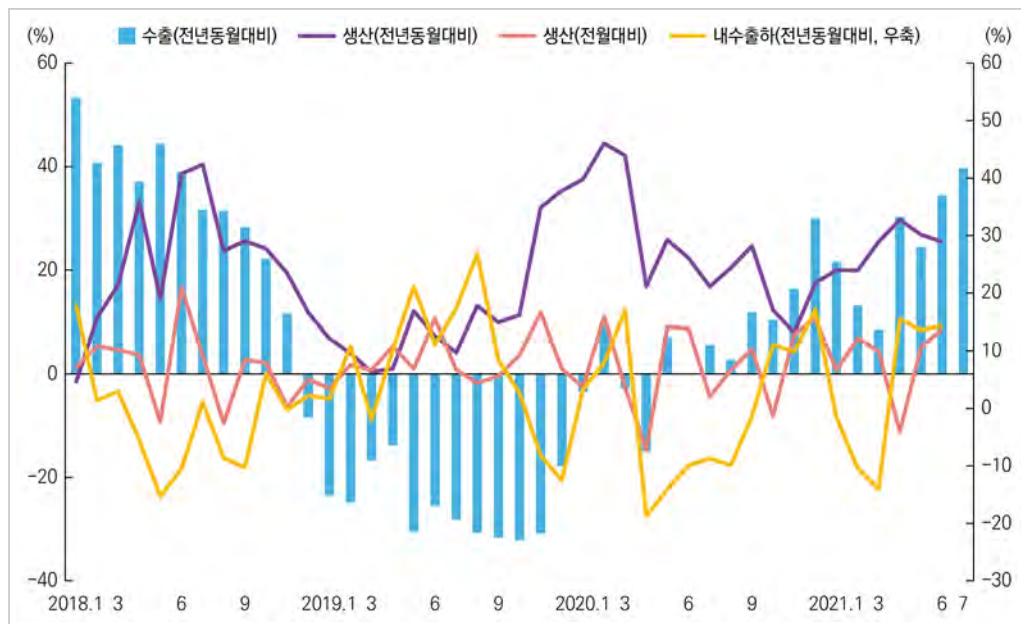
■ 반도체 사용주기에 따른 호황기가 도래함에 따라 내수 및 수출이 모두 증가한 데 힘입어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5.5%, 전월대비 8.6%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4월)29.7 → (5월)26.8 → (6월)25.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21. 4월)-11.1→ (5월)5.3 → (6월)8.6
- 내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4월)15.5 → (5월)13.6 → (6월)14.4

■ 7월 중 수출은 해외시장에서 무선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39.6% 크게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4월)30.2 → (5월)24.5 → (6월)34.4 → (7월)39.6

[그림 1] 반도체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수급차질로 생산량 조정이 있었으나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뿐만 아니라 전월대비로도 증가했으며,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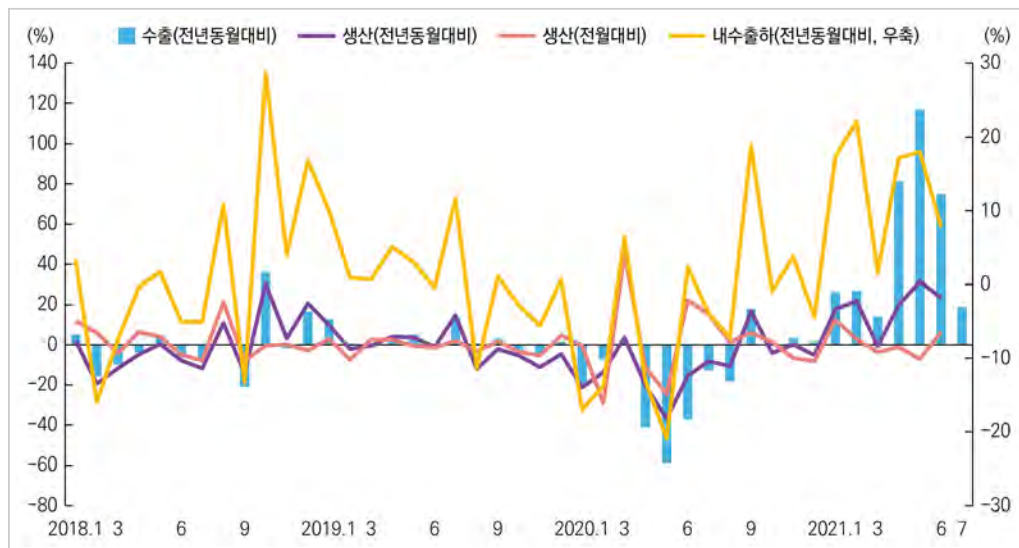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3.5%, 전월대비 6.4% 증가

-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1.1%를 차지했으며, 국산 전기차와 수소차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28.8%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20.0 → (5월)31.5 → (6월)23.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1.0 → (5월)-7.0 → (6월)6.4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17.2 → (5월)18.0 → (6월)7.8

■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했으며, 전월대비로도 1.5% 증가하여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

- 완성차 수출은 승용차 전 차종이 증가했으며, 친환경차는 전체 승용차 수출의 15.8%를 차지하여 수출대수 증가율보다 수출액 증가율이 더 높음
- 미국·EU·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내 자동차 판매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자동차부품 수출도 크게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81.3 → (5월)117.1 → (6월)75.0 → (7월)18.8

[그림 2]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화학 산업의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전월대비 생산도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7월 수출 또한 6개월 연속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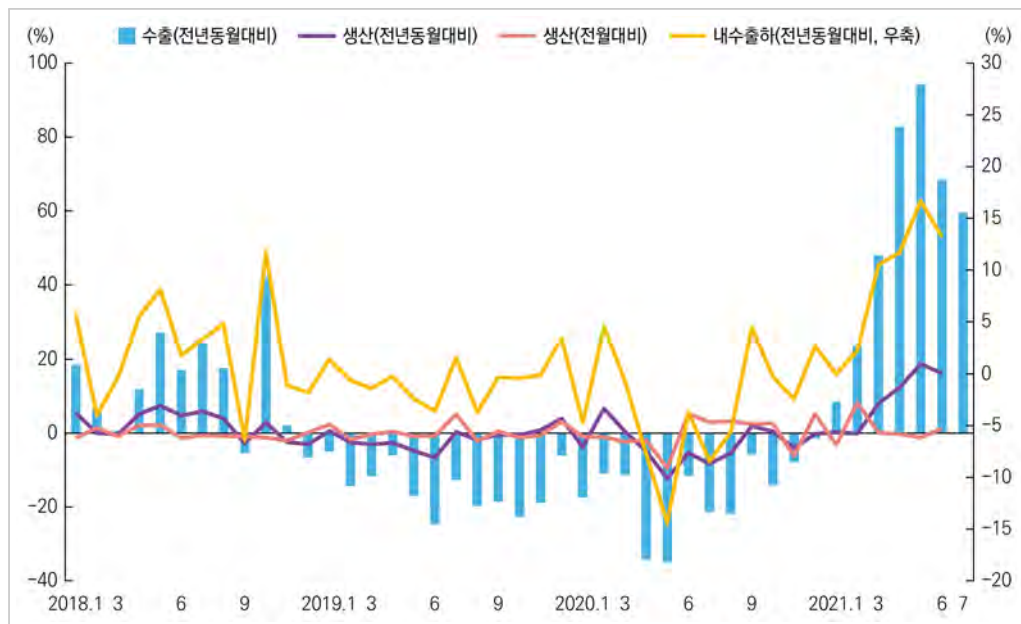
■ 6월 중 생산은 중간재 소비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2%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1.2%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4월)12.4 → (5월)18.7 → (6월) 16.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21. 4월)-0.3 → (5월)-1.2 → (6월)1.2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4월)11.7 → (5월)16.7 → (6월)13.2

■ 해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유지되는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9.5% 크게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4월)82.8 → (5월)94.3 → (6월)68.4 → (7월)59.5

[그림 3] 화학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계 산업의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7월 수출도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공작기계 등의 선전으로 역대 3위의 7월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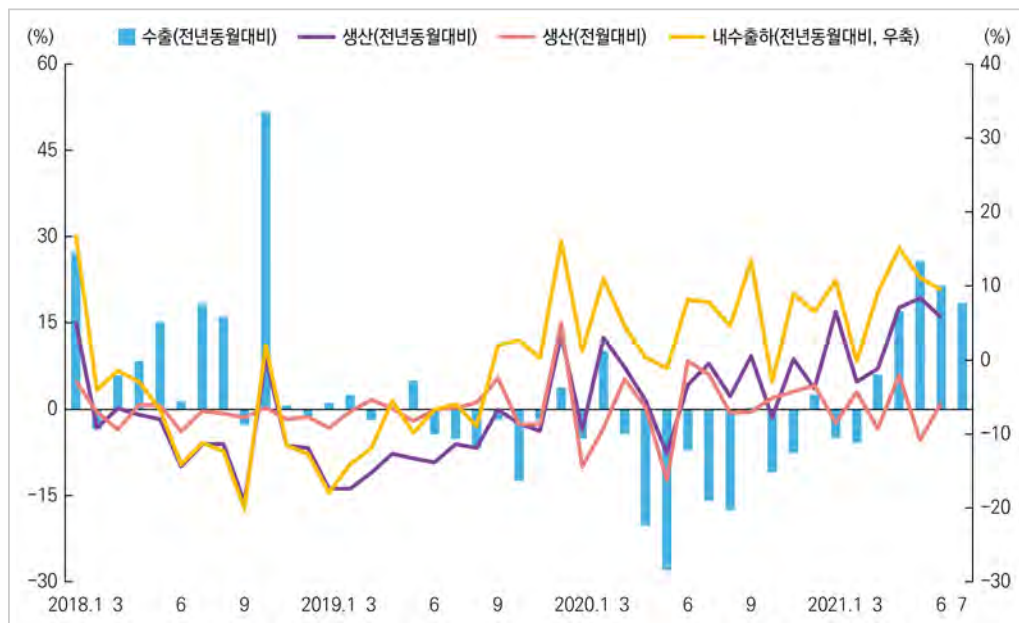
■ 6월 생산은 내수출하의 증가와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5.9% 증가하며, '20년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17.6 → (5월)19.3 → (6월)15.9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6.0 → (5월)-5.3 → (6월)1.1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15.1 → (5월)11.1 → (6월)9.4

■ 7월 수출은 IT기기 생산에 필요한 광학기기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미국·EU 등 선진국과 중남미·인도 등 신흥국으로의 건설기계 수출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8.4%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17.1 → (5월)25.7 → (6월)21.4 → (7월)18.4

[그림 4] 일반기계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철강 산업의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7월 수출도 수출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방산업 경기가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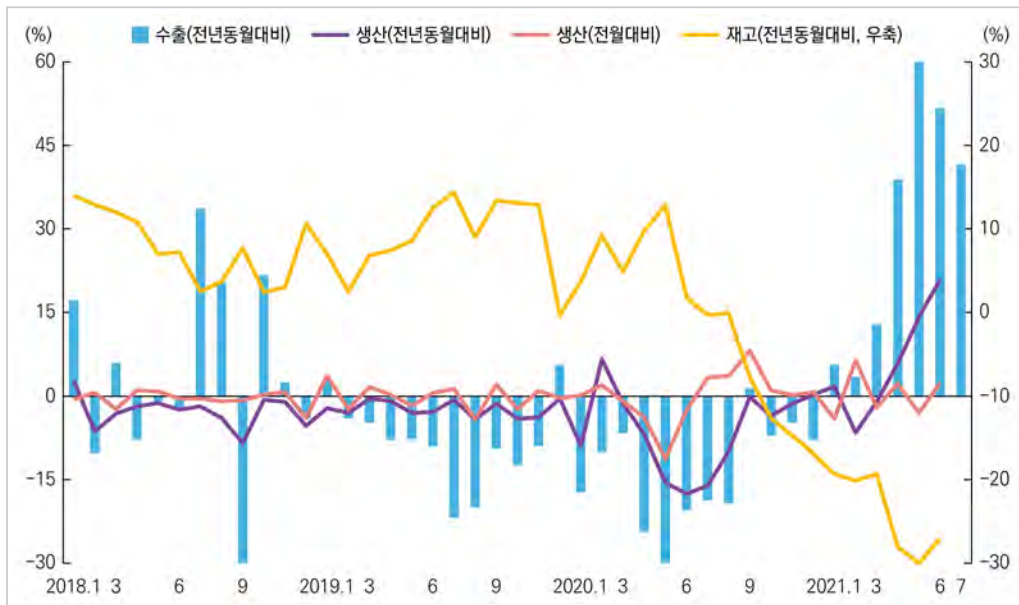
■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0.8%, 전월대비 2.4% 증가하였고, 재고는 국내 공급부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7.0%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5.9 → (5월)14.2 → (6월)20.8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2.3 → (5월)-3.0 → (6월)2.4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28.0 → (5월)-30.0 → (6월)-27.0

■ 7월 수출은 국내 공급부족으로 인해 수출 물량을 일부 내수로 전환하였음에도, 원자재 가격과 철강재 수출 단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건설, 자동차 등 전방산업 경기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1.5%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

- 철강석 가격(달러/톤): ('20.6월) 107 달러 → ('21.7월) 217 달러(102.4%)²⁾
- 철강재 수출 단가(달러/톤): ('20.6월) 742 달러 → ('21.7월) 1,129 달러(52.0%)³⁾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38.9 → (5월)62.9 → (6월)51.7 → (7월)41.5

[그림 5] 철강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잠정치

3) 잠정치

조선 산업의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월 수출은 LNG선 등의 수출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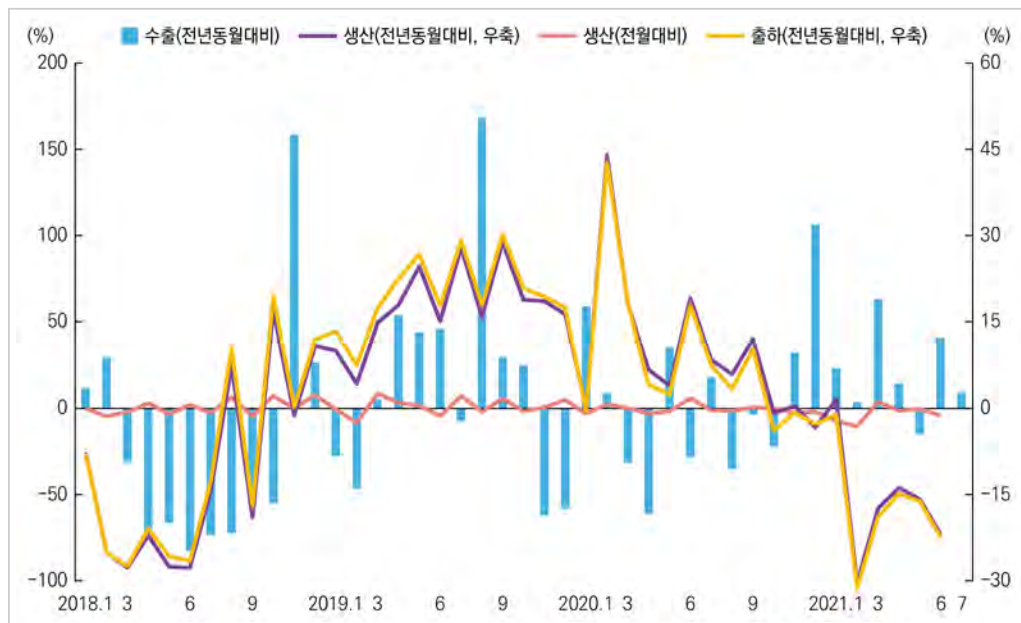
■ 6월 중 생산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20년 4월~6월 간 수주(79만 CGT)가 전년동기대비 52.4% 줄어든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1.9% 감소하였으며, 출하도 22.4% 감소

- 반면, 6월 중 수주는 컨테이너선 25척, 화학제품 운반선 12척, LPG선 9척, LNG선 2척 등 총 58척의 수주가 이루어져 전년동월대비 619.0% 증가한 181.9만 CGT(Compensated Gross Tonnage)를 기록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13.8 → (5월)-15.8 → (6월)-21.9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1.2 → (5월)-0.2 → (6월)-4.1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14.8 → (5월)-16.1 → (6월)-22.4

■ 7월 중 수출은 19.5억 달러로 LNG선 등의 통관이 진행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14.4 → (5월)-14.9 → (6월)41.2 → (7월)9.3

[그림 6] 조선 산업 생산·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석유 산업의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했고, 7월 수출도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5개월 연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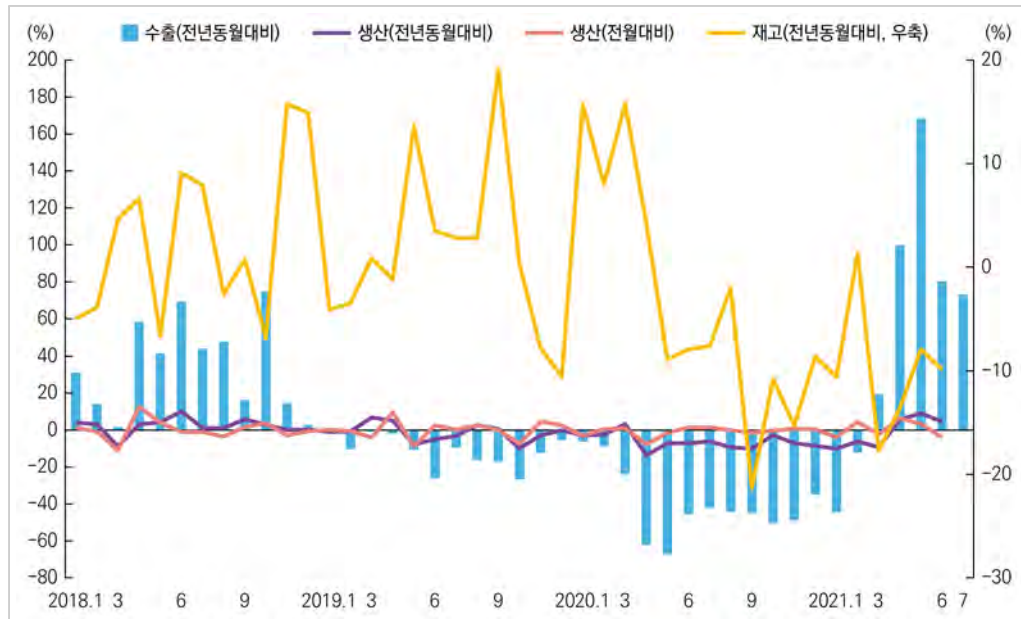
■ 6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했으나, 전월대비로는 4.0% 감소

- 6월 생산량은 9,267만 배럴으로 2019년 월평균의 88.9%인데, 내수수요는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수출수요가 2019년 월평균의 81.6%로 낮기 때문
- 석유제품 재고량은 전년동월대비로는 9.9% 하락했으나, 전월대비로는 다소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5.6 → (5월)9.1→ (6월)4.4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6.3 → (5월)3.3→ (6월)-4.0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13.6 → (5월)-7.9→ (6월)-9.9

■ 7월 수출은 기저효과와 유가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73.0% 증가하였으나 수출물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99.7→ (5월)168.4→ (6월)80.1→ (7월)73.0

[그림 7] 석유 산업 생산·재고·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섬유 산업의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7월 수출도 전방산업의 판매 회복과 글로벌 섬유 수요의 개선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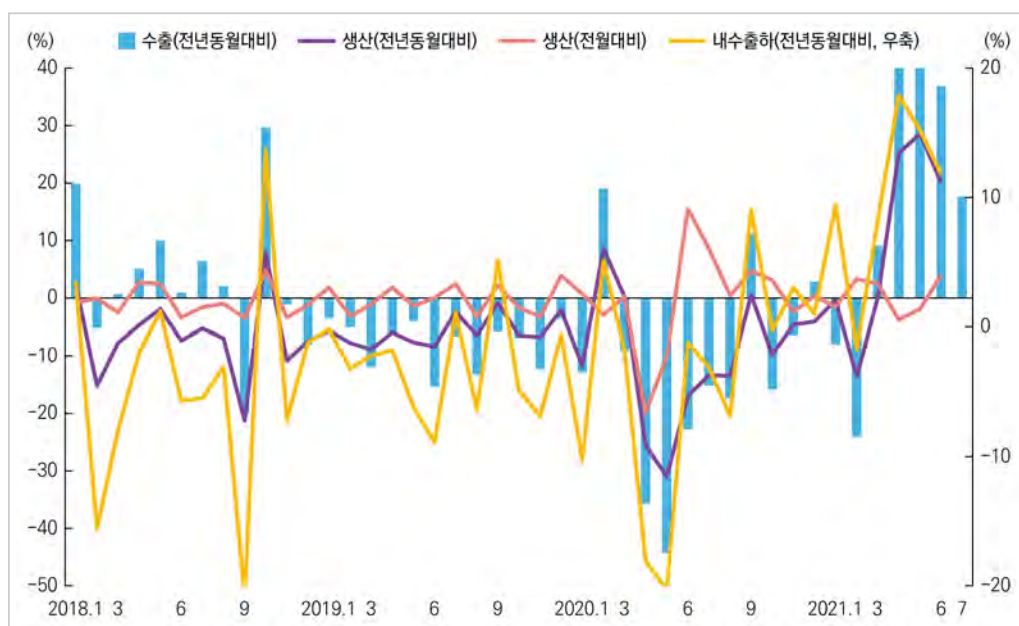
■ 6월 생산은 의류 등 소매판매액 및 수출이 증가함에 따른 재고 감소와 가동률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20.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4.0%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25.2 → (5월)28.6 → (6월)20.1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3.8 → (5월)-1.9 → (6월)4.0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17.9 → (5월)15.2 → (6월)11.8

■ 7월 수출은 의류·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판매가 증가하고 글로벌 섬유 수요가 회복되는 가운데, 중국산 일부 소재에 대한 제재의 반사이익 등으로 아세안·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7.6%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46.5 → (5월)57.1 → (6월)36.9 → (7월)17.6

[그림 8] 섬유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6월 생산과 7월 수출은 국내외 수요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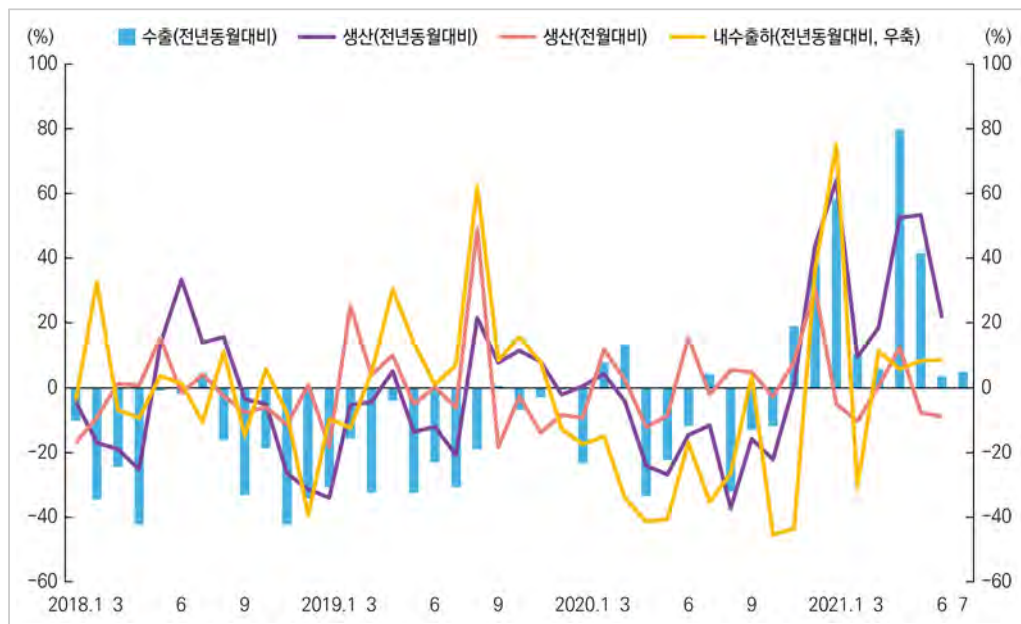
■ 6월 중 생산은 통신기기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하는 등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1.5% 증가하고 내수출하도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8.9%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52.5 → (5월)53.3 → (6월)21.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12.5 → (5월)-7.6 → (6월)-8.9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11.3 → (5월)8.4 → (6월)8.6

■ 7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한 11.7억 달러로 5G 스마트폰 등 완제품 수출 중심의 대미 수출이 27.7% 증가하고,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지인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이 늘면서 스마트폰 부품품 중심의 대중 수출도 29.4% 증가함에 따라 9개월 연속으로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79.8 → (5월)41.4 → (6월)3.6 → (7월)5.0

[그림 9]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전 산업의 6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7월 수출도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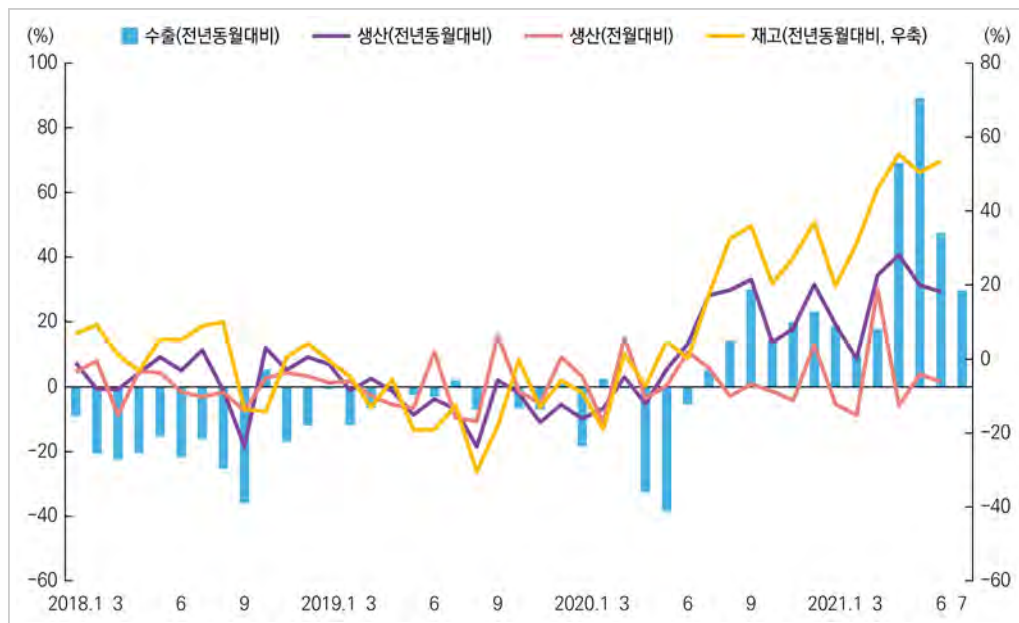
■ 6월 중 생산은 코로나19 펜트업(pent-up) 효과⁴⁾로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기기를 교체하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대비 29.3% 증가하고 전월대비로도 1.6% 증가한 가운데, 수요 확대에 대비한 재고축적으로 재고도 전년동월대비 53.5%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40.7 → (5월)31.3 → (6월)29.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5.6 → (5월)3.9 → (6월)1.6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55.3 → (5월)50.4 → (6월)53.5

■ 7월 중 수출은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가전(냉장고, 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58.7%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29.7% 증가한 8.3억 달러를 기록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69.3 → (5월)89.3 → (6월)47.5 → (7월)29.7

[그림 10] 가전 산업 생산·재고·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억눌렸던 수요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으로, 보통 외부 영향으로 수요가 억제되었다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발생

컴퓨터 주변장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수출도 전년동월 대비 가파른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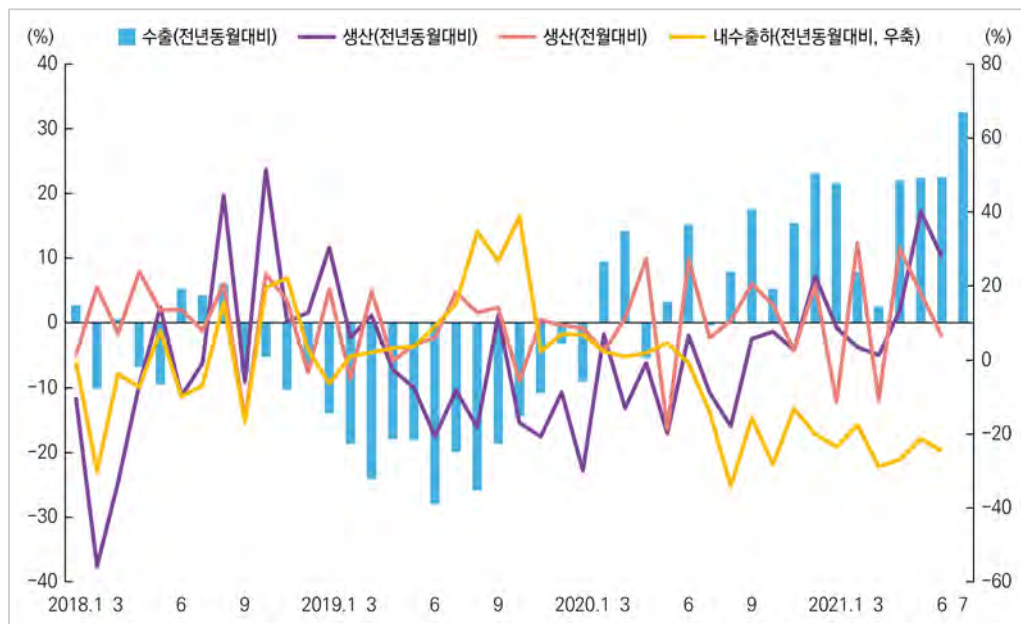
■ 컴퓨터 주변장치의 수요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0.2%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출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월대비 생산은 2.0%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4월)1.8 →(5월)17.2 →(6월)10.2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21. 4월)11.5 →(5월)4.5 →(6월)-2.0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4월)-27.0 →(5월)-21.2 →(6월)-24.6

■ 해외시장에서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컴퓨터 주변장치의 7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2.6%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22.0 →(5월)22.4 →(6월)22.5 →(7월)32.6

[그림 11]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서비스업

6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 도매 및 소매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세가 지속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10.1%), 도매 및 소매(3.9%), 예술·스포츠·여가(11.7%) 등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 8.3 → (5월) 4.2 → (6월) 4.9
- 금융 및 보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 11.7 → (5월) 7.4 → (6월) 10.1
- 도매 및 소매(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 9.3 → (5월) 3.1 → (6월) 3.9
- 예술·스포츠·여가(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 34.9 → (5월) 18.3 → (6월) 11.7

■ 전월대비로도 도매 및 소매(1.6%), 금융 및 보험(3.2%) 등에서 늘어 1.6% 증가로 전환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 0.2. → (5월) -0.4 → (6월) 1.6

[표 3]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0			2021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01.1	105.1	108.2	109.5	109.5	113.5	1.6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1	-4.0	-0.0	8.3	4.2	4.9	
도매 및 소매	-7.3	-4.4	0.0	9.3	3.1	3.9	1.6
금융 및 보험	9.2	9.3	16.4	11.7	7.4	10.1	3.2
교육	-7.4	-6.5	-2.2	4.7	3.3	0.8	0.3
보건 및 사회복지	2.4	2.1	1.6	2.4	3.1	3.7	0.8
숙박 및 음식점	-24.6	-14.1	-12.1	8.3	-2.1	-0.5	2.7
운수	-20.8	-18.4	-15.8	14.9	8.9	9.4	1.0
출판·영상·방송	1.7	1.5	2.0	2.9	2.9	5.4	1.0
전문, 과학 및 기술	-5.1	-5.0	5.6	6.9	2.7	3.2	1.9
사업시설관리지원	-13.6	-12.5	-11.9	5.5	5.3	5.5	0.2
협회·수리·기타개인	-16.4	-5.1	-0.7	8.0	-3.6	-2.4	2.2
부동산 및 임대	0.7	3.2	11.9	8.8	5.5	3.1	0.0
예술·스포츠·여가	-46.4	-40.1	-34.6	34.9	18.3	11.7	4.8
하수, 폐기물 처리	-0.8	-0.8	10.7	6.6	6.3	5.2	-1.3

주: 2021년 5월, 6월은 잠정치(*)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6월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 부문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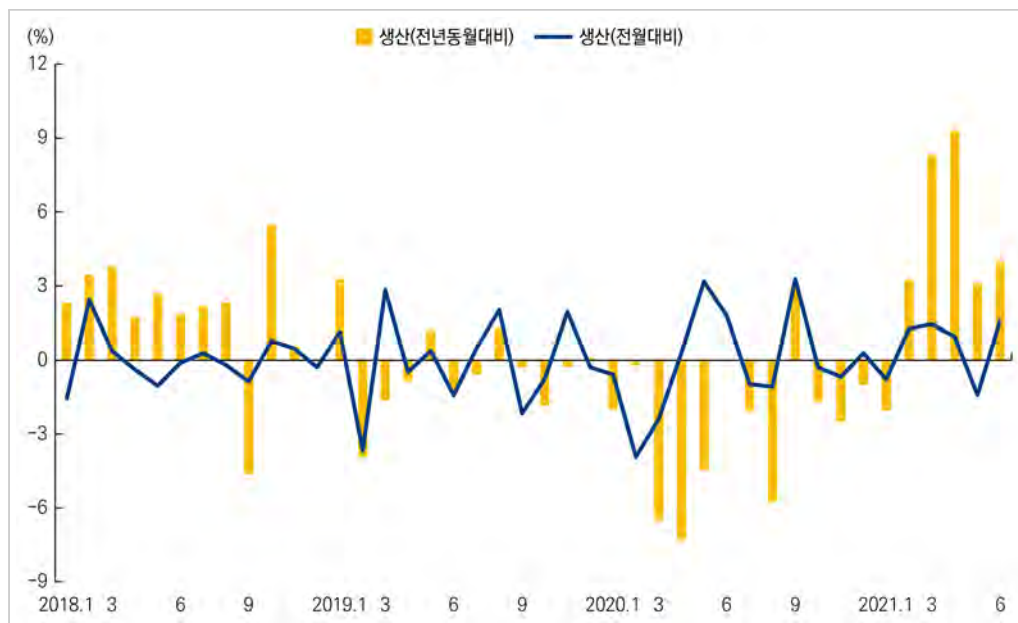
■ 6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자동차 판매업(-5.2%) 부문이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도매업과 소매업 부문이 각각 5.9%, 1.7%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9.3 → (5월)3.1 → (6월)3.9
- 자동차 판매업 부문 생산은 2020년 6월 세제혜택, 신차효과 등으로 역대 월간 최대 판매실적을 달성함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판매가 19.4%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5.2% 감소
- 도매업 부문 생산은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 도매업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생산 등이 각각 9.5%, 3.5%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 소매업 부문 생산은 음·식료품 소매업과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등이 각각 6.3%, 3.5% 감소하였으나, 연료소매업, 무점포소매업 등이 각각 3.9%, 9.6%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전월대비로도 자동차 판매업 부문이 0.3% 감소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 부문이 각각 1.7%, 1.6% 증가함에 따라 전월대비 1.6% 증가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0.9 → (5월)-1.4 → (6월)1.6

[그림 12]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월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월대비로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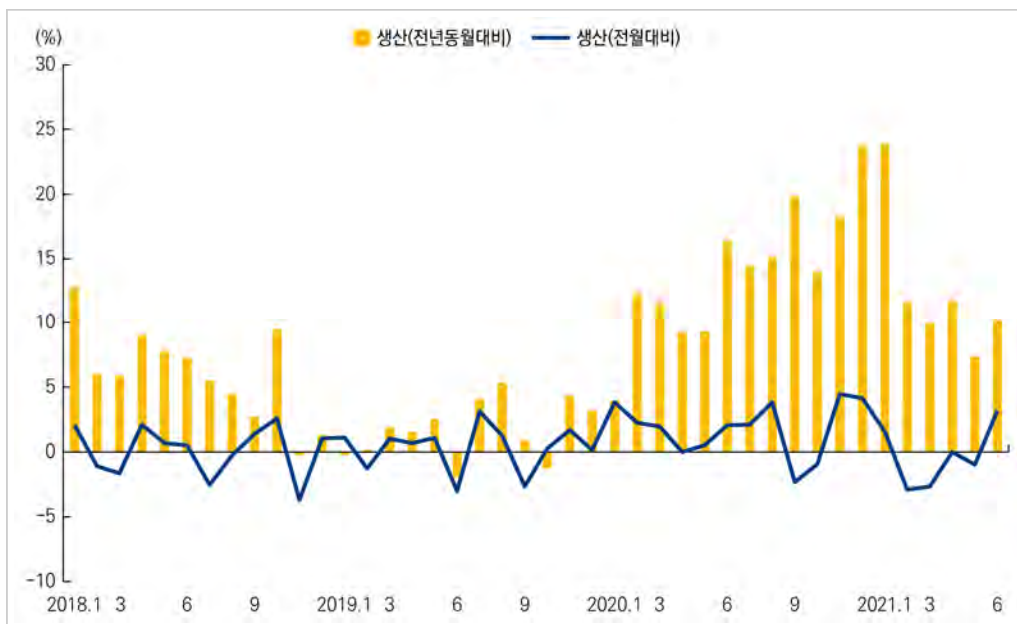
■ 6월 중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했는데, 10개 세부부문이 모두 증가

- 공제업과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부문의 증가율이 각각 38.8%와 12.5%로 높았으며, 금융 지원 서비스업과 은행 및 저축기관업 부문이 각각 12.5%와 10.3%, 보험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부문은 각각 4.9%와 1.7%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11.7 → (5월)7.4 → (6월)10.1

■ 전월대비로는 3.2% 증가했는데 세부부문별로는 금융업과 보험업 부문은 2.3%와 1.9% 증가에 그쳤으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이 6.8%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0.0 → (5월)-1.0 → (6월)3.2

[그림 13]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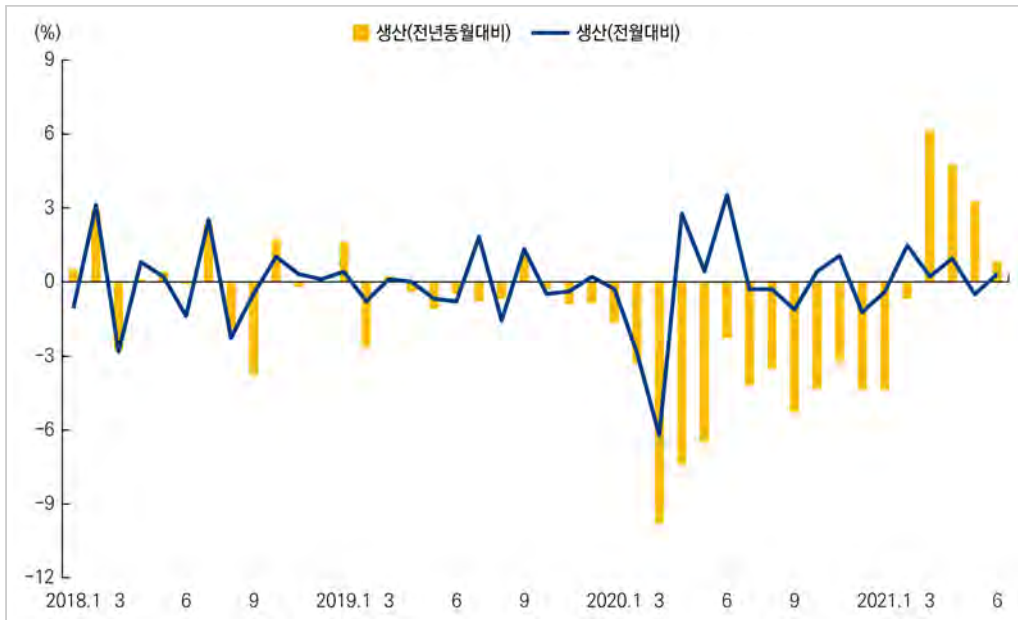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월 교육 서비스업 생산은 중등·고등교육기관은 감소했으나, 가중치가 가장 큰 초등 교육기관과 더불어 학원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생산은 교육 서비스업 전체의 고용 증가와 초등학교 1, 2학년의 매일등교 원칙,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수도권 중학교의 밀집도 완화 및 직업계고의 전면등교 실시에 따라 0.3% 증가⁵⁾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4.7 → (5월)3.3 → (6월)0.8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0.9 → (5월)-0.5 → (6월)0.3

[그림 14] 교육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의 원칙을 6월 14일부터 1/3에서 2/3로 완화하고, 현장실습 대비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직업계의 전면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 시행(교육부 보도자료,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2021.6.20.)

6월 보건 및 사회복지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7%, 전월대비 0.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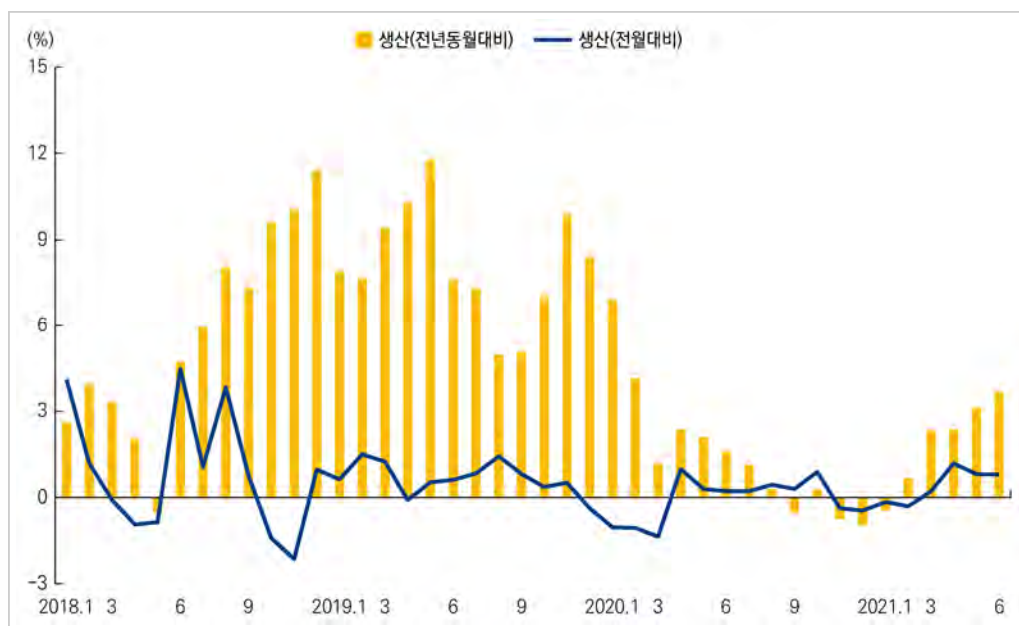
■ 지난 해 급격히 위축되었던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지난 3월 이후 병원부문과 거주복지시설 운영업 부문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3.7% 증가

- 생산지수(불변, 2015=100): ('21. 4월)132.7 → (5월)135.0 → (6월)138.2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 4월)2.4 → (5월)3.1 → (6월)3.7

■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이 상당 부분 정상화되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전월대비 생산 0.8% 증가에 기여

- 생산지수(계절조정, 2015=100.0): ('21. 4월)135.4 → (5월)136.5 → (6월)137.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 4월)1.2 → (5월)0.8 → (6월)0.8

[그림 15] 보건 및 사회복지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월대비로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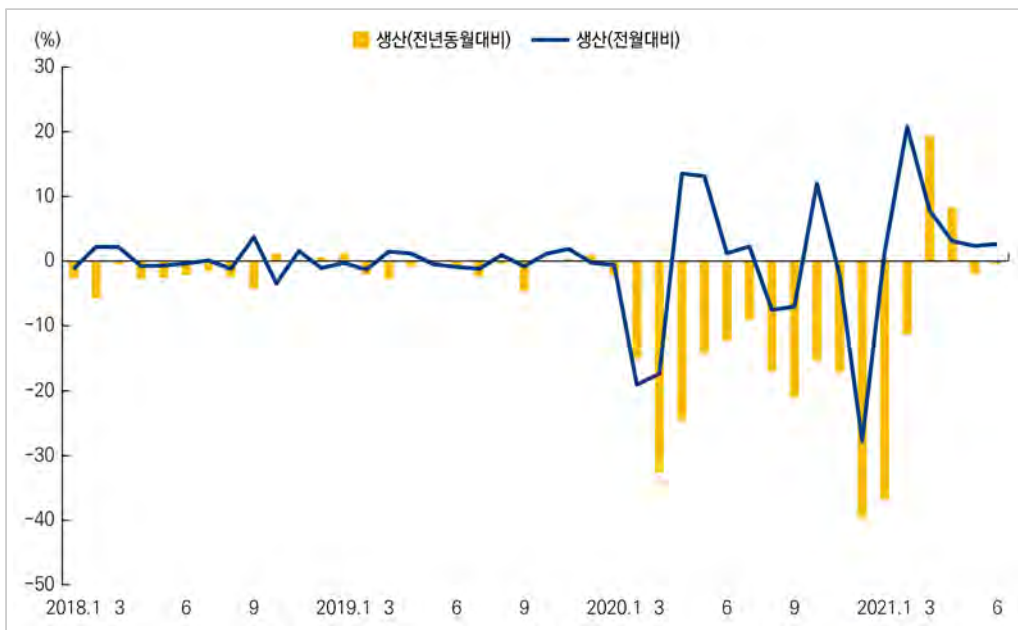
■ 6월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했는데, 숙박업 부문은 18.4% 증가한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이 2.5% 감소하여 세부부문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

-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운영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4.9%와 36.5% 증가하여 기저효과에 따른 두자릿수 증가율이 3월 이후 지속
- 주점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0.6% 감소하여 가장 오랫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4월) 8.3 → (5월)-2.1 → (6월)-0.5

■ 전월대비로는 2.7% 증가하였는데, 숙박업 부문은 3.7%, 음식점은 2.7%,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업 부문은 2.0% 증가하여 회복세는 완만하게 나타남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4월) 3.1 → (5월) 2.4 → (6월) 2.7

[그림 16]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7월 석유와 석탄, 가스 가격은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석유와 석탄 가격은 최근 5년 최고가에 근접하거나 크게 상회하여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6.6% 증가

■ 7월 원유 가격은 배럴당 73.3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4.2%, 전월대비 2.1% 상승하여 최근 5년 최고가 (76.7달러)에 가까워짐

- 최근 OPEC+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 합의(일평균 40만 배럴 증산)와 코로나 델타변이 우려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원유 및 정제유 재고가 감소하여 7월 유가는 상승세를 유지
- OPEC+의 공급확대와 코로나 델타 변이 우려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국제원유가격(달러/배럴): ('21.5월)66.4 → (6월)71.8 → (7월)73.3

■ 7월 석탄 가격은 톤당 152.0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94.7%, 전월대비 16.9% 상승하여 11개월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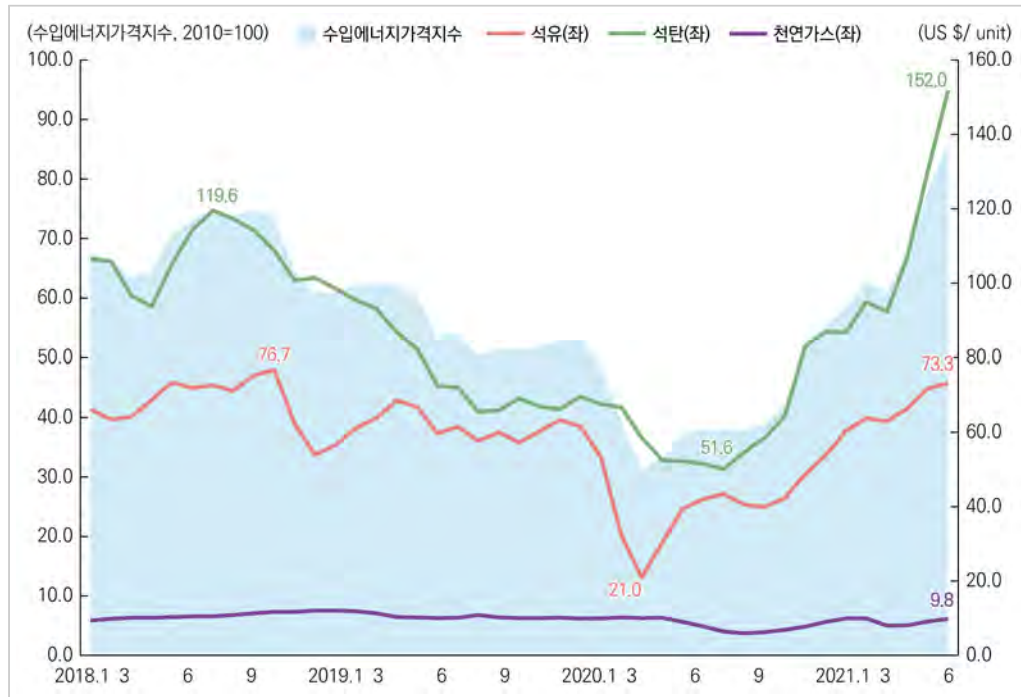
- 석탄발전은 전세계 발전설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근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는 발전용 석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석탄가격(달러/톤): ('21.5월)107.0 → (6월)130 → (7월)152.0

■ 7월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당 9.8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5.8%, 전월대비 8.2% 상승

- 우리나라는 장기계약물량이 많아 가격 변동이 작은 편이지만,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전년의 1.74달러에서 3.80달러로 119% 상승했으며, 유럽은 1.80달러에서 12.51달러로 595% 상승하여 국내 가스 가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각국의 친환경정책으로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남미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가스가격(달러/mmbtu): ('21.5월)8.1 → (6월)9.1 → (7월)9.8

※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질량 1파운드의 물의 온도를 1°F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그림 17] 국제 에너지 가격과 수입에너지가격지수 추이



주: 1) 수입에너지가격지수는 음영으로 표시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을 고려하여 석유가격 45.5%, 석탄 33.3%, 천연가스 21.2%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2)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우축)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자료: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7월 농산물과 식품, 귀금속 및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로는 모두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로는 금속광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

■ 7월 농산물 및 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8.5%와 36.7%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로는 1.0%, 1.3% 하락

-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4.1%, 전월대비 0.1% 상승했으며, 기말재고량은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로는 0.3% 감소
-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도 엽채류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산지 농사인력 감소때문
- 농산물지수: (‘21.5월)111.1 → (6월)108.8 → (7월)107.7
- 식품지수: (‘21.5월)126.0 → (6월)122.5 → (7월)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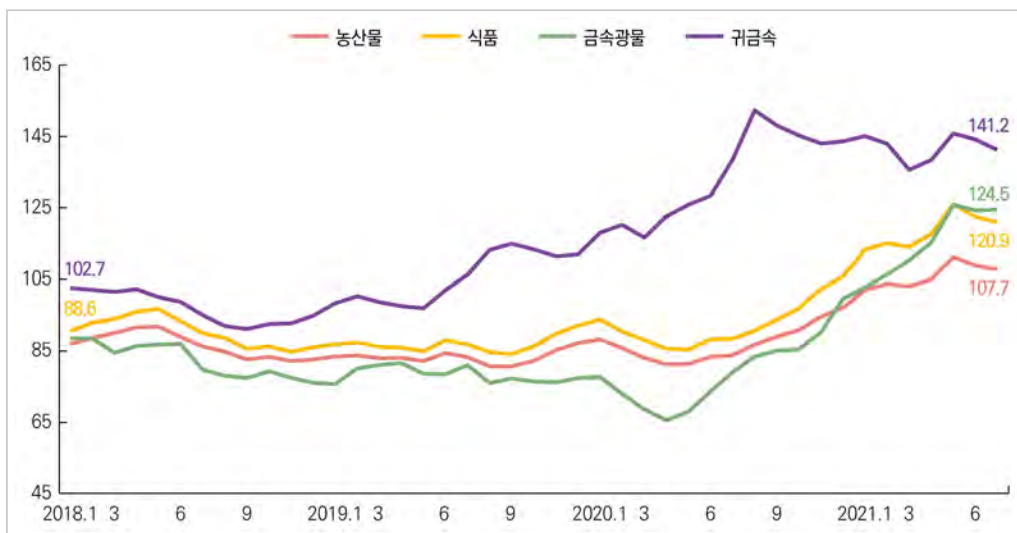
■ 7월 금속광물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7.4%, 전월대비 0.2% 상승

-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과 중국의 비철금속 전략재고 방출은 비철금속 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는 금속광물 하락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
- 금속광물지수: ('21.5월)125.8 → (6월)124.3 → (7월)124.5

■ 7월 귀금속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했으나, 테이퍼링 논의 시작과 미국 고용지표 회복 등에 따라 가격하방 압력이 작용하여 전월대비로는 2.1% 하락

- 전월대비 금, 은, 백금은 각각 1.5%, 3.3%, 4.9% 하락
- 귀금속지수: ('21.5월)145.8 → (6월)144.2 → (7월)141.2

[그림 18]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나. 국내 에너지 수요

2021년 5월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감소로 전월대비로는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3.0% 상승했는데, 석탄과 가스, 전력소비가 각각 18.0%, 9.3%, 6.4% 증가하고, 액화가스와 열,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도 증가한 반면, 석유는 3.2% 감소

- 석탄소비는 발전용이 17.4%, 산업용이 47.9% 증가한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도시가스는 산업용, 천연가스는 발전용 소비로 인해 크게 증가

■ 전월대비로는 1.7% 감소했는데, 난방용 열에너지와 도시가스 소비의 감소가 크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소비는 증가

- 계절적 요인으로 가정, 상업, 공공부문의 도시가스와 열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반면, 발전용 석탄소비 가 크게 증가

※ 최종에너지는 일차에너지 중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로 사용하는 에너지를 의미

[표 4]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소비

(단위 : 1,000toe)

	2018	2019	2020	2021*				
				5월	4월	5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33,368	231,353	222,016	17,985	18,855	18,527	3.0	-1.7
전년동월대비	1.2	-0.9	-4.0	5.3	6.7	3.0		
석탄	32,480	32,057	30,565	2,295	2,580	2,708	18.0	4.9
석유	116,831	116,125	109,484	9,877	9,525	9,557	-3.2	0.3
액화천연가스	2,038	2,909	3,602	273	274	285	4.4	4.2
도시가스	24,979	23,943	23,121.7	1,415	1,860	1,546	9.3	-16.9
전력	45,249	44,763	43,797	3,296	3,603	3,507	6.4	-2.7
열	2,682	2,646	2,657	106	213	127	19.5	-40.4
신재생 및 기타	9,110	8,910	8,789	722	799	796	10.2	-0.4

주 : 2021년 자료는 잠정치(*)

자료 : 에너지통계월보

2021년 6월 전력수요는 기저효과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뿐 아니라 전월대비로도 증가

■ 전년동월대비 산업부문의 소비가 9.7% 증가하였고, 공공부문은 6.4%, 가정과 서비스부문은 1.4%, 0.5% 증가

- 제조업 업종별로는 자동차, 전기장비, 플라스틱, 금속가공의 전력수요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27.0%, 19.6%, 15.3%, 15.0% 증가

■ 전월대비로는 건물부문의 냉방이 시작되면서 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이 각각 8.8%, 7.3% 증가하였고, 산업부문은 0.1% 증가하여 2.9% 증가

- 특히 산업부문 중 제조업은 전월대비 0.1% 감소했으므로, 전월대비 증가분 2.9%의 대부분은 냉방수요로 추정

[표 5]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18	2019	2020	6월	2021*			
					5월	6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26,149	520,499	509,270	39,753	40,842	42,032	5.7	2.9
전년동월대비	3.6	-1.1	-2.2	-2.1	6.6	5.7		
가정부문	70,687	70,455	74,073	5,758	5,595	5,839	1.4	4.4
공공부문	24,569	24,458	23,623	1,783	1,743	1,896	6.4	8.8
서비스부문	147,189	145,816	142,881	11,239	10,526	11,297	0.5	7.3
산업부문	283,704	283,705	268,692	20,973	22,978	23,000	9.7	0.1

주 :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1년 자료는 잠정치(*)

자료: 전력통계속보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리

4. 고용

고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대면서비스업에서 나타났으나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전월에 이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

■ 7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영향이 일부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반영되면서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소폭 둔화

- 7월 중 전체 취업자 수(2,764.8만명)는 전년동월대비 54.2만 명(2.0%) 증가하며 전월(58.2만 명, 2.2%)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
- 서비스업(6월 43.8만 명→7월 43.4만명)에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도소매업(6월 -16.4만명→7월 -18.6만명)과 음식숙박업(6월 1.2만명→7월 -1.2만명) 등의 일부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나타남

* 사회적 거리두기는 7월1일부터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재편되었고,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으로 신규확진 자수가 7월7일부터 1,000명대로 접어들며 지난 7월12일부터 수도권 4단계,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있음

[그림 19] 전체 취업자 수 증감



[그림 20]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



주: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수 창고업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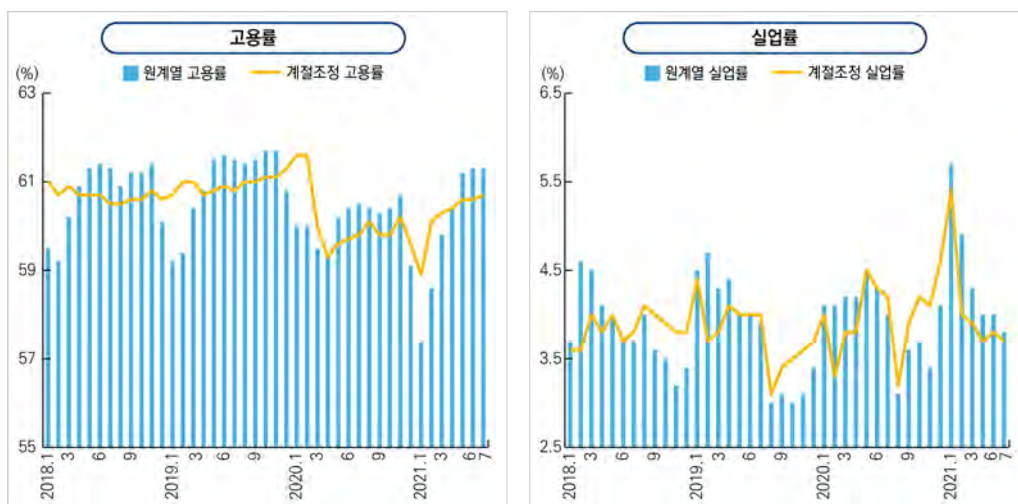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하여 전월(61.3%, 0.9%p)에 이어 상승폭이 소폭 둔화

- 청년층(45.5%, 2.8%p)과 50대(75.7%, 1.4%p), 40대(77.7%, 0.8%p), 60세이상(44.4%, 0.6%p) 등에서 상승
- 계절조정 고용률은 60.7%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여 전월 주춤했던 상승세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하였고, 성별로는 남자는 75.5%(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여자는 58.5%(전년동월대비 1.6%p 상승)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하며 전월(3.8%, -0.5%p)보다 하락폭 확대

- 청년층(-2.5%p), 30대(-0.4%p), 40대(-0.5%p), 50대(-0.8%p), 60세이상(-0.2%p) 등 모든 연령 층에서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3%로 전월대비 0.4%p 하락하며 전월(-0.1%p)보다 하락폭 확대
- 실업자(92.0만 명)는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년동월대비 21.8만 명 (-19.2%) 감소하며 지난해 11월(96.7만명)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하회

[그림 21]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증가세는 소폭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업은 여전히 큰 폭의 증가를 지속

■ 건설업 취업자 수는 6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축소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2.0→(2월)2.8→(3월)9.2→(4월)14.1→(5월)13.2→(6월)14.0→(7월)9.2

■ 지난 6월에 감소 전환되었던 제조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7월 들어 다시 증가 전환되며 0.6만 명 증가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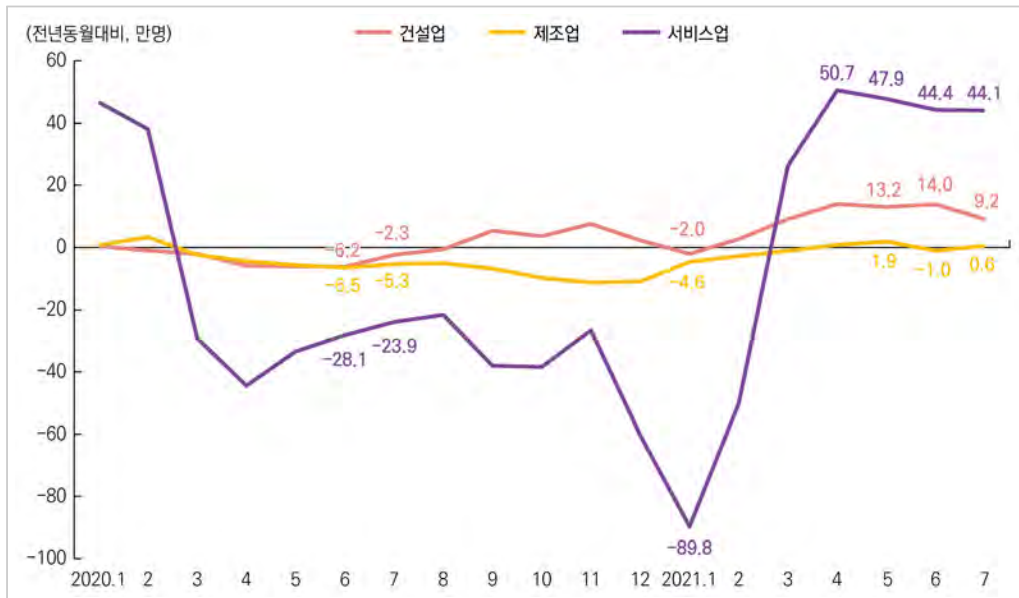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4.6→(2월)-2.7→(3월)-1.1→(4월)0.9→(5월)1.9→(6월)-1.0→(7월)0.6

■ 서비스업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4월의 정점(50.7만 명 증가) 이후 점차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89.8→(2월)-50.2→(3월)26.3→(4월)50.7→(5월)47.9→(6월)44.4→(7월)44.1
- 5월부터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둔화는 2020년 동월의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
-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021년 4월에 6.3만 명, 5월 14.5만 명, 6월 16.3만 명, 7월 20.2만 명 증가하며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

-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반면(21.6월 -2.0만 명 → 7월 -1.2만 명), 비대면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21.6월 46.4만 명 → 7월 45.3만 명)⁶⁾
- 대부분의 서비스업 세부 산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숙박음식점업(-1.2만 명)에서 감소 전환되었고, 도소매업(-18.6만 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2.8만 명), 협회·수리·기타개인 서비스(-5.0만 명) 등은 어려움이 지속

[그림 2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20년 7월과 '21년 7월의 증감을 합하여 '19년 7월 대비 증감을 도출할 수 있음

청년층과 60세 이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세가 소폭 축소되었음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핵심노동연령대(30~50대)는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8.4만 명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소폭 축소

- 청년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31.4→(2월)-14.2→(3월)14.8→(4월)17.9→(5월)13.8→(6월)20.9→(7월)18.4

6) 대면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수리·기타개인 서비스업을, 비대면서비스업은 그 외 업종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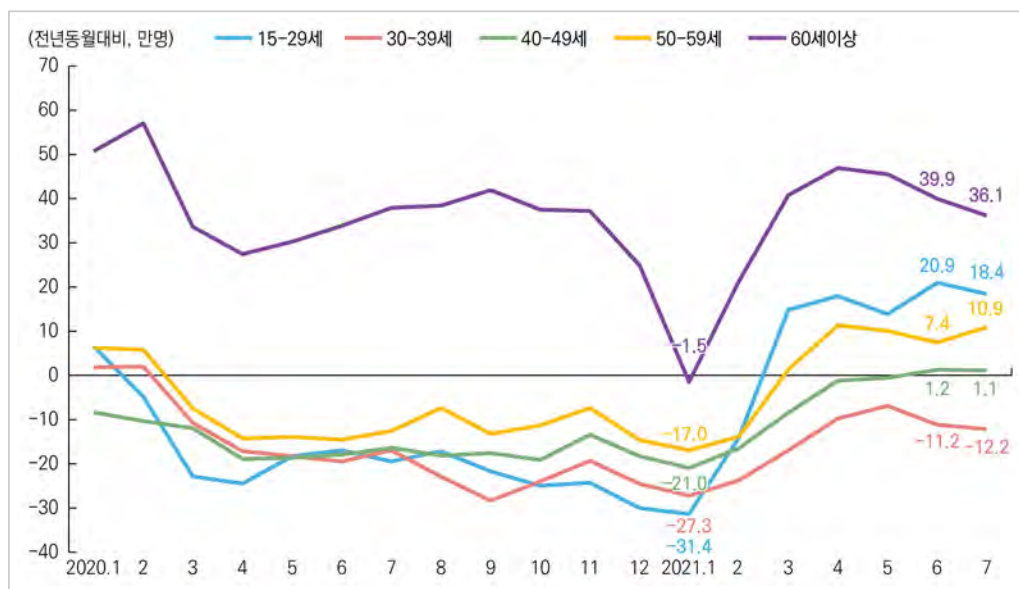
■ 핵심노동연령대(30~50대)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6월 감소 전환된 이후 2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

- 30~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65.3→(2월)-54.3→(3월)-24.2→(4월)0.3→(5월)2.5→(6월)-2.6→(7월)-0.2
- 특히, 30대 취업자 수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전년동월대비 감소(-12.2만 명)를 기록하였고 감소폭도 2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을 살필 필요

■ 60세 이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4월의 고점 이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7월에도 전년동월대비 36.1만 명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를 기록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1.5→(2월)21.2→(3월)40.8→(4월)46.9→(5월)45.5→(6월)39.9→(7월)36.1

[그림 23]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용직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의 증가세는 축소

■ 상용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세가 확대되며 36.1만 명 증가를 기록

-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3.6→(2월)8.2→(3월)20.8→(4월)31.1→(5월)35.5→(6월)32.1→(7월)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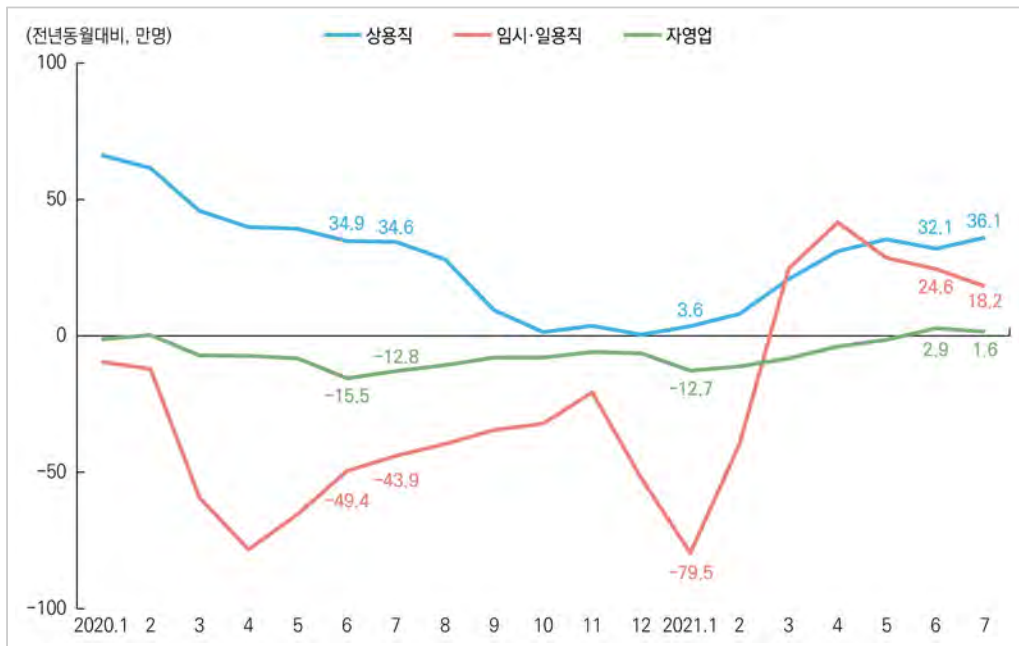
■ 임시일용직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4월의 고점 이후 증가세가 점차 축소

-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79.5→(2월)-39.7→(3월)24.7→(4월)41.7→(5월)28.7→(6월)24.6→(7월)18.2
-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둔화는 임시직('21.6월 36.0만 명 → 35.2만 명) 보다는 일용직('21.6월 -11.4만 명 → -17.0만 명)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
- 일용직의 감소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인지, 상용직 또는 임시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

■ 자영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6만 명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

- 자영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월)-12.7→(2월)-11.1→(3월)-8.1→(4월)-3.8→(5월)-1.4→(6월)2.9→(7월)1.6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7.1만 명)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세(8.7만 명)를 기록하여 자영업자 내에서 고용원 유무에 따른 차이가 존재

[그림 2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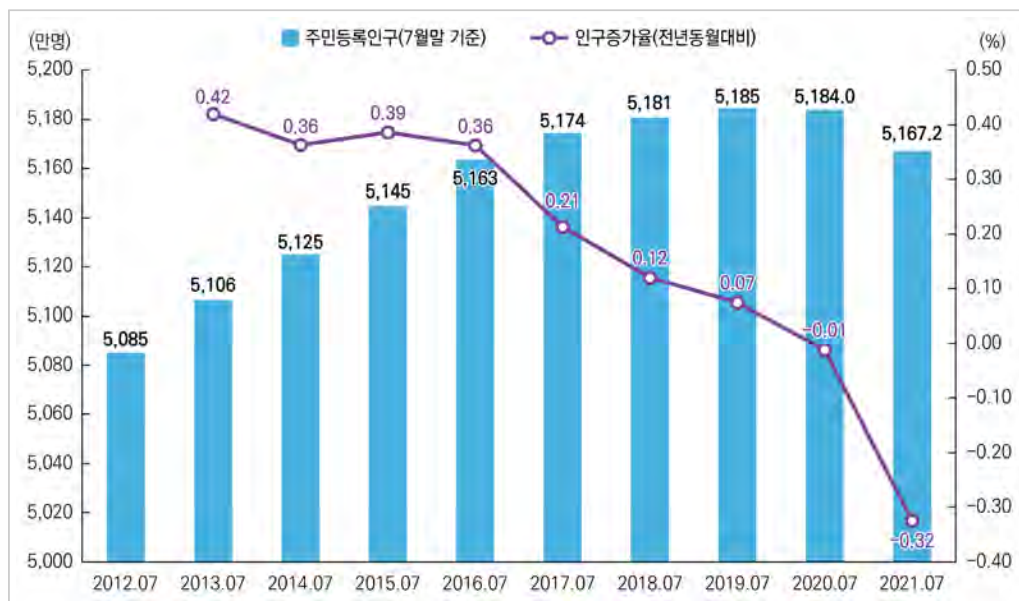
주: '20년 7월과 '21년 7월의 증감을 합하여 '19년 7월 대비 증감을 도출할 수 있음

5. 인구

2021년 7월 주민등록인구는 5,16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 8천명 (-0.32%) 감소

- 각 연도 7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3년 0.42%, 2015년 0.39%, 2020년 -0.01%, 2021년 -0.32%로 하락

[그림 25]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7~20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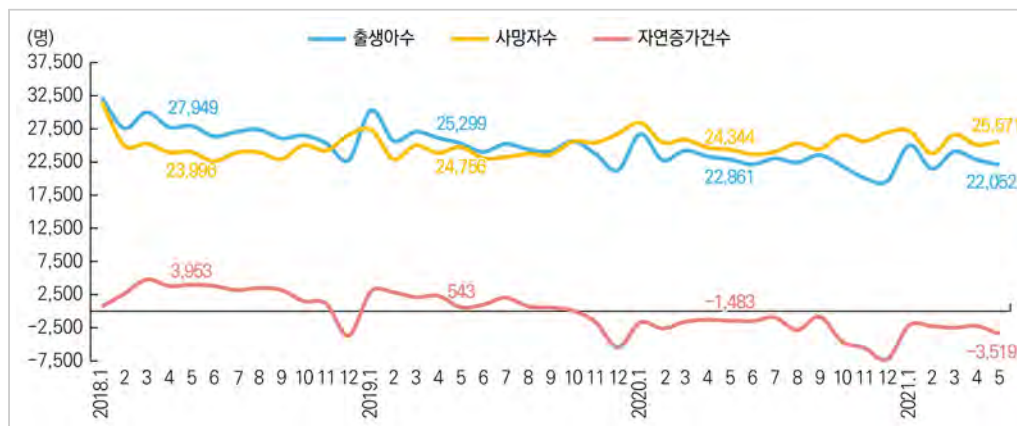
주: 각 연도 7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19개월째 지속

- 2021년 5월 출생아 수는 22,052명, 전년동월대비 809명(-3.5%) 감소
- 2021년 5월 사망자 수는 25,571명, 전년동월대비 1,226명(5.0%) 증가
-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3,518명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 11월 이후 19개월 째 인구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26]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8.1~2021.5)



자료: 통계청(2021),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1년 5월의 혼인건수와 인구 천명당 조혼인률은 전년동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

■ 2021년 5월 혼인건수는 16,153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991건(-11.0%) 감소, 인구 천명당 조혼인률은 3.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0.5건 감소

■ 코로나19 발생 이후 혼인을 연기하게 되면서 전년동월대비 혼인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조혼인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전년동월대비 혼인건수 감소규모는 2021년 1월 3,543건, 2021년 2월 4,131건, 2021년 3월 2,596건, 2021년 5월 1,991건

[그림 27]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8.01~2021.05)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2021),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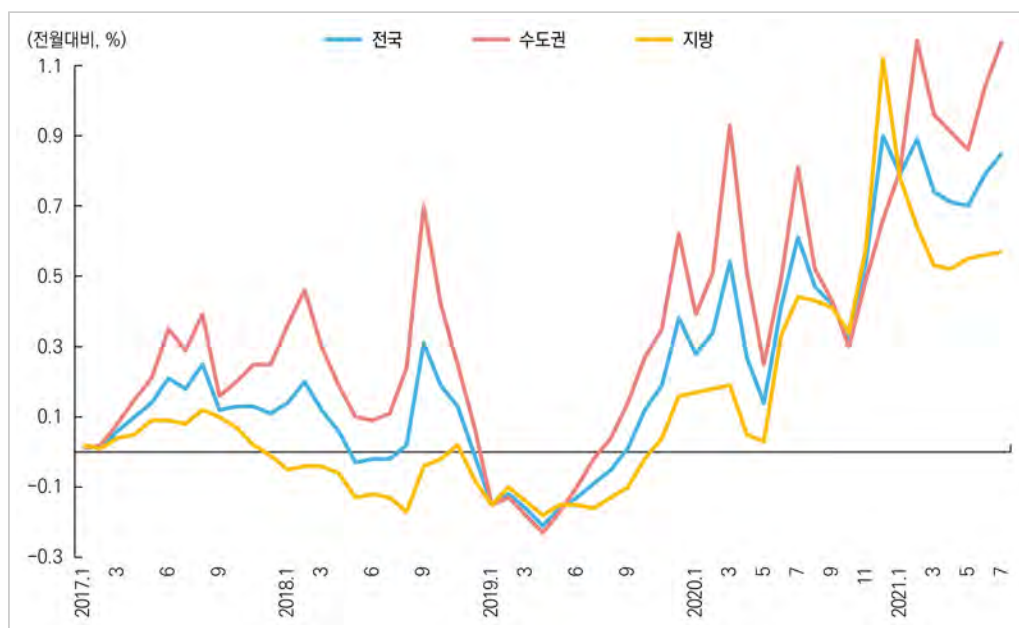
6. 부동산

2021년 7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및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85%, 수도권 1.17%, 지방은 0.57%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

- 수도권은 서울의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인천·경기지역 위주로 상승
- 지방은 부산 0.85%, 대전 0.82%, 충북 0.74%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임

[그림 28]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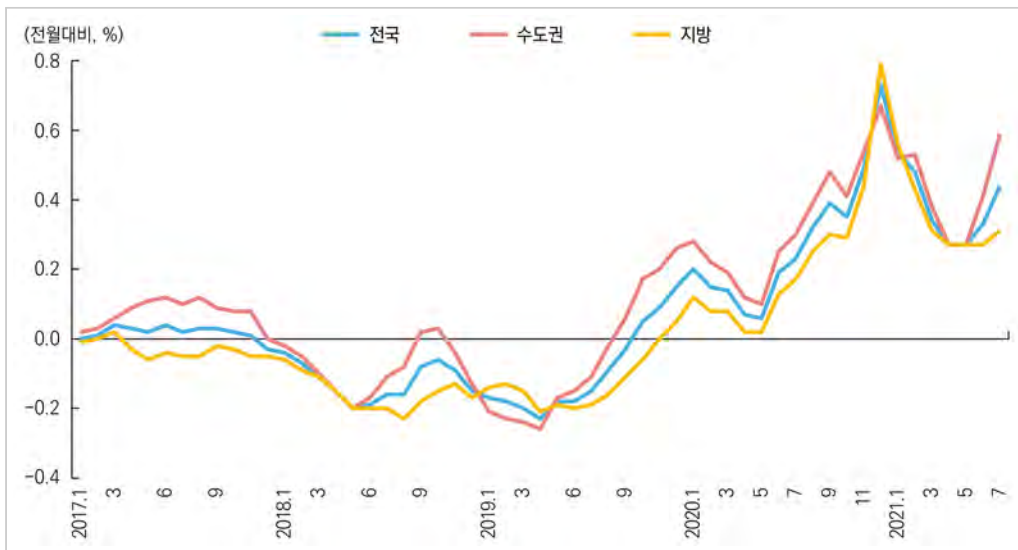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 전국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은 0.44%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

- 수도권의 교통접근성 및 학군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및 월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

[그림 29]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추이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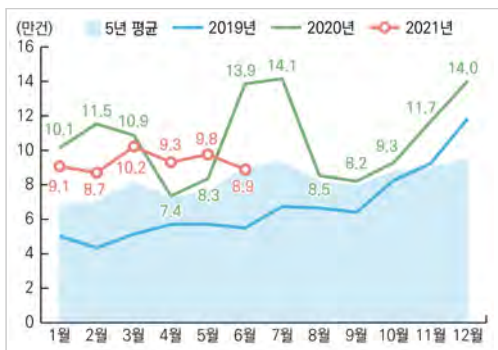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1년 6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대비 감소하였으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증가

■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월대비 8.8% 감소, 전년동월대비 35.8% 감소한 8만 8,922건

- 수도권(4.2만건)은 전월대비 11.3% 감소, 전년동월대비 44.4% 감소
- 지방(4.7만건)은 전월대비 6.4% 감소, 전년동월대비 25.6% 감소

[그림 30]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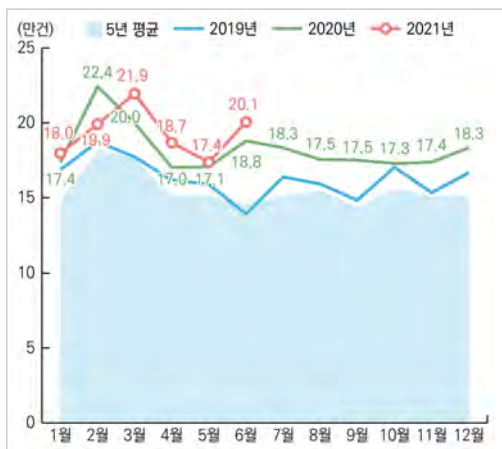
[그림 31] 연도별 6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 전월세 거래량은 20만 547건으로 전월대비 15.5% 증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3%로 전월대비 1.9%p 증가,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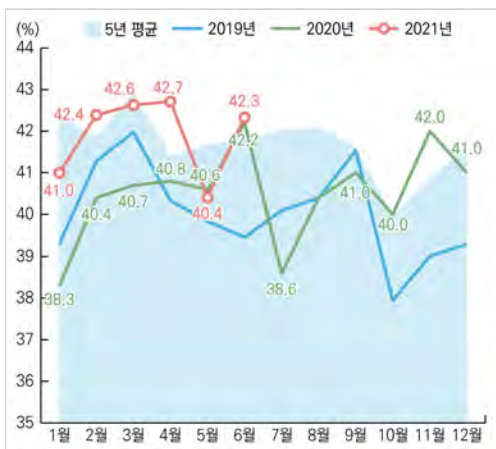
[그림 32]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주: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33] 월별 전국 월세 비중



III

해외경제 동향

최근 미국 경제는 경제활동 정상화와 대규모 재정부양책 효과 등으로 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며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

- 6월 중 산업생산은 제조업이 감소 전환되며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실질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는 전월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
- 7월 중 노동시장은 비농가취업자수가 전월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실업률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견실한 회복세를 보임

중국 경제는 내수 회복세 약화, 중국 본토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제회복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

- 6월 산업생산(8.3%), 소매판매(12.1%), 고정자산투자(12.6%) 등 주요 실물지표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
- 6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외 물가가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 6월 종합 PMI는 원자재 가격 급등,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업황이 악화되면서 전월보다 하락한 52.4를 기록

유로지역 경제는 실물지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리지표는 여전히 개선세를 지속

- 6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1.5%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
- 7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가격 오름세로 2.2% 상승
- 2021년 들어 유로지역의 심리지표는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나, 7월 들어 다소 조정되는 모습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7월 -4.4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
 - 서비스업 PMI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종합PMI는 전월보다 0.7p 상승한 60.2를 기록하였으나, 제조업 PMI는 6개월만에 하락 전환

일본 경제는 주요 실물지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

- 6월 광공업 생산과 소매판매액은 각각 전월대비 6.2%, 3.1% 증가
- 6월 소비자물가는 원유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부문(4.6%)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0.2% 상승
- 6월 비농업취업자수는 도소매업(49만명), 정보통신업(26만명), 서비스(13만명) 등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33만명 증가

III.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최근 미국 경제는 경제활동정상화와 대규모 재정부양책 효과 등으로 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며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

■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은 7월 들어 백신접종 속도가 둔화되고 변이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신규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

-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수(7일 이동평균, 만명): (6.4일)1.5→(6.18일)1.3→(6.25일)1.2→(7.2일)2.1→(7.16일)5.2→(7.31일)7.8→(8.6일)10.7
- 백신접종율은 8.6일 기준(미국 질병관리센터) 전체 인구대비 58.7%(1억9,487만 명)가 최소 1회 접종하였으며, 접종 완료는 50.1%(1억6,648만 명)로 전월대비 2.7%p 증가(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는 61.1% 접종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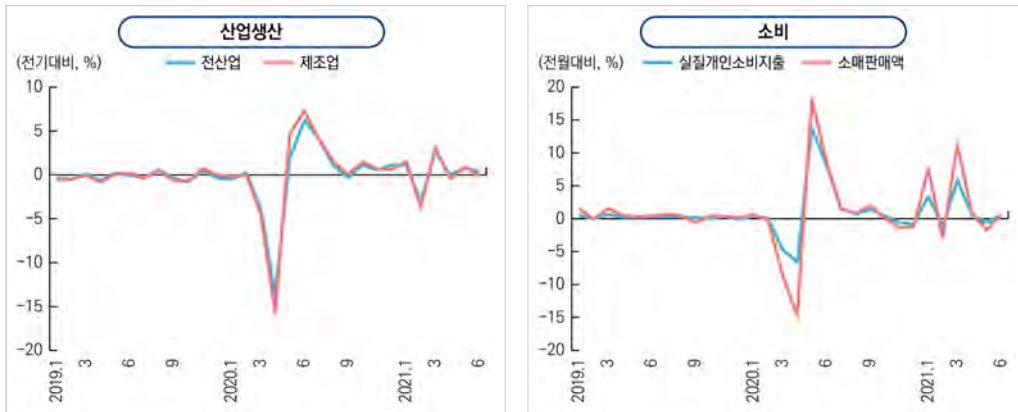
■ 6월 중 산업생산은 제조업이 감소 전환되며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5개월 연속 60을 상회하며 호조세를 나타냄

- 전산업생산(전월비, %): ('21. 4월)0.0→(5월)0.7→(6월)0.4
- 제조업생산(전월비, %): ('21. 4월)-0.4→(5월)0.9→(6월)-0.1
-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구매자지수(기준치=50)는 7월 중 59.5로 전월(60.6)에 비해 하락하며 최근의 5개월 연속 60을 상회하던 흐름에서 둔화되었으나, 비제조업구매자지수는 64.1로 전월(60.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 6월 중 실질개인소비지출과 소매판매는 전월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되었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

- 실질개인소비지출은 6월 중 전월대비 0.5% 증가하였고, 소매판매도 전월대비 0.6% 증가
- 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7월 중 129.1로 전월(128.9)에 이어 2개월 연속 120을 상회하며 견실한 흐름이 지속

[그림 1] 미국의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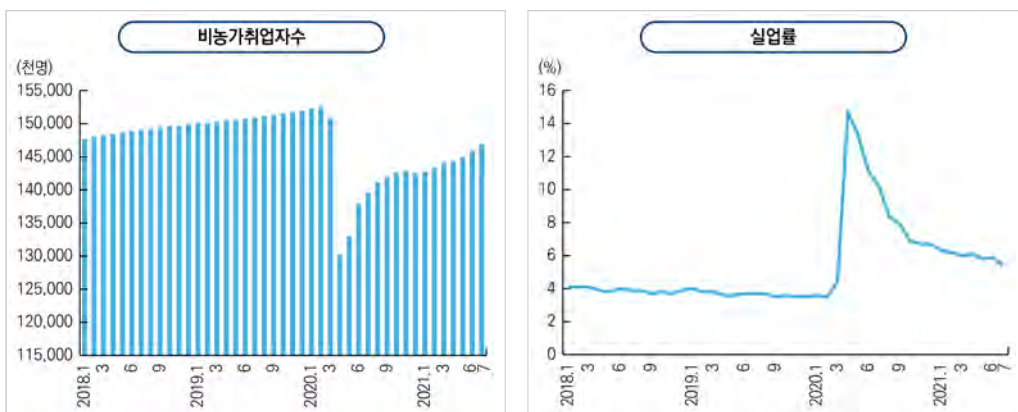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7월 중 노동시장은 비농가취업자수가 전월에 이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경제활동참여율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하고 실업률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건실한 회복세를 보임

- 7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94.3만 명 증가하여 전월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실업률은 5.4로 전월대비 0.5%p 하락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1.5월)61.4→(6월)93.8→(7월)94.3
- 경제활동참가율(%): ('21.5월)61.6→(6월)61.6→(7월)61.7
- 실업률(%): ('21.5월)5.8→(6월)5.9→(7월)5.4

[그림 2] 비농가취업자수 및 실업률의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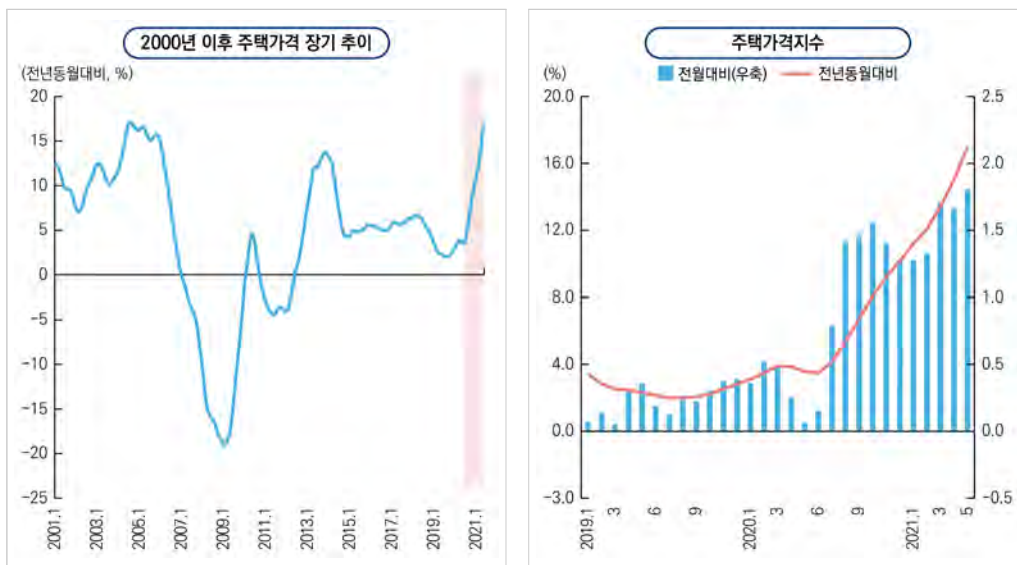
주: 월간 구인건수는 비농가기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주택시장은 6월 중 주택착공호수가 전월에 이어 증가한 가운데, 5월 중 주택가격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냄

- 6월 중 주택착공호수는 전월(2.1%)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며 전월대비 6.3% 증가
- 5월 중 주택가격(S&P/Case-Shiller지수기준)은 전월대비 1.8% 상승하며 오름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년동월대비는 17.0% 상승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그림 3] 미국의 주택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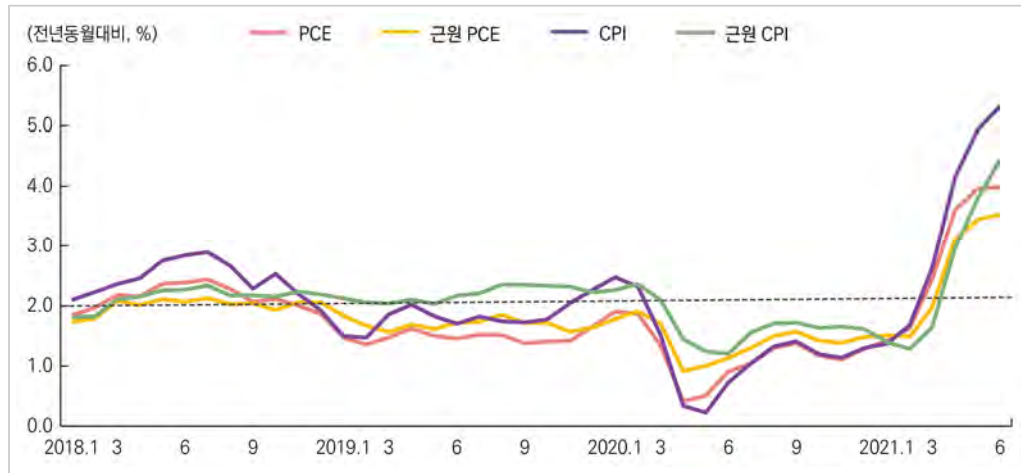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6월 중 PCE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 가계소비 증가,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 등으로 전월에 이어 상승세가 확대되고, 7월 중 소비자의 기대인플레이션도 4.7%로 전월(4.2%)보다 확대

- 6월 중 PCE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0% 상승하여 전월(4.0%)에 이어 높은 상승폭을 유지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로 가솔린(45.1%), 운송(21.5%), 의복(5.6%) 등을 중심으로 전월(4.9%)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
- 근원PCE물가상승률은 3.5%로 전월(3.4%)에 비해 소폭으로 확대되며 연준의 장기목표 수준(2.0%)을 3개월 연속 1%p 이상 상회하는 모습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1. 5월)4.6→(6월)4.2→(7월)4.7

[그림 4]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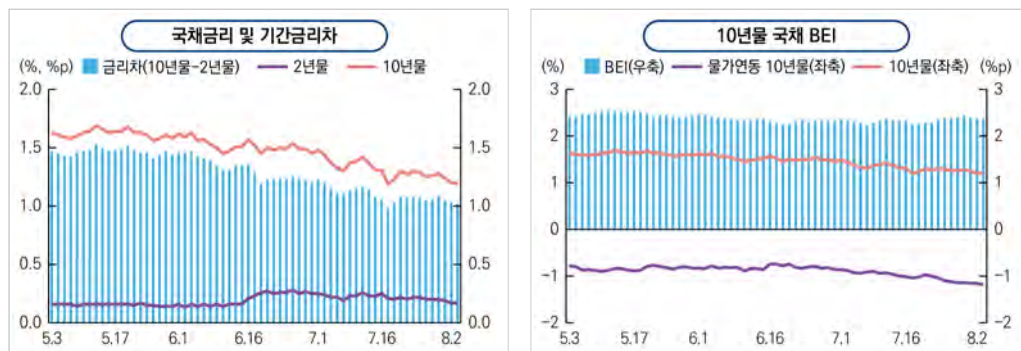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시장금리는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 우려 등으로 2년물 국채금리가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한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

- 2년물 금리는 7월 들어 중순까지 0.23% 수준에서 횡보하였으나 연준의 FOMC 회의 이후 0.20%까지 하락하며 전월(0.20%)보다 0.02%p 상승한 0.22%를 기록
- 장기금리(10년물 기준)는 6월 중순 이후 완만한 하락 추세가 유지되며 7월 중 월평균 1.32%(전월대비 0.20%p 하락)를 기록함에 따라 2년물과의 기간금리차는 1.10%p로 전월보다 0.22%p 축소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p):('21.5월)1.46→(6월)1.32→(7월)1.10
- 금융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BEI(break-even inflation rate)는 7월 중 2.33%로 전월(2.34%)에 비해 소폭 하락

[그림 5] 미국 기간금리차 및 10년물 국채 BEI의 일별 추이



주: BEI(break-even inflation rate) = 10년 일반국채금리 - 물가연동채권 10년물 금리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미연준은 7월 FOMC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재 수준(0.00~0.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은 백신접종의 진전과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경제활동과 고용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은 부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평가
- 연준은 지난해 12월 FOMC회의에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가 상당한 진전을 이룰 때까지 현재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FOMC회의에서는 ‘그 이후로 경제는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었고 FOMC는 다음 회의들에서 진전 상황을 계속 평가할 것이다’¹⁾라는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여 양적 완화 축소(tapering)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

[미국의 2021년 2/4분기 실질GDP(속보치)]

■ 미국의 2021년 2/4분기 실질GDP는 백신보급 확대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효과 등에 힘입어 개인소비와 비주택투자를 중심으로 6.5%(전기비 연율 기준) 성장

- 개인소비는 백신보급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으로 서비스소비(12.0%)와 상품소비(11.6%) 모두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11.8% 증가
- 민간투자는 주택투자(13.3%→9.8%)가 부진하고 비주택투자(8.0%)에서 설비(13.0%)와 지식재산생산물(10.7%)은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구조물(-7.0%)에서 감소 전환되며 전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
 - 재고투자의 실질GDP 성장률 기여도는 -1.1%p로 전분기(-2.6%p)에 이어 마이너스
- 대외거래는 수출이 6.0% 증가하고 수입은 7.8% 증가하며,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4%p로 전분기(-1.5%p)보다 음(-)의 폭이 축소
- 정부지출은 전분기 대규모 경기부양책 집행에 따른 영향으로 감소
 - 정부지출의 성장기여도는 전분기 -0.1%p에서 -0.3%p로 음(-)의 폭이 확대

[주요 지출부문별 실질GDP 성장률]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지출부문별 전분기 대비	실질GDP 성장률 ¹⁾	2.3	-3.4	-5.1	-31.2	33.8	4.5	6.3
	개인소비	2.2	-3.8	-6.9	-33.4	41.4	3.4	11.4
	민간투자	3.4	-5.5	-5.3	-48.8	82.1	24.7	-2.3
	(비주택투자)	4.3	-5.3	-8.1	-30.3	18.7	12.5	12.9
	(주택투자)	-0.9	6.8	20.4	-30.7	59.9	34.4	13.3
	수출	-0.1	-13.6	-16.3	-59.9	54.5	22.5	-2.9
	수입	1.2	-8.9	-13.1	-53.1	89.2	31.3	9.3
	정부지출	2.3	1.1	1.3	2.5	-4.8	-0.8	4.2

자료: BEA

1) 'Since then, the economy has made progress toward these goals, and the Committee will continue to assess progress in coming meetings.'

2. 중국

중국경제는 내수 회복세 약화, 중국 본토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제회복 속도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

■ 2021년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 실물지표의 회복세가 둔화되며 1분기(18.3%)보다 크게 하락한 7.9%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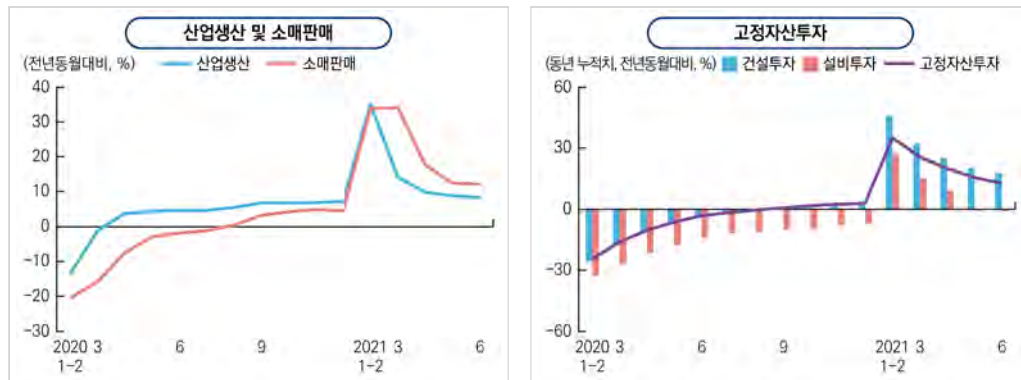
- 부문별로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19.5%), 숙박 및 식당(17.1%), 운송·창고·우편(12.7%) 등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3%를 기록하며 1분기(0.4%)보다 증가폭이 확대

■ 6월 산업생산은 제조업(8.7%)과 전기·가스·수도업(11.6%)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 6월 소매판매는 재화(11.2%)와 외식업(20.2%)에서 모두 늘어나며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

■ 6월 고정자산투자는 설비투자(-0.8%)에서 전월(-0.5%)보다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건설투자(17.6%)에서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대비 12.6% 증가

[그림 6] 중국 실물지표 추이



자료: CEIC

자료: CEIC

■ 6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1.7%) 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외 물가가 1.7%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1.1% 상승

- 6월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8.8% 상승

■ 6월 종합 PMI는 원자재 가격 급등, 난징(南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업황이 악화되면서 전월보다 하락한 52.4를 기록

- 6월 중국의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50.9를 기록하며 전월(51.5)보다 하락
- 6월 중국의 제조업PMI는 전월(50.9)보다 하락한 50.4를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업PMI 역시 전월(53.5)보다 소폭 하락한 53.3을 기록
- 종합 PMI: ('21년 5월) 54.2 → (6월) 52.9 → (7월) 52.4

[그림 7]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그림 8] 중국 PMI 추이



자료: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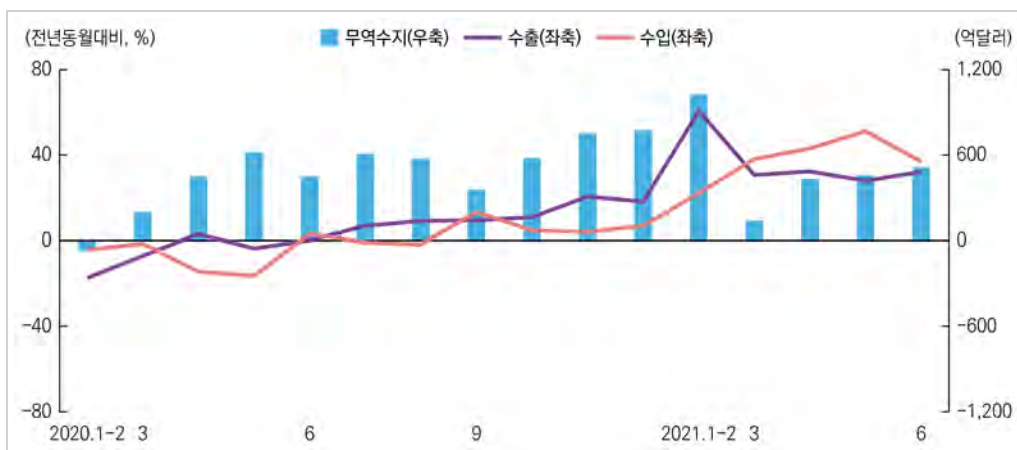
■ 6월 중국의 실업률은 5.0%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6월 중국의 누적 신규취업자수(도시지역)는 698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8% 증가

■ 6월 중국의 무역수지는 기계 및 전자제품, 의류, 운동화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흑자폭이 확대

- 6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32.2%, 36.8%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전년동월(447.9억 달러)보다 15.0% 증가한 515.3억 달러 흑자를 기록

[그림 9]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CEIC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소매판매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실물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심리지표도 개선세를 지속

■ 유로지역은 일부 국가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신규 확진자 수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

■ 5월 중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비내구재(-2.3%), 에너지(-1.9%), 자본재(-1.6%) 등이 감소하며 전월대비 1.0% 감소

- 산업생산(전월대비, %): ('21.3월)0.5→(4월)0.6→(5월)-1.0
- 국가별 산업생산(전월대비, %): 그리스(-4.7), 벨기에(-2.3), 이탈리아(-1.5), 스페인(-0.8), 독일(-0.6), 프랑스(-0.3)

■ 6월 중 소매판매는 비음식료품 및 차량연료 판매가 늘면서 전월대비 1.5% 증가하여 전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1.3월)4.0→(4월)-3.8→(5월)4.1→(6월)1.5
- 유가상승으로 인해 차량연료 판매가 전월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차량연료를 제외한 비식료품 판매도 3.4% 증가

[그림 10]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1]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 7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2.2% 상승

-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7월 큰 폭 하락(-8.4%)에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14.1% 상승

* 브렌트 유가(달러/배럴): ('20.7월)42.8→('21.6월)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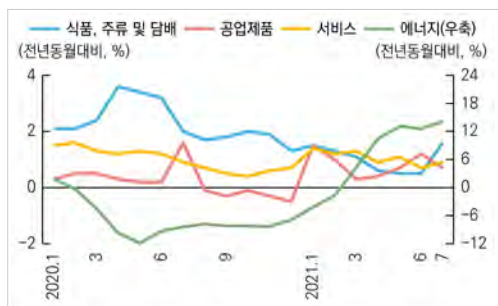
- 에너지가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전월 1.16%p에서 1.34%p로 상승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서비스물가의 상승폭 확대(0.7%→0.9%)에도 불구하고 공산품물가의 상승폭이 축소(1.2%→0.7%)되면서 전월(0.9%)보다 낮은 0.7%를 나타냄

[그림 12]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3] 유로지역 부문별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 유로지역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2020년 8월 중 정점(8.6%, 19.6%)을 기록한 후 개선세

- 7월 중 유로지역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각각 7.7%, 17.3%를 기록
- 국가별로는 프랑스(6월 7.5%→7월 7.3%), 이탈리아(6월 10.2%→7월 9.7%), 스페인(6월 15.4%→7월 15.1%) 등 주요국의 실업률이 개선되는 모습

■ 2021년 들어 유로지역의 소비자신뢰지수²⁾는 백신 접종률 상승과 신규 확진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7월 들어 -4.4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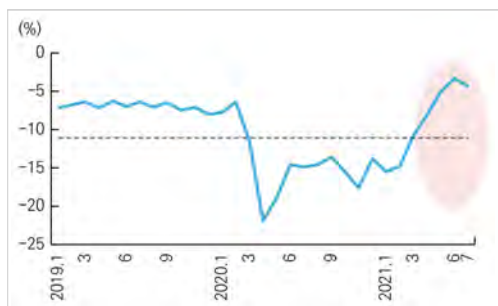
- 7월의 하락은 가계의 향후 경제상황과 구매 계획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낮아진 데 기인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준선(-11.1)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준

[그림 14]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5]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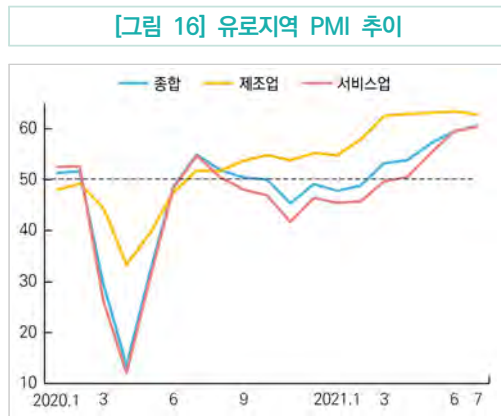
주: 점선은 장기평균치(-11.1)이며, 소비자신뢰지수가 0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EU 집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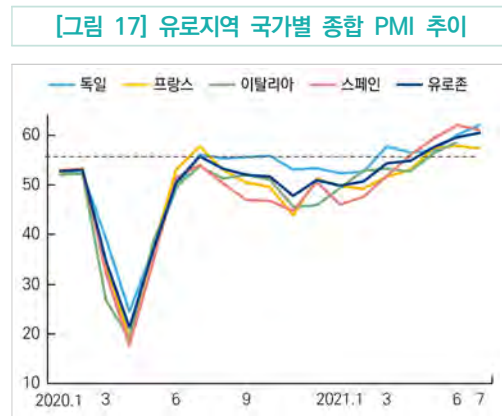
2)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으로 답변한 소비자의 비중 차이에 따라 산출됨.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등락폭이나 장기평균치와의 차이 등으로 판단

■ 7월 중 유로지역의 종합PMI는 제조업 PMI가 6개월만에 하락 전환하였으나, 서비스업 PMI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월보다 0.7p 상승한 60.2를 기록

-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하였던 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0.6p 하락한 62.8을 기록
- 서비스업 PMI는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7개월 연속 상승한 60.4를 기록
- 특히 독일의 종합PMI는 전월보다 1.4p 상승한 62.5를 기록하며 제조업(65.9), 서비스업(62.2)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



자료: Bloomberg, Markit



자료: Bloomberg, Markit

4. 일본

일본경제는 주요 실물지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

■ 6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공업을 제외한 수송기계공업(-7.2%), 요업·토석제품공업(-0.7%)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공업(22.6%)과 생산용기계공업(8.9%) 등에서 크게 늘며 전월대비 6.2% 증가

- 출하(4.3%)와 재고(2.3%) 모두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 재고율은 0.3% 하락

■ 6월 중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 기저효과와 함께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글로벌 무역량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48.6%, 32.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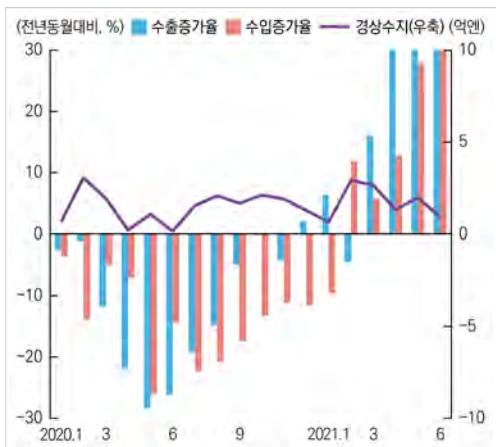
- 수출은 자동차(102.8%), 자동차의 부분품(114.8%), 철강(73.0%)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
- 수입은 철광석(208.1%), 원유(181.6%), 비철금속(97.6%) 등을 중심으로 증가
- 경상수지(억엔): ('21.4월)13,218→(5월)19,797→(6월)9,051

[그림 18] 일본 광공업 생산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

[그림 19] 일본 수출입 및 경상수지 추이



자료: 재무성

■ 6월 소매판매액은 기계기구(-14.7%)에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연료(25.9%), 자동차(11.9%), 식료품(0.9%) 등에서 늘어나며 전월대비 3.1% 증가

- 6월 가계실질소비지출(주거비 및 자동차구입비 제외)은 교통·통신(-10.8%), 교육(-9.5%) 등에서 줄어들었으나 피복 및 신발(21.9%), 교양오락(1.8%) 등에서 늘어나며 전월대비 1.7% 증가

■ 6월 소비자물가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로 교통·통신(-1.8%) 부문에서 하락하였으나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에너지 부문(4.6%)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0.2% 상승

- 근원물가(신선식품과 에너지 제외)는 3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0.2% 하락

[그림 20] 일본 가계실질소비지출과 소매판매 추이



자료: 총무성

[그림 21]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총무성

■ 6월 비농업취업자 수는 작년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33만명 증가(20.6월: -70만명)하였으며, 실업률은 2.9%로 전월(3.0%)대비 0.1%p 하락

- 교육(-23만명), 건설업(-8만명) 등에서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49만명), 정보통신업(26만명), 서비스(13만명) 등에서 증가
- 비농업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 만명): ('21.4월)25→(5월)18→(6월)33

■ 7월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전월(48.9)대비 하락한 47.7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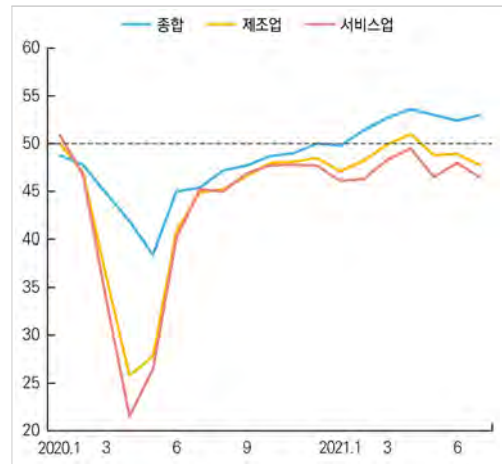
- 제조업PMI는 전월(52.4)대비 소폭 상승한 53.0을 기록하였으며, 서비스업PMI는 전월(48.0)대비 하락한 46.4를 기록

[그림 22] 일본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총무성, 경제산업성

[그림 23]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전세계 코로나19 현황]

■ 2021년 8월 전세계 코로나19는 델타변이 발생에 따른 재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

- 8월 16일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2억 794만명이고, 일일 확진자 수는 약 67만명
 - 신규 확진자 수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6월을 저점으로 남미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 대륙별 백만명당 일일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은 “북미 > 유럽 > 남미 >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아프리카” 지역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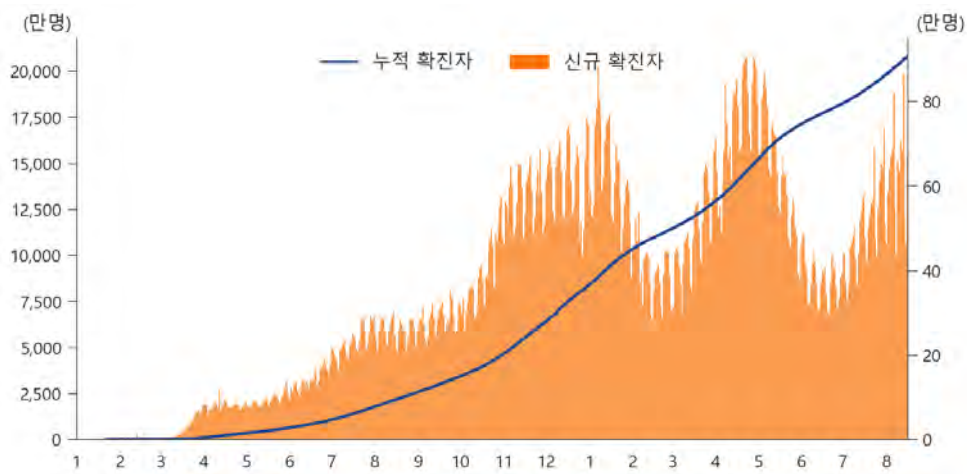
[전세계 코로나19 누적 및 일일 확진자 현황(8.16. 현재)]

(단위: 명)

구분	전세계	유럽	북미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확진 (일일)	207,937,090 669,730	53,770,569 124,024	44,217,904 250,806	66,261,050 241,057	36,288,102 23,173	7,296,720 29,340	101,457 1,305
백만명당 확진 (일일)	26,676 86	71,820 166	74,683 424	14,281 52	84,242 54	5,443 22	2,377 31
사망 (일일)	4,371,647 9,464	1,154,727 1,291	944,482 1,431	973,904 5,240	1,112,582 698	184,357 777	1,580 27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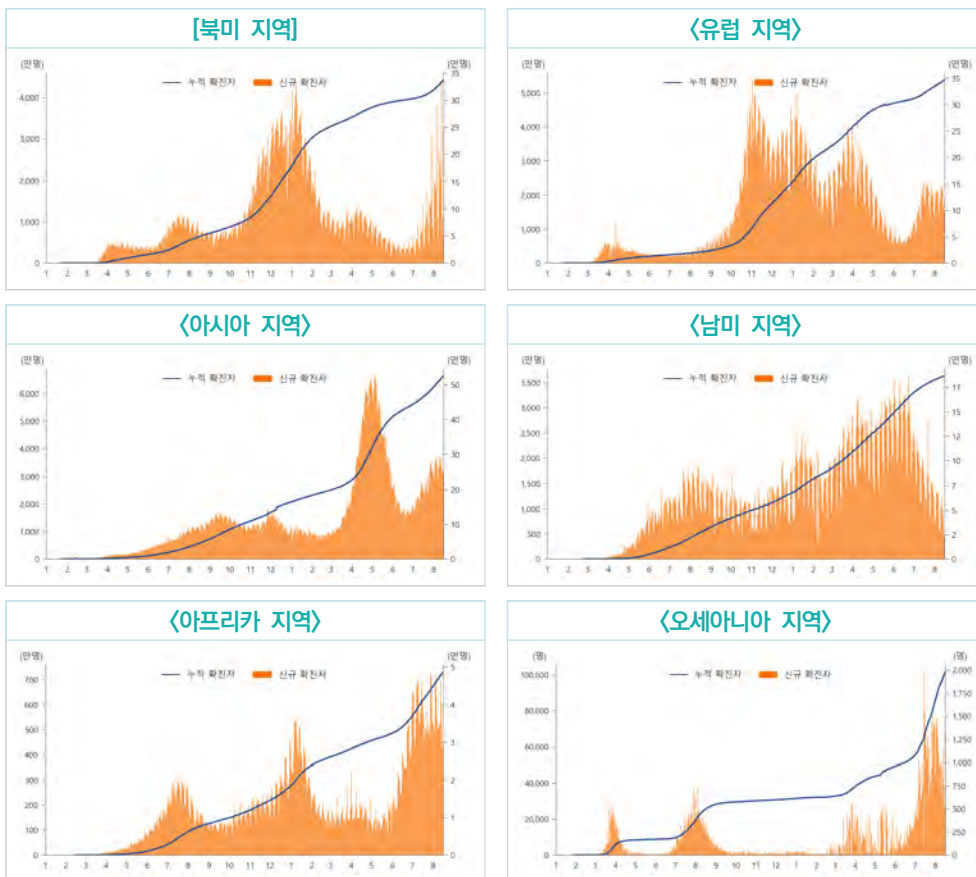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8.16. 현재)]



자료: Our World in Data, 존스홉킨스 대학교

■ 대륙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면, 남미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6월을 기점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북미·유럽)** 델타 변이 확산세가 확산해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민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다른 나라의 백신 확보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아시아)** 일본의 확진자 수가 13일 기준 20,400명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가속되고 있음
- **(남미)**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반전되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인구 백만명당 누적확진자 수는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코로나 감염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 **(아프리카)** 6월 이후 급증한 신규 확진자 수가 7월에 이어 8월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오세아니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 유행이 인접한 다른 주들에 까지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음



자료: WHO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현황(8.16. 기준)]

순위	국가	누적 확진자 (명)	신규 확진자 (명)	100만명당 누적 확진자 (명)	누적 사망자 (명)	사망률 (%)
1	미국	36,888,952	210,199	111,446	622,321	1.7
2	인도	32,250,679	25,166	23,370	432,079	1.3
3	브라질	20,378,570	14,471	95,872	569,492	2.8
4	프랑스	6,556,496	13,397	97,041	112,992	1.7
5	러시아	6,531,585	20,154	44,757	168,384	2.6
6	영국	6,325,515	28,358	93,179	131,296	2.1
7	터키	6,096,786	18,163	72,289	53,324	0.9
8	아르헨티나	5,088,271	3,636	112,583	109,105	2.1
9	콜롬비아	4,870,922	3,161	95,728	123,580	2.5
10	스페인	4,719,266	25,726	100,937	82,595	1.8
11	이란	4,467,015	41,194	53,183	98,483	2.2
12	이탈리아	4,444,338	3,669	73,507	128,456	2.9
13	인도네시아	3,871,738	17,384	14,155	118,833	3.1
14	독일	3,831,827	3,549	45,735	91,905	2.4
15	멕시코	3,108,438	16,467	24,109	248,652	8.0
16	폴란드	2,885,461	128	76,241	75,299	2.6
17	남아공	2,613,569	7,983	44,067	77,440	3.0
18	우크라이나	2,356,345	1,028	53,879	56,190	2.4
19	페루	2,133,812	0	64,716	197,393	9.3
20	네덜란드	1,937,077	2,318	113,049	18,227	0.9
21	이라크	1,784,594	8,830	44,368	19,740	1.1
22	필리핀	1,755,846	14,230	16,023	30,366	1.7
23	체코	1,676,297	75	156,532	30,375	1.8
24	칠레	1,629,932	740	85,264	36,420	2.2
25	캐나다	1,463,616	4,546	38,779	26,665	1.8
26	방글라데시	1,425,861	6,959	8,658	24,349	1.7
27	말레이시아	1,424,639	19,740	44,017	12,784	0.9
28	일본	1,163,665	14,922	9,201	15,450	1.3
29	벨기에	1,154,879	5,010	99,648	25,299	2.2
30	스웨덴	1,110,147	0	109,924	14,658	1.3
31	파키스탄	1,105,300	3,221	5,004	24,573	2.2
32	루마니아	1,087,509	286	56,530	34,353	3.2
33	포르투갈	1,004,470	1,135	98,509	17,573	1.7
34	이스라엘	948,058	8,698	109,532	6,687	0.7
35	타이	928,314	21,157	13,300	7,734	0.8
36	헝가리	810,504	188	83,900	30,041	3.7
37	요르단	784,631	1,183	76,901	10,222	1.3
38	카자흐스탄	767,163	6,922	40,857	11,725	1.5
39	모로코	763,353	3,897	20,681	11,119	1.5
40	스위스	740,954	5,579	85,614	10,928	1.5
83	대한민국	226,854	1,373	4,425	2,173	1.0

주: 국가별 순위는 누적 확진자 수 기준

[주요 경제정책]

■ 정부는 7.22(목) 제13차 한국판 뉴딜 장관회의에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3)

- (기존 제도 현황) 사전적 기업 구조조정제도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과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는 사업전환으로 구분
 - (사업재편) 산업부가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기업에 대해 상법상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자금 지원 등의 특례를 제공
 - ※ 기존 산업재편지원제도는 부실기업 위주의 구조조정제도이거나 일부 산업(금융), 벤처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에 제한적. 이에 일본의 「산업활력법」(1999년 제정)을 모델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2016년에 제정되었으며 한시적 운영이 2019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연장됨
 - (사업전환) 중기부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업무 전환 및 업종 추가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에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컨설팅, 세제·자금 지원 등의 특례를 제공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 비교]

	사업재편(산업부)	사업전환(중기부)
관련법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2016년 제정)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2006년 제정)
지원대상 (신용위험평가)	대·중견·중소기업 (A, B등급)	중소기업(재무상태 정상·부실) (A, B, C, D 등급)
승인요건	구조개편, 사업혁신 (대상: 과잉공급,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 지역)	업무전환(100% 사업전환) 및 업종추가(매출액 기준 30%)
인센티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통한 대출 지원(대·중견기업 제외)	
	자산매각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R&D 자금 지원	컨설팅 등 지원사업 연계·우대 지원
	기업분할·합병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상법상 주요 절차 간소화	주식교환,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에 관한 상법상 절차 간소화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를 재구성

- (기존 제도의 문제점) 제도·부처별 운용에 따른 유기적 연계와 수요·인센티브의 부족, 승인요건·대상의 제한, 시장기능의 비활성화, 체계적 관리체계의 미흡이 지적됨
 - 산업부와 중기부에 의해 제도가 별도로 운용되면서 기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실질적 인센티브 활용에 있어 제한적
 - 기존의 선제적 사업재편 대상은 재무상태가 양호하나 과잉 공급,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 지역의 위기 극복 등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으로 한정
 - ※ 기활법 대상기업은 2021년 7월 기준 217건에 해당(대기업 9건, 중견기업 50건, 중소기업 158건)
 - ※ 중전법에 의해 직접대출, 컨설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2016~2020년 동안 총 728건에 해당
 -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창업 수준의 R&D 및 설비투자 등이 요구되나 금융요건 등으로 정책자금 수급에 제한

※ 기존 사업의 침체 및 신사업의 매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재무상황 및 신용등급에 근거한 대출 심사로 자금확보에 어려움

- 성장형 펀드나 사후 구조조정 등에 비해 선제적 구조 개편의 금융지원과 M&A 활성화 기반이 미흡
- 부처별 제도 운용으로 수요의 사전적 통합 관리나 승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미흡
- (개선방안)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시장 친화적 여건 마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계획
 - (전략적 수요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구조개편 필요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기관들의 파트너십 구성을 통해 선제적인 수요 발굴 및 통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
 - (제도의 실효성 강화) 사업구조재편 제도에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확대하며 재정 및 세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
 - (시장 친화적 사업구조개편 여건 마련)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용자·펀드의 신규 조성 및 기존 제도의 범위 확대, M&A 지원센터의 추가 지정, 과세이연 특례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의 축소(3년 → 1년) 등 세제지원을 고려 중
 - (인프라 확충) 실물 및 금융을 연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조사·DB 구축·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
-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과의 연관성) 최근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의 부각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전환은 기술산업의 발달을 가져오지만 기존 산업의 구조적 실업과 향후 탄소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전망
 - 이에 정부는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을 탄소중립 등 정책방향에 따른 기업의 비자발적 개편 수요로 확대하면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8.5)

- 2021년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는 11개 부처 기술작업반의 시나리오 작업에 기초하여 세 가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제시
 - 시나리오는 미래상에 대한 예측치로 법적구속력은 없으며,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 갱신하는 것으로 설정함
-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제3안만 2050년 탄소중립이며, 1안과 2안은 2018년 대비 93.3~97.3% 감축
 - 1안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2018년 배출량 686.3백만CO₂eq 대비 93.3% 감축
 - 2안은 석탄발전은 전량 폐지하고 가스화력발전을 일부 유지하여 2018년 대비 97.3% 감축
 - 3안은 모든 화력발전을 폐지하여 발전부문 배출량을 0으로 하고, 부문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산업부문은 80.0%, 수송부문은 97.2%, 건물부문은 89.2% 으로 감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단위 : 백만톤 CO2eq, %)

구분	순배출량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CCUS	수소	탈루
2018 배출량	686.3	268.6	260.5	98.1	52.1	24.7	17.1	-41.3	-	-	5.6
2050 1안	25.4 (-93.3)	46.2	53.1	11.2	7.1	17.1	4.4	-24.1	-95	13.6	1.2
2050 2안	18.7 (-97.3)	31.2	53.1	11.2	7.1	15.4	4.4	-24.1	-85	13.6	1.2
2050 3안	0 (-100.0)	0 (-100.0)	53.1 (-80.0)	2.8 (-97.2)	6.2 (-89.2)	15.4 (-37.7)	4.4 (-37.8)	-24.7 (-37.9)	-57.9	0	0.7 (-37.1)

자료 : 탄소중립위원회, 2021.8.5.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안의 부문별 감축목표]



자료 : 탄소중립위원회, 2021.8.5.

-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환부문) 현재 건설 중인 신규석탄화력 7기와 LNG 가스화력의 운영방안에 따라 1~3안으로 구분되며, 3안 선택시 화력발전 폐지의 근거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 필요
 - (산업부문) 철강,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 및 연료전환과,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80.0%를 감축
 - (수송부문)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76%(1안)~97%(안)로 확대
 - (건물부문) 난방용에너지 연료대체와 개인간 잉여전력 거래제 등을 통해 86.4%~88.1% 감축
 - (흡수원) 산림 고령화에 따른 탄소 흡수량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30억 그루 나무를 새로 심고, 장수명 목재를 탄소 저장기간이 긴 건축용으로 활용
 - (CCUS) 탄소 포집, 이용, 저장기술은 현재까지 상용화되지 않았으나, 기술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
- 정부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부처간 추가 논의, 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 예정
 - 탄소중립 시민회의는 전국 15세 이상 500명을 선발하여 학습 및 숙의 과정을 거쳐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9월 중 예정

3) 기획재정부,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7.22.

PART

2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현안

- I.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 주가 및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86
- II. 미국의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96
- III. 2022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및 주요 쟁점 106
- IV.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12

1.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 주가 및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박승호 경제분석관(6788-4671)

1. 최근 주식시장 동향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장적 통화정책 등으로 국내 주가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지속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하락세

■ 2020년 3월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효과 등으로 주가가 강세

- KOSPI지수는 2020년 3월말 1,755에서 2021년 7월말 3,202로 기간 중 82.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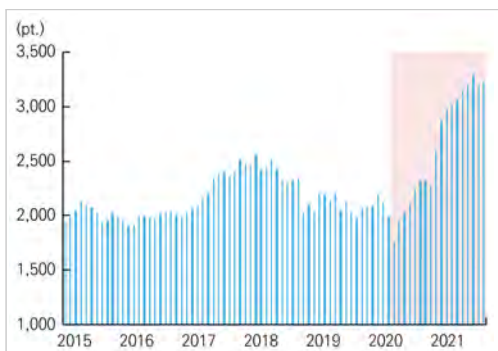
■ 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20년 1월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

- 2020년 1월 KOSPI 시가총액 중 외국인 보유비중은 39.0%였으나 2021년 6월 34.7%로 4.3%p 하락
- 한편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KOSPI 상장주식 보유액은 2020년 1월 554조원에서 2021년 6월 800조원으로 245.3조원 증가

■ 외국인의 KOSPI 주식 보유 비중 하락은 주로 외국인 순매도에 기인

-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2020년 중 24.5조원, 2021년 1~7월 중 22.6조원을 순매도

[그림 1] KOSPI 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 (2021.7월말 기준)

[그림 2] KOSPI 외국인 보유 금액·비중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 (2021.7월말 기준)

※ 본 보고서는 외국인 주식투자 행태 관련 연구보고서와 한국거래소 등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액(KOSPI+KOSDAQ 주식) 중 미국 투자자의 비중은 40%를 상회

■ 2021년 6월말 기준 미국 투자자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342조원으로 전체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액 842조원 중 40.6% 수준

- 2021년 6월 기준 전체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 중 미국 투자자의 비중은 2019년말 42.4%, 2020년말 41.5% 대비 각각 1.8%p, 0.9%p 하락
- 반면 미국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주가상승 등으로 2021년 6월말 기준 전년말 대비 7.8% 증가

■ 2021년 6월말 기준 국내 주식보유 2위 국가는 영국, 3위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각각 71조원, 59조원을 국내주식에 투자

-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이 각각 47조원, 19조원, 18조원을 투자 중

[표 1] 외국인투자자 국가별 국내 상장주식 보유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 6월말	
	보유금액	비 중	보유금액	비 중	보유금액	비 중
미국	252	42.4	317	41.5	342	40.6
영국	48	8.1	61	8.0	71	8.5
룩셈부르크	38	6.5	52	6.8	59	7.0
싱가포르	34	5.7	41	5.4	47	5.6
아일랜드	22	3.8	33	4.3	38	4.5
네덜란드	18	3.0	25	3.3	26	3.1
캐나다	17	2.9	22	2.9	24	2.9
노르웨이	15	2.5	20	2.7	22	2.6
중국	13	2.1	18	2.3	19	2.3
호주	14	2.4	17	2.3	19	2.2
일본	14	2.4	17	2.2	18	2.1
기타	107	18.1	141	18.4	157	18.6
합계	593	100	764	100	842	100

자료: 금융감독원

2.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 주요 특징

가. 대형주 집중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시가총액 상위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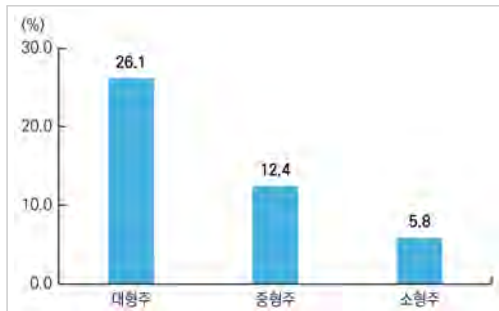
■ 2021년 7월말 기준 KOSPI 대형주¹⁾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은 26.1%로 중형주 보유비중 12.4%의 2배를 상회

- 소형주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은 5.8%

■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38개 기업 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은 33.9%

- 1조~10조원 미만 166개 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은 16.8%, 1조원 미만 589개 기업에 대한 보유비중은 6.6%

[그림 3] 규모별 외국인 보유비중



주: 외국인 보유비중은 평균치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 (2021.7월말 기준)

[표 2] 시가총액 구간별 외국인 보유비중

구분	외국인 평균 보유 비중(%)	기업 수 (개)	평균 시가총액 (조원)
10조원 이상	33.9	38	38.3
1조~10조원	16.8	166	3.0
1조원 미만	6.6	589	0.3
전체	10.0	793	2.7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 (2021.7월말 기준)

2021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 시가총액 1~3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의 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는 50% 내외의 지분을 보유

■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은 53.2%

- 시가총액 2위, 3위 기업인 SK하이닉스, 네이버의 외국인 보유비중은 각각 48.4%, 56.6%

■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가총액 1~20위 기업에 대한 보유 비중은 평균 38.6%

1) 대형주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기업, 중형주는 101~300위, 나머지는 소형주로 구분

- KB금융지주, 신한지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보유비중은 각각 67.2%, 60.2%로 60%를 상회하며 POSCO에 대해서도 54.4% 지분을 보유 중
-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차, 삼성물산, SK 등의 시가총액 상위종목에 대한 보유비중은 10~20% 수준

[표 3] 국내 주요 기업 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

(단위: 조원, %)

시가총액 순위	종목명	업종	시가총액 (조원)	외국인보유비중 (%)
1	삼성전자	전기,전자	473.40	53.2
2	SK하이닉스	전기,전자	84.45	48.4
3	NAVER	서비스업	71.21	56.6
4	카카오	서비스업	64.89	31.9
5	LG화학	화학	60.99	47.1
6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약품	60.41	10.3
7	삼성SDI	전기,전자	51.37	43.5
8	현대차	운수장비	47.01	28.8
9	셀트리온	의약품	36.34	20.3
10	기아	운수장비	34.33	33.2
11	POSCO	철강및금속	31.39	54.4
12	삼성물산	유통업	26.82	15
13	현대모비스	운수장비	25.69	35.6
14	LG전자	전기,전자	25.61	31.8
15	SK이노베이션	화학	23.67	22.8
16	LG생활건강	화학	22.69	45.6
17	SK텔레콤	통신업	21.76	46.5
18	KB금융	금융업	21.16	67.2
19	신한지주	금융업	19.94	60.1
20	SK	금융업	19.10	20.1

주: 2021년 7월말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나. 외국인 매매회전율²⁾ 상승

우리나라 전체 주식거래에서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투자자의 매매회전율이 상승

■ 2017~2019년 연평균 11.9% 수준이던 외국인 거래량 비중은 2020년 8.9%로 2.0%p 하락

- 한편 외국인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도 2017~2019년 연평균 29.0%에서 2020년 17.1%로 11.9%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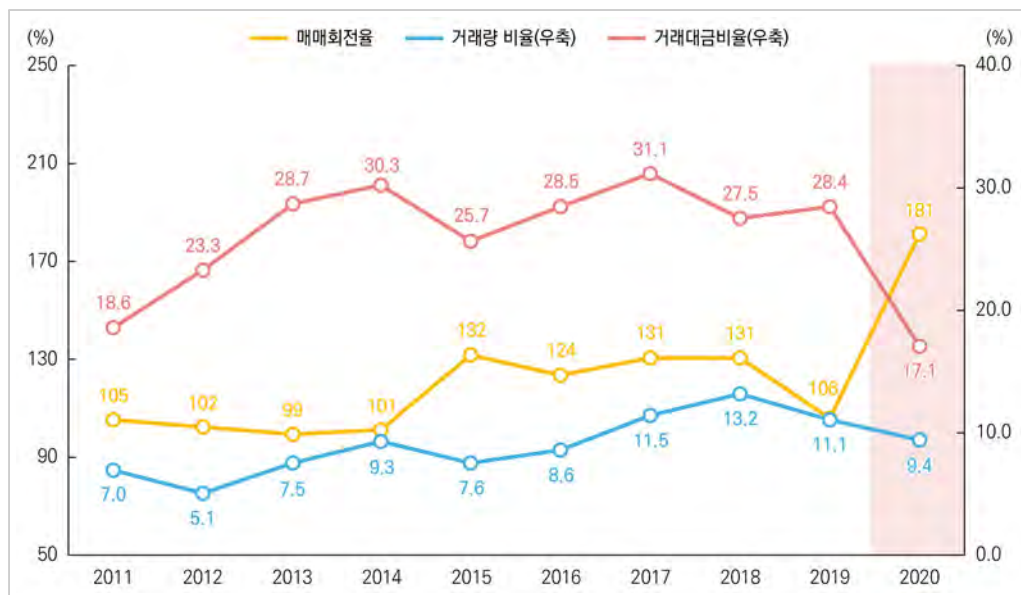
2) 매매회전율은 투자자가 얼마나 매매거래를 자주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간 매매회전율 100%는 투자자가 연평균 1회 자산을 사고팔았음을 의미

■ 외국인 매매회전율은 2015~2018년 연평균 129% 수준이었으나 2019년 106%로 하락한 이후 2020년 181%로 201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이는 2015~2018년 외국인이 보유주식을 연 1.3회 정도 매매하였으나 2020년 1.8회 보유주식을 매매하고 있음을 의미

■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보유기간이 단기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과 관련된 금융불안 우려에 기인할 가능성

[그림 4] 외국인투자자의 주식거래량, 거래대금, 매매회전을 추이



주: 1) 매매회전율=[(매도주식수+매수주식수)/2] ÷ 연평균 보유주식

2) 거래량(대금) 비율= [외국인 매수거래량(대금)+매도거래량(대금)] ÷ [전체거래량(대금)*2]

자료: 금융감독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

다. 통신업 및 수출주력 업종에 대한 높은 투자 비중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유비중이 높은 업종은 통신업

■ 2021년 7월말 기준 외국인의 주식 보유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통신업으로 KOSPI 상장기업 주식의 32.0% 보유

- 외국인 투자자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보유비중은 각각 46.5%, 44.2%, 33.2%

■ 서비스업 중 보험, 증권 등도 외국인 보유지분율이 높은 업종

- 보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평균 주식보유 비중은 23.3%이며 증권업은 12.7%로 전체 평균 10.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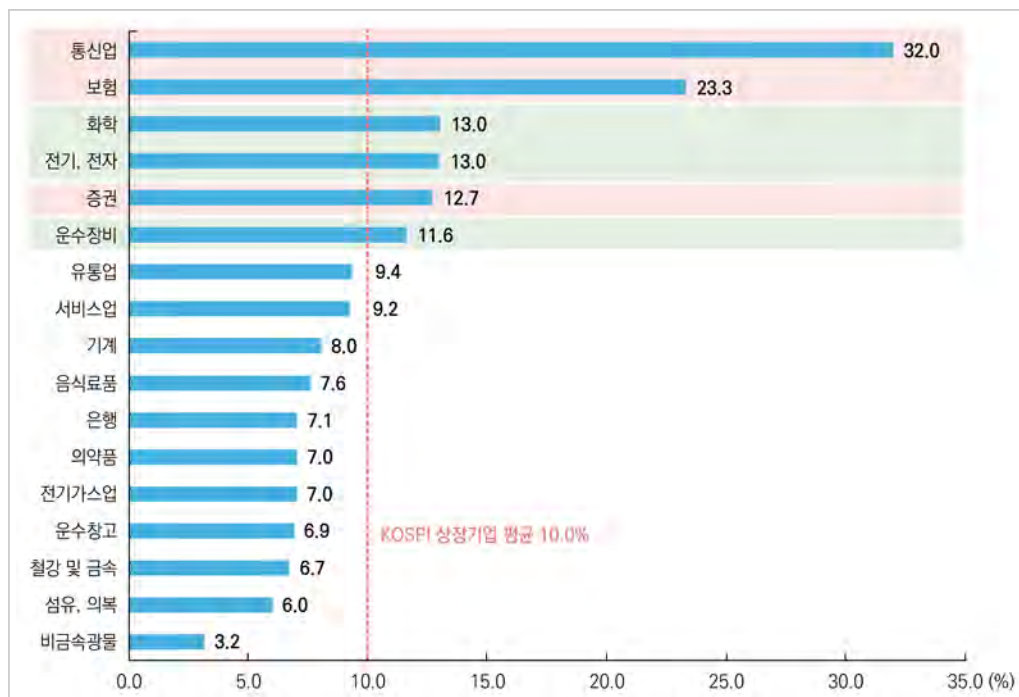
제조업의 경우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 수출주력 업종에 대한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높은 상황

- 우리나라 대표 수출 산업인 화학, 전기·전자, 운송장비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보유지분은 각각 13.0%, 13.0%, 11.6%로 평균 보유율(10.0%) 대비 높은 상황

■ 한편 은행, 철강및금속,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관련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보유 비중은 낮은 상황

- 은행에 대한 외국인의 평균 주식보유 비중은 7.1%이며, 철강및금속,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보유율은 각각 6.7%, 6.0%, 3.2% 수준

[그림 5]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주식 업종별 보유비중



주: 1) 업종분류는 한국거래소 기준

2) 2021년 7월말 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산출

3. 외국인투자자 주식시장 간의 연계성 분석

가. 상관관계 분석

주가수익률과 외국인순매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나 최근 들어 양(+)의 상관관계가 약화

- 주가수익률과 외국인순매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외국인순매수가 증가(감소) 시 주가수익률의 상승(하락)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을 의미
- 주가수익률과 외국인순매수 간에 모든 기간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최근 들어 상관계수가 낮아 하락
 - 이는 최근 들어 외국인순매수와 주가수익률 간에 연계성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냄

외국인순매수의 절대값³⁾과 KOSPI지수 변동성간 상관관계는 모든 기간에서 양(+)으로 나타나며 최근 상관계수가 낮아 상승

- 이는 외국인순매수의 절대값이 증가할 경우 KOSPI변동성도 확대됨을 의미
- 외국인순매수와 KOSPI 변동성간 상관계수가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냄
 - 또한 이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회전을 상승 등과도 관련될 가능성

[표 4] 외국인순매수와 주가수익률 및 주가변동성간 상관계수⁴⁾

	외국인순매수 vs. KOSPI 수익률	외국인순매수 절대값 vs. KOSPI 변동성
2011.1월~2021.7월	0.550	0.438
2015.1월~2021.7월	0.463	0.635
2018.1월~2021.7월	0.429	0.706

3) KOSPI 변동성은 양(+)의 값으로 방향성보다는 값의 크기가 중요하므로 외국인순매수의 절대값과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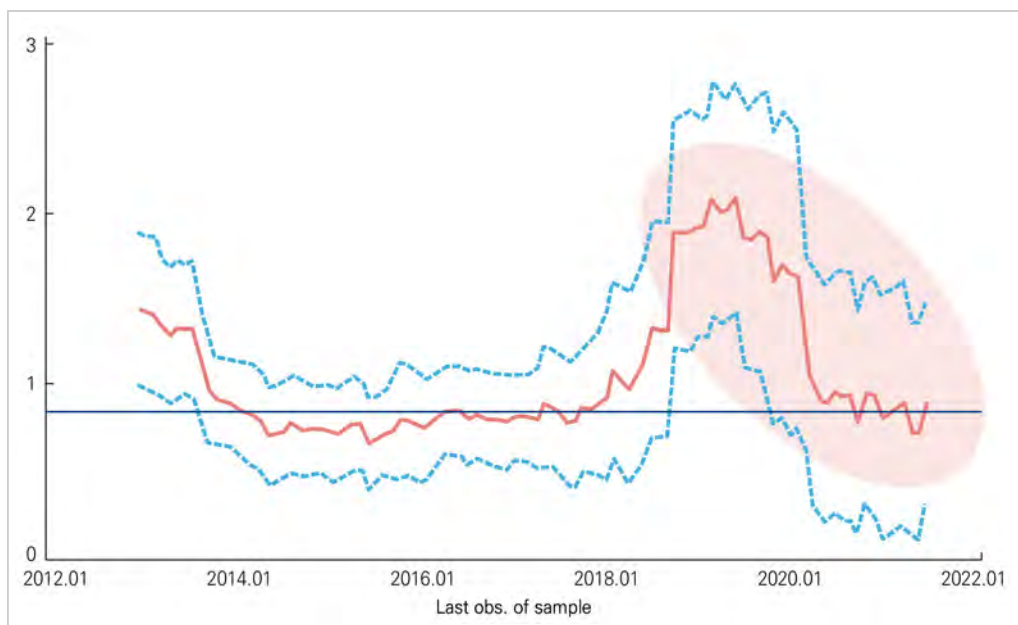
4) 두 변량 X, Y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계수)로 상관계수(r)는 항상 부등식 $-1 \leq r \leq 1$ 을 만족시키며,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r > 0$,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r < 0$, 무상관일 때는 $r = 0$

나. 이동회귀 분석

이동회귀 분석(Rolling-Window Regression)⁵⁾을 통해 외국인순매수가 KOSPI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 외국인순매수와 KOSPI 수익률 간 연계성이 약화

- 외국인순매수가 KOSPI 주가에 미치는 민감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동회귀 분석을 실시
 - 외국인순매수의 KOSPI 수익률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모형
- 추정기간을 24개월(2년)로 고정하여 이동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근 외국인순매수의 KOSPI 수익률에 대한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

[그림 6] 주가수익률에 대한 외국인순매수의 계수값 변화 추이



주: 실선은 추정치,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표시

5) 이동회귀분석은 관측기간(sample period)을 변화시켜 추정된 계수값의 안정성 및 방향성을 검정하는 분석기법으로 기간을 이동하며 주가 수익률에 대한 외국인순매수의 회귀계수를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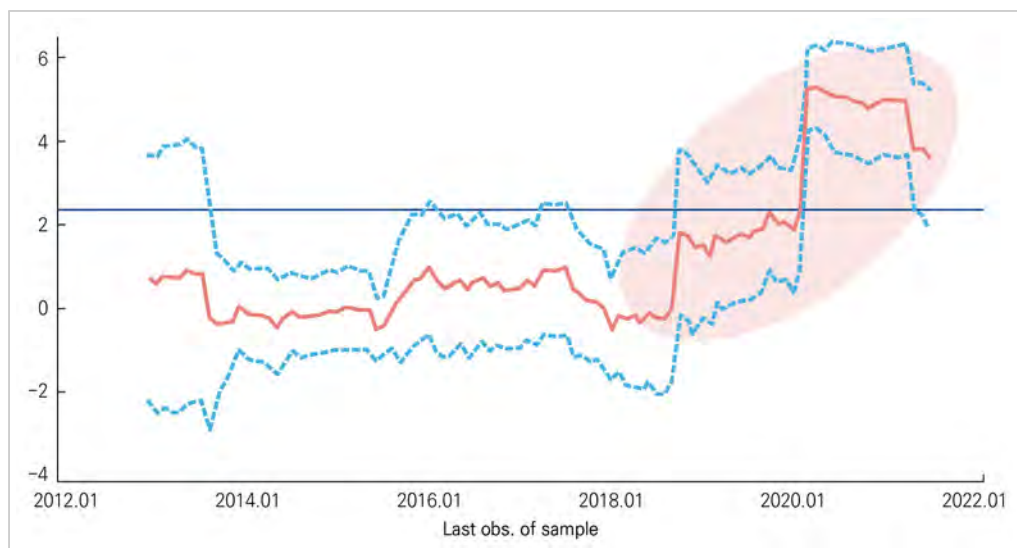
이동회귀분석을 통해 외국인순매수가 KOSPI지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 외국인순매수의 KOSPI 변동성에 대한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강화

■ 외국인순매수가 KOSPI지수 변동성에 미치는 민감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추정기간을 24개월(2년)로 고정하여 이동회귀분석을 진행

■ 분석 결과 외국인순매수와 KOSPI 변동성 간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강화

- 이는 외국인순매수의 KOSPI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

[그림 7] 주가변동성에 대한 외국인순매수 절대값의 계수값 변화 추이



주: 실선은 추정치,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표시

4. 시사점

국내 상장주식의 35% 내외를 보유한 외국인 보유비중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는 대형주 및 통신·수출주력업종 집중, 매매회전률 상승 등의 특징을 시현

■ 20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등으로 KOSPI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비중은 하락

- KOSPI 시가총액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은 2020년 1월 39.0%에서 2021년 6월 34.7%로 4.3%p 하락

■ KOSPI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은 주로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통신업 및 수출주도 산업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상황

- KOSPI 시가총액 100위 이내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이 26%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중형주는 12.4%, 소형주는 5.8% 보유
- 업종별로는 통신업에 대한 보유 비중이 가장 높으며, 수출 주력업종인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에 대한 보유 비중도 높은 상황

■ 또한 최근 외국인 보유 주식의 매매회전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기간이 짧아지고 있음을 시사

- 2015~18년 연평균 129%수준이던 매매회전율이 2020년에는 2011년 이후 최고치인 181%로 상승

상관관계 및 이동회귀 분석 결과 외국인 순매수와 국내 주가수익률과의 연계성이 약화되는 반면 외국인순매수와 주가변동성과의 연계성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가수익률과 외국인순매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나, 최근 들어 연계성은 전반적으로 하락

- 이는 최근 들어 외국인순매수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

■ 외국인순매수와 KOSPI 변동성간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외국인순매수가 KOSPI 지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

외국인 주식투자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유의하는 한편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최근 국내증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고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요인에 유의할 필요

-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외국인 투자자의 대형주,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할 필요

■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동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및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국내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 등 국내 주식시장 수요 기반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

II. 미국의 확대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유승선 경제분석관(6788-4658)

1. 바이든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새로운 환경 및 도전과 자유주의적 정책의 변화

■ 1980년 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 이후 미국 정부는 '워싱턴 컨센서스'라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이념 하에 경제정책을 시행

-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수반된 경기침체(stagflation)에 대한 처방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규제 완화, 세율 인하, 민영화, 세계화 등을 추진
-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없이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독립된 주체로 간주
- 효율성을 우선 시 하는 미국정책은 자유무역 확대, 글로벌 공급망 형성, 세계경제 성장, 세계물가 안정 등에 기여
-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기조가 30여년 간 미국 경제정책의 기본 바탕이 되어 시장개입을 억제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

■ 그러나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

- 극도로 심화된 세계화 및 글로벌 공급망의 집단적 취약성, 불평등 심화, 빈번한 기후 재난,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등 반복되는 위기, 거대 기술기업의 독점 등은 자유주의적 정책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 특히 금융위기와 코로나19의 위기는 미국경제가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함정에 빠질 위험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기도 함

미국경제의 재건을 위해 공공부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전환

■ 바이든 정부는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신속히 벗어나기 위한 경기부양 목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미 큰 타격을 받은 미국경제를 구조적 전환을 통해 재건한다는 재정지출계획을 수립

※ 본 보고서는 FRB(Monetary Policy Report, July 9, 2021), 미국 White House(statement), OECD(Beyond Growth: Towards a New Economic Approach, New Approaches to Economic Challenges, 2020), Dornbusch and Fisher의 「Macroeconomics, 1990」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

■ 기업을 정부와 독립된 주체로 보기보다는 정부와 협력적 관계로 재정립

-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더욱 효율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 미국기업을 시장경쟁에 노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가 경쟁력 향상과 반도체 등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

■ 국제적으로는 미국 주도로 G7국가들이 글로벌 법인세율(15%)에 합의하는 등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

- 과거 글로벌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던 관행을 탈피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백신 배분, 기후, 부채 등 지구적인 문제를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 도모

■ 이러한 일련의 정책방향은 시장경쟁에 노출된 기업이 정부보다 국가자원의 분배에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차별성을 가짐

바이든 정부의 3대 재정계획

■ 2021.1.14일 1.9조 달러의 경기부양안(미국구조계획)을 의회에 제안하여 통과시킴

- OECD(2021.3)는 동 계획을 통해 3~4%의 경제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3.31일 8년에 걸쳐 2.3조 달러를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미국일자리계획) 발표

- 일자리 창출, 인프라 재건,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탄력적 대응력 강화 등이 목적
- 미국 정부는 10년 간 1,900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

[표 1] 바이든 정부의 3대 재정계획

	미국구조계획 (American Rescue Plan)	미국일자리계획 (American Jobs Plan)	미국가족계획 (American Families Plan)
제안 규모	1.9조 달러	8년간 2.25조 달러 ^{주)}	10년 1.8조 달러
주요 내용	- 1인당 1,400달러 지급 - 코로나백신접종 확대 - 음식업과항공업 등 기업 보조금 지급 - 주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원	- 전기차등 운송인프라 현대화 - 상수도, 전력, 통신, 병원 등 생활 인프라 현대화 - 산업및기술혁신 - 청정에너지 개발	- 무료교육기간 연장 - 아동및가정 직접지원 확대, 아동양육 가정과 노동자에 소득공제 확대 - 건강보험지원 - 고등교육투자 및 교육이수 지원
현황	시행중	정부 제안 및 협의 중	정부 제안
기타	재원조달을 위해 15년간 2조 달러의 증세를 계획(America Tax Plan)		

주: 8.11일 상원에서 미국일자리계획의 일부로 인프라법안(1조 달러 규모)이 통과됨

■ 4.28일 인적 인프라를 육성하기 위하여 10년 간에 걸쳐 1.8조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미국가족계획)을 발표

- 미국인 삶의 질 개선, 인적투자를 통한 중산층의 복원, 고급인력 배출 등이 목적

■ 3대 재정계획은 총 6조 달러(GDP의 28.7%)에 이르는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

2. 확대재정정책과 인플레이션 발생 관련성에 관한 견해

가.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의 견해

생산갭(output gap)과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환경 하에서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나치게 확장적이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주장¹⁾

■ 2020년 중 대규모 부양책에 힘입어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 생산갭이 소폭임에도 2021년 초부터 대규모 재정지출을 발표

- 기 시행 중인 미국구제계획(1.9조원)도 GDP의 9.1% 수준
- IMF는 지난 4월 미국의 생산갭률이 2022~2023년 평균 1.1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여 2020~2021년 수준(평균 -1.26%)에서 현저히 회복

[그림 1] 미국 본원통화 추이



자료: Fed

[그림 2] 미국 생산갭률 전망



주: 생산갭률=(실질GDP-실질잠재GDP) /실질잠재 GDP*100

자료: IMF(2021.4)

1)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전에는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전통적 자유주의 경제학(신고전학파 혹은 신자유주의)의 틀에서 수립되고 시행됨. 전통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장기적으로 균형으로 접근하며 결국 완전고용을 달성함. 따라서 경제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일한 균형을 찾아가게 됨. 기후문제 등 외생변수의 충격으로 초래되는 경제의 불안정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결국 장기균형추세(대표적으로 잠재성장률)로 복귀함. 재정정책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적자를 통한 확대재정정책은 민간투자를 구축하기 때문에 적절히 통제되어야 하며, 과도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므로 중앙은행은 총수요와 인플레이션 관리에 충실해야 함.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이 반드시 전통경제학의 처방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Summers, Olivier Blanchard 등 과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전통경제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 확대재정정책 시행 시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음

- 연준의 통화정책은 과거 선제적 통화정책(preemptive monetary policy)을 지양하고,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한 통화정책(outcome based monetary policy)을 시행하고 있음
- 이는 정책변동과 실물경제 간 시차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적정 시점보다 늦어지게 되어 경제가 과열(overshooting)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양적완화정책으로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2023년까지 정책금리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반복하여 시장에 보냄으로써 장기부채 확대 및 위험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음

Summers, Hubbard, Bullard 등은 바이든 정부와 미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을 우려

■ Larry Summers(전 재무장관 및 하버드대총장)는 5.18일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²⁾

- 또한 연준에게 인플레이션 대응이 위험스러운 정도로 안일(dangerous complacency)하다고 강력히 비판
- 연준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을 것이라는 판단은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고 주장
- 과도한 통화·재정정책으로 인하여 경기 과열, 자산가격 상승에 이어 과도한 레버리지 상승과 금융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

■ Glenn Hubbard(전 국가경제자문위원장)는 6.30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생산갭이 없는 상황임에도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계획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

- 인프라투자의 필요성이 있으나 정부의 재정정책은 인프라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출을 포함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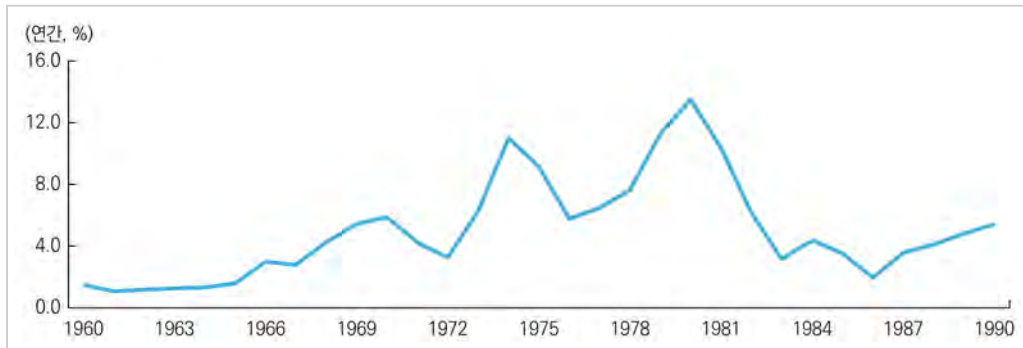
■ James Bullard(세인트루이스 연준총재)는 7.30일 2021년 가을부터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을 시작하여 2022년 1/4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

- 미국의 경제재개에 따라 고용부족과 공급망의 훼손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

■ 향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고 지속성을 나타낸다면 재정지출 확대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여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BOX 그림 3] 참조)

2) Summers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확대재정정책을 지지했던 인물임에도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이목을 끌고 있음. 코로나19 이전에는 미국경제의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은 총투자와 총저축을 일치시키는 균형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 이자율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임. 실질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높은 경제 경제에서는 만성적인 투자의 부족으로 구조적인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그림 3] 1970년대 전후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Fed

나.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견해

미연준은 2021년 발생한 물가급등은 공급이 예상 외로 빠른 수요 회복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병목현상에 비롯된 것으로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

■ 원자재 가격 급등과 미국 물가 상승은 세계수요 회복에 따라 여러 부문에서 기업들이 필요량 보다 많은 주문으로 인한 주문 적체 현상에 기인

- 예를 들면 자동차업종의 경우 자동차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 차질(공급망 훼손)로 인해 신차 수급이 악화(주문 적체)되자 신차를 대체하는 중고차 수요의 증가 및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 나타났으며,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동반 상승이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공급망의 정상화 시 가격 급등세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

바이든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구조와 성장추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

■ 현재 국가경제자문위원장 Cecilia Rouse를 비롯한 국가경제자문위원들(Jared Bernstein 등)을 중심으로 한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학자들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시도³⁾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경제학에 의한 처방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났는데, 반복되는 금융위기, 심화되는 불평등, 기후문제, 생산성 저하, 기술혁신 독점기업의 출현 등의 환경 하에서는 전통경제학으로는 올바른 정책 처방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임. 전통경제학에서는 이들 요인들이 고정된 변수(외생변수)로 간주되어 단기적인 경제 불안정요인 정도로 간주.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위기의 충격이 경제의 추세를 변화시킨 것이 현실이고, 시장의 불완전함과 마찰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단정하기 더욱 어렵게 됨. 바이든 정부를 뒷받침하는 학자들은 이와 같은 환경 하에 사회적 변화(불평등), 건강, 기후문제 등을 고정된 변수(외생변수)가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내생변수로 간주하고, 이를 고려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재정정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체 경제의 후생이 높아지는 새로운 경제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임. 즉 현실경제는 전통경제학의 시각에 비해 복잡성이 더욱 높아 복수의 균형이 존재할 수 있고 정부가 후생이 높은 균형으로 경제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으로, 효율적이고 유일한 균형이 존재한다는 전통경제학과는 차이가 있음

- 워싱턴 컨센서스 하 경제정책은 정부의 경쟁력 약화, 불평등 심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공급 부족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는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음
- 또한 물적인프라, 인적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총공급의 증가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며, 잠재성장 추세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잠재성장 추세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BOX 그림 4) 참조)
- 미국 재무장관 Yellen은 6.6일 블룸버그와 회견에서 미국일자리계획과 미국가족계획에 투입되는 약 4조 달러의 지출은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투자라고 언급하여 중기적으로 생산성 상승과 공공자본스톡의 확대를 통한 총공급 증대를 기대

■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중기적으로 국내외 공급이 정상화되고 투자에 따른 공급이 증가하면 물가는 안정된다는 견해

- 오히려 일시적인 2%를 넘는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에게 저축보다는 지출을 자극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경제에 도움

Rana Foroohar(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컬럼리스트)는 확대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2021.7)

■ 감염을 피하여 교외에서 일과 주거를 병용하려는 도시인의 이탈에 따른 도시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디지털화의 진전⁴⁾, 베이비붐 세대의 지출 감소⁵⁾에 기인

■ Kenneth Rogff(2021.7)는 인플레이션이 지나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인플레이션은 실질부채 부담을 축소시키고 실질금리 하락으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음
-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경제는 저물가로 인해 실질금리가 높아 저성장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임

4) 비대면투자의 증대는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자본재의 가격하락 및 세계적인 물가 둔화로 나타나고 결국 일자리수의 감소로 이어져 소비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5)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소비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고령화로 순수입이 줄어들면서 저축 감소 및 소비 증가를 예상하는 견해와 수명연장에 따라 저축 증가 및 소비 축소를 예상하는 견해가 모두 있음

3. 시사점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이 수요와 공급의 양방향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회복 과정에서도 실물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성을 나타낼 가능성

- 과거 경기침체에서는 주로 총수요의 충격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경제는 단 기간 내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일반적
 - 기술진보, 인구 구조 변화 등 공급충격은 장기에 걸쳐 경제성장 추세에 반영
- 반면 2020년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에 양 방향으로 강력한 충격을 줌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이며, 수요와 공급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

바이든 정부의 재정확대가 2차 대전 후 최대일 뿐만 아니라 전통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규모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실험적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

- 만약 효과적으로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에 성공하여 생산성 향상 및 총공급 증가가 나타난다면 최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임
 - 반면 생산성 향상 및 총공급 증가효과가 없다면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
-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의 추세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1970년식 인플레이션 아니면 2010년대 낮은 인플레이션 추세가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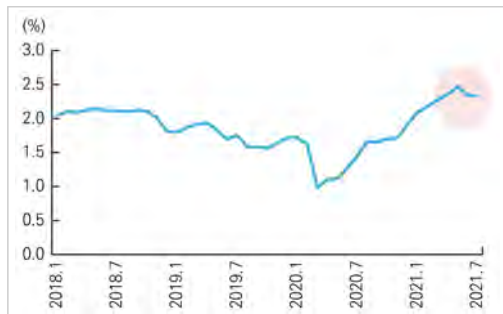
연준의 행보도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 2020년 4월부터 연준이 채택한 평균 2% 물가목표제(average 2% inflation targeting)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인플레이션율을 연평균 2%를 유지할 수 있다면 2%를 상회하여도 일시적으로 용인한다는 것임
 - 동 제도가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08년~2020년 기간 중 연준의 물가목표(개인 소비지출물가 기준 2%)로부터의 편차는 누적적으로 5.2%p를 하회
 - 이는 산술적으로 향후 2년간 4.6%, 5년간 3.0% 등 연준은 인플레이션 정도와 기간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아직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불확실

임금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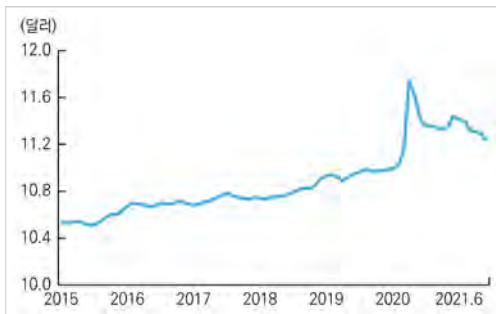
- 바이든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의 성공여부는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
 - 기대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 추세를 모니터링할 필요
- 현재 미국 금융시장 동향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정부·연준 입장에 우호적이며 이는 연준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 기대물가를 반영하는 BEI⁶⁾가 5.17일 2.54%에서 8.4일 2.35%로 안정세
- 만약 임금과 기대인플레이션이 급등한다면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음

[그림 4] BEI 추이



주: BEI=미국 10년만기 국채금리-10년 만기 물가국채금리
자료: Fed

[그림 5] 미국 비농업 시간당 실질임금 추이



자료: 미국 노동부

〈BOX〉 재정정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 Dornbusch and Fisher(1990)⁷⁾에 따라 기본 경제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성

$$\text{총공급}(AS(\Pi^e, Y)): \quad \Pi = \Pi^e + \lambda(Y - Y^*)$$

$$\text{총수요}(AD(Y, f, |m)): \quad \Pi = m_0 - \phi(Y - Y_{-1}) + \theta \cdot f$$

단, Π : 인플레이션율, Π^e : 기대인플레이션율

Y : 국민소득, Y^* : 완전고용국민소득

m : 통화증가율, f : 재정지출증가율, 그외는 상수

6) BEI(breakeven inflation rate)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되며, 채권시장의 기대를 반영
BEI=미국 10년만기 국채금리-10년 만기 물가국채금리

- 총공급곡선은 완전고용을 넘는 경기과열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률이 상승하면 상승
- 총수요곡선은 통화증가율과 재정지출의 증가 시 상승

■ 기본 모형을 외생변수를 포함하여 다시 표현

- 재정정책에 초점을 두기 위해 $m = m_0$ 로 일정하다고 가정
- 총공급의 외생변수로 V 를 포함
 - 총공급 외생변수에는 기후, 기술, 사회구조 등 다양한 요소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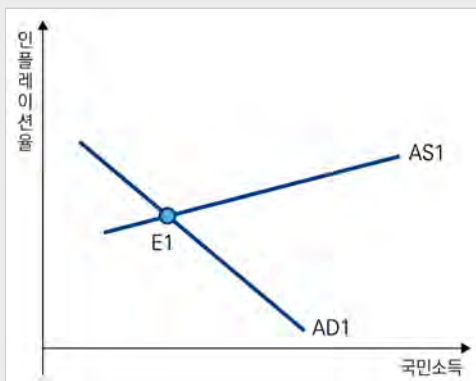
$$\text{총공급}(AS(\Pi^e, Y|V_0)) : \quad \Pi = \Pi^e + \lambda(Y - Y^*)$$

$$\text{총수요}(AD(Y, f, |m_0)) : \quad \Pi = m_0 - \phi(Y - Y_{-1}) + \theta \cdot f$$

■ 총공급과 총수요의 교차점에서 경제균형이 $E1(\Pi_1, Y_1)$ 되며 인플레이션율과 생산의 조합이 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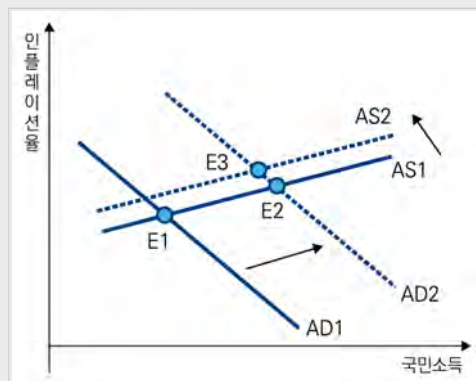
- Dornbusch and Fisher(1990)에 따르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균형 $E1 \rightarrow E2$ 으로 이동
- 이때 만약 총수요증가에 기인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이 소폭 상승할 수 있는데, 이때 총공급곡선을 상승시켜 $E1 \rightarrow E3$ 로 이동하게 됨
- 즉 재정책확장정책은 인플레이션율과 국민소득을 상승시킬 수 있음

[경제의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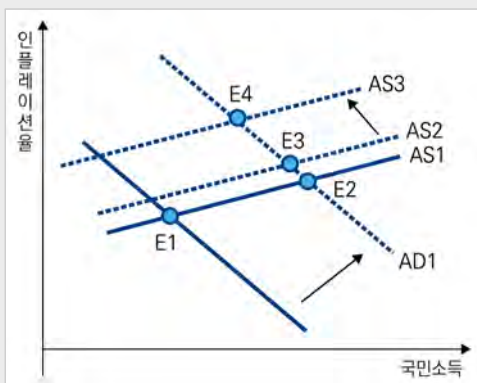
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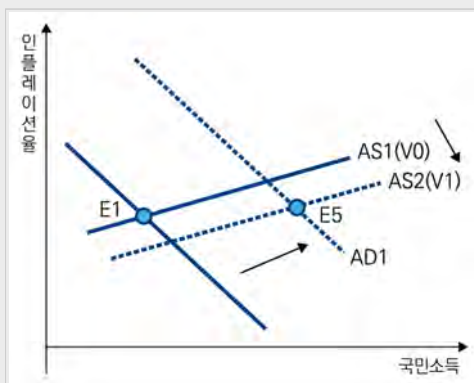
-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현저히 높아진다면 균형이 $E1 \rightarrow E4$ 로 이동하여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됨
- 만약 공급능력의 향상 시에는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임
 - 인적인프라, 사회적 구조 변화(불평등 등) 등 외생변수가 변동($V_0 \rightarrow V_1$)하면 총공급이 증가하여 균형이 $E1 \rightarrow E5$ 이동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



주: 국회예산정책처

[총공급의 증가]



7) Dornbusch and Fisher, 『Macroeconomics』, 6th edition, McGraw-Hill, New York, 1990

III. 2022년 최저임금 인상 내용 및 주요 쟁점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유근식 경제분석관(6788-4753)

1. 최저임금 인상 내용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대비 440원 인상된 시급 9,160원을 2022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출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며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2021년 대비 440원(5.1%) 인상된 9,160원¹⁾
-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급휴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91만 4,440원으로 2021년(182만 2480원)대비 9만 1,960원 인상

■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고시함으로써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예정

-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근로자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반면, 사용자측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음²⁾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을 추이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회의결과 보도참고자료와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

1)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술적으로 5.045%이지만, 인상률(5.1%)이 먼저 결정된 후 10원 단위가 떨어지는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률을 5.1%로 공표

2)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없음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되어 현 정부하에서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하였고, 이는 이전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 7.4%보다 0.2%p 낮음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내 주요 기관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고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로 추정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결정되었고, 각 수치는 국내 주요기관에서 제시한 전망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표 1] 국내 주요 기관 경제전망치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기획재정부	4.2%	1.8%	0.9%
한국은행	4.0%	1.8%	0.5%
KDI	3.8%	1.7%	0.7%
평균	4.0%	1.8%	0.7%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참고자료」 재인용

-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률※을 4.7~17.4%로 추정

※ 최저임금 영향률 = $\text{영향근로자수} \div \text{적용대상근로자수} \times 100$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2022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76.8만 명이며 영향률은 4.7%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로 추정한 영향근로자수는 355.0만 명(17.4%)

2. 주요 쟁점사항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 문제)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사이에 이견이 존재

-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과정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의견 대립이 지속

-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최초로 최저임금 제시안이 제출되었고, 근로자측은 시간급 10,800원(23.9% 인상)을 사용자측은 8,720원(동결)을 제시하여 2,080원의 격차를 보임
- 2~4차 제시안(1~3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가 다소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4차 제시안에서의 격차도 1,150원에 달하여 의견을 좁히지 못함
-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간 회의 결과로 심의촉진구간 및 단일안이 제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추천 4명)과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이에 반발하여 퇴장하였고, 공익위원 단일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여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

[표 2] 2022년 최저임금 노·사 제시안

	1차 제시안	2차 제시안	3차 제시안	4차 제시안
근로자측	10,800원 (23.9%)	10,440원 (19.7%)	10,320원 (18.3%)	10,000원 (14.7%)
사용자측	8,720원 (0%)	8,740원 (0.2%)	8,810원 (1.0%)	8,850원 (1.49%)
격차	2,080원	1,700원	1,510원	1,150원

주: 괄호안의 값은 2021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을 나타냄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참고자료」를 재구성

■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후, 사용자측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의 안에 반발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등으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
-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의 인상을 산출방식이 거시경제 전체의 평균적인 임금조정을 산출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

■ 최저임금위원회의의 발간한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인식의 격차를 재확인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측의 60.3%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해야한다고 응답
- 반면, 근로자 중 2022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19%에 불과하며 약 60.1%가 3%이상 인상해야한다고 응답

[그림 2] 사용자와 근로자 간 2022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을 인식 격차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2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2022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여부는 반복되는 논쟁의 대상

- 사용자측은 업종별로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등에 차이가 존재하여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 근로자측은 이미 노동현장에 차별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적용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낳을 것이라고 반박
- 한편, 2017년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1)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 부재, 2) 낙인효과, 3) 통계 인프라의 부족 등을 근거로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실점에서는 어렵다는 다수 의견을 발표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으나 부결

-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되며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

3. 요약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440원(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확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
-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되어 현 정부하에서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을 기록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의견이 대립

-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였으며, 1~4차에 걸친 제시안을 통해서도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시하여 표결로 인상률을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후, 사용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여부가 논의되었으나 부결되어 2022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

[참고자료] 연도별 최저임금 시간급 및 월환산액 추이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		인상액(원)	인상률(%)
		시간급(원)	월환산액(원)		
1988	88.1 ~ 88.12	475	114,000	-	-
1989	89.1 ~ 89.12	600	144,000	125	26.3
1990	90.1 ~ 90.12	690	165,600	90	15.0
1991	91.1 ~ 91.12	820	192,700	130	18.8
1992	92.1 ~ 92.12	925	209,050	105	12.8
1993	93.1 ~ 93.12	1,005	227,130	80	8.6
1994	94.1 ~ 94.8	1,085	245,210	80	7.96
1995	94.9 ~ 95.8	1,170	264,420	85	7.8
1996	95.9 ~ 96.8	1,275	288,150	105	8.97
1997	96.9 ~ 97.8	1,400	316,400	125	9.8
1998	97.9 ~ 98.8	1,485	335,610	85	6.1
1999	98.9 ~ 99.8	1,525	344,650	40	2.7
2000	99.9 ~ 00.8	1,600	361,600	75	4.9
2001	00.9 ~ 01.8	1,865	421,490	265	16.6
2002	01.9 ~ 02.8	2,100	474,600	235	12.6
2003	02.9 ~ 03.8	2,275	514,150	175	8.3
2004	03.9 ~ 04.8	2,510	567,260	235	10.3
2005	04.9 ~ 05.8	2,840	593,560	330	13.1
2006	05.9 ~ 06.12	3,100	647,900	260	9.2
2007	07.1 ~ 07.12	3,480	727,320	380	12.3
2008	08.1 ~ 08.12	3,770	787,930	290	8.3
2009	09.1 ~ 09.12	4,000	836,000	230	6.1
2010	10.1 ~ 10.12	4,110	858,990	110	2.75
2011	11.1 ~ 11.12	4,320	902,880	210	5.1
2012	12.1 ~ 12.12	4,580	957,220	260	6.0
2013	13.1 ~ 13.12	4,860	1,015,740	280	6.1
2014	14.1 ~ 14.12	5,210	1,088,890	350	7.2
2015	15.1 ~ 15.12	5,580	1,166,220	370	7.1
2016	16.1 ~ 16.12	6,030	1,260,270	450	8.1
2017	17.1 ~ 17.12	6,470	1,352,230	440	7.3
2018	18.1 ~ 18.12	7,530	1,573,770	1,060	16.4
2019	19.1 ~ 19.12	8,350	1,745,150	820	1.5
2020	20.1 ~ 20.12	8,590	1,795,310	240	2.87
2021	21.1 ~ 21.12	8,720	1,822,480	130	1.5
2022	22.1 ~ 22.12	9,160	1,914,440	440	5.1

주: 1988년 최저임금은 1그룹(462.5원)과 2그룹(487.5원)으로 구분하여 책정되었으나 표에서는 두 그룹의 평균값을 제시하였음. 1그룹에는 섬유·식료품 등 경공업이, 2그룹에는 화학 등 중공업이 포함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IV.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¹⁾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김경수 경제분석관(6788-4750)

1. 총인구와 총가구

2020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전년 동월에 비해 미미한 증가에 그친 반면, 총가구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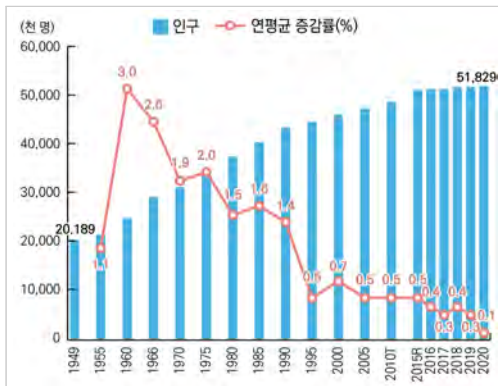
■ 총인구는 2019년에 비해 5만 명(0.1%) 증가한 5,183만 명, 총가구는 59만 가구(2.8%) 증가한 2,148만 가구

- 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2018년 0.4%, 2019년 0.3%, 2020년 0.1%
- 총가구의 연평균 증가율: 2018년 1.6%, 2019년 1.9%, 2020년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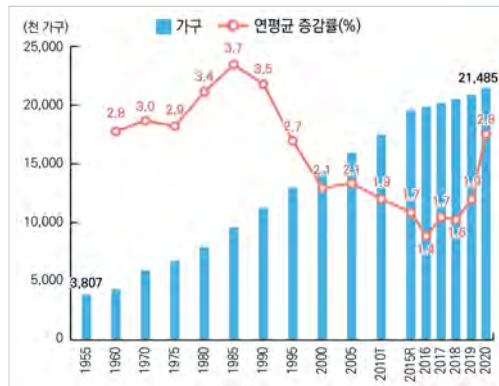
■ 총인구 중 내국인은 5,013만 명, 외국인은 170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 내국인은 13만 명(0.3%) 증가, 외국인은 8만 명(-4.7%) 감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외 상주 내국인의 국내 순이동이 평년보다 증가하고, 국내 상주 외국인의 국외 순이동이 평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내국인은 증가, 외국인은 감소

[그림 1] 총인구 및 연평균증감률



[그림 2] 총가구 및 연평균증감률



자료: 통계청

※ 본 보고서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포함된 총인구 및 총가구 증감현황을 바탕으로 총인구에 비해 총가구 증가가 더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연령대별 인구구조가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

1)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기준 시점(11월 1일)에 국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14개 기관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조사함. 등록센서스 방식이란 행정자료(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임.

가구원수 기준으로 1·2인 가구는 증가한 반면 3인 이상 가구는 감소하였고, 특히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여 총가구수 증가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

- 2020년 일반가구²⁾의 가구원수 규모별 비중은 1인 가구(31.7%)가 가장 많고 2인 가구(28.0%), 3인 가구(20.1%), 4인 가구(15.6%), 5인 이상 가구(4.5%) 순으로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임
- 2020년 1인 가구수는 664만 가구로 전년 대비 50만 가구가 증가하였고, 1인 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비중은 31.7%로 전년 대비 1.5%p 증가
- 2020년 2인 가구수는 587만 가구로 전년 대비 20만 가구 증가
- 3인·4인·5인 이상 가구수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
- 연령별 1인 가구 비율은 20대 19.1%, 70세 이상 18.1%, 30대 16.8% 순으로 20대의 1인 가구가 전년대비 가장 크게 증가(112만 가구 ⇒ 127만 가구)
 - 20대 미혼 청년층 1인 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표 1] 연도별·가구원수별 가구수 규모 추이

(단위: 천 가구, %, %p)

	2016	2017	2018	2019(A)	2020(B)	B-A
1인 가구	5,398 (27.9)	5,619 (28.6)	5,849 (29.3)	6,148 (30.2)	6,643 (31.7)	495 (1.5)
2인 가구	5,067	5,260	5,446	5,663	5,865	202
3인 가구	4,152	4,179	4,204	4,218	4,201	-17
4인 가구	3,551	3,474	3,396	3,300	3,271	-29
5인 이상	1,200	1,142	1,085	1,014	947	-67
일반가구수	19,368	19,674	19,980	20,343	20,927	584

주: 괄호안은 일반가구수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지역별로는 세종, 경기, 제주, 충북, 강원, 전남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그 밖의 시도는 모두 인구가 감소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2019년 2,589만 명에 비해 15만 명(0.6%) 증가한 2,60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

2) 일반가구는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

- 총인구는 경기도가 21만 명 증가, 서울과 인천은 각각 5만명, 1만명 감소
-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상회한 이후 2년 연속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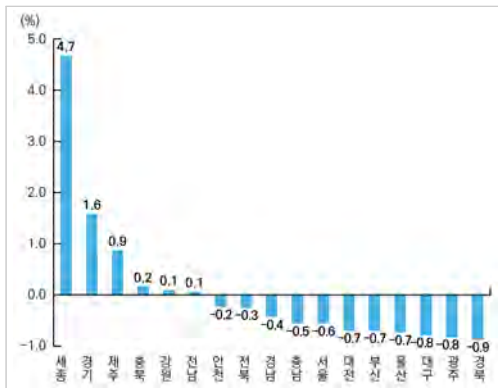
■ 특별·광역시의 인구가 주로 감소하고 인접한 시·도의 인구는 증가

- “대전·충남→세종, 서울→경기, 부산→경남”과 같은 인구이동 패턴을 보임

모든 시도의 가구수가 증가하였고, 특히, 세종, 강원, 경기, 충북, 대전, 제주, 충남 등의 가구수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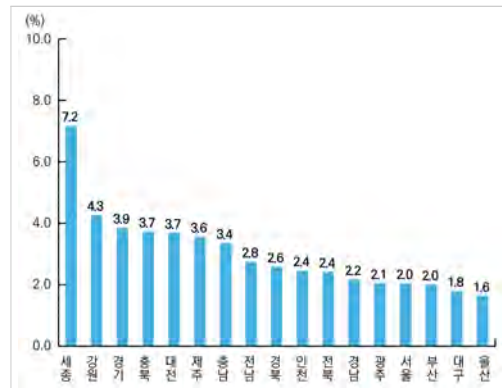
■ 청년층 비중이 높은 세종, 경기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강원, 대전 등의 가구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그림 3] 2019년 대비 시도별 인구증감률



자료: 통계청

[그림 4] 2019년 대비 시도별 가구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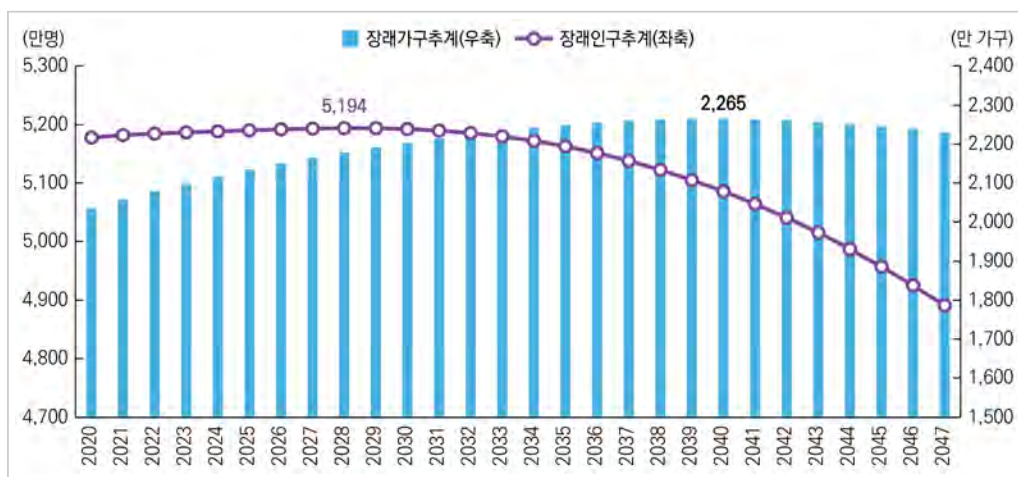


향후 저출산과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의하여 총인구가 감소하여도 총가구는 최소 10여 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총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총가구는 204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총가구는 2040년 2,265만 가구를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장래인구추계 및 장래가구추계(2020~204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2067」, 「장래가구추계: 2017~2047」

2. 내국인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와 특징

60세 미만 대부분의 연령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모두 증가

- 10~14세, 25~34세, 40~44세, 50~54세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2019년에 비해 감소
- 50~54세 연령대의 인구가 425만 명(8.5%)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45~49세(420만 명), 55~59세(409만 명) 순으로 많음

2019년에 비해 0~4세 연령대 인구감소율이 가장 컸으며, 인구감소 규모로는 15~19세 연령대의 인구감소 규모가 가장 컸음

- 2019년에 비해 0~4세 연령대 인구는 16만 명(-8.5%) 감소, 15~19세 인구는 17만 명(-6.7%) 감소
 - 0~4세 연령대 인구감소율이 큰 것은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하락한 2018년 이후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
 - 15~19세 연령대 인구감소 규모가 큰 것은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2명 이하로 떨어진 2005년 이후 코호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임

[표 2] 연령별 내국인 인구

(단위: 천 명, %)

연령	2019년(A)		2020년(B)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50,000	100.0	50,133	100.0	133	0.3
0~4세	1,842	3.7	1,685	3.4	-157	-8.5
5~9세	2,251	4.5	2,239	4.5	-12	-0.5
10~14세	2,219	4.4	2,252	4.5	33	1.5
15~19세	2,596	5.2	2,422	4.8	-174	-6.7
20~24세	3,204	6.4	3,193	6.4	-10	-0.3
25~29세	3,343	6.7	3,423	6.8	80	2.4
30~34세	3,030	6.1	3,033	6.0	3	0.1
35~39세	3,791	7.6	3,594	7.2	-197	-5.2
40~44세	3,707	7.4	3,758	7.5	51	1.4
45~49세	4,307	8.6	4,195	8.4	-112	-2.6
50~54세	4,192	8.4	4,246	8.5	54	1.3
55~59세	4,168	8.3	4,092	8.2	-76	-1.8
60~64세	3,605	7.2	3,795	7.6	190	5.3
65~69세	2,450	4.9	2,686	5.4	236	9.6
70~74세	1,911	3.8	2,010	4.0	98	5.1
75~79세	1,588	3.2	1,593	3.2	5	0.3
80~84세	1,071	2.1	1,116	2.2	45	4.2
85세 이상	725	1.5	801	1.6	76	10.5
0~14세	6,312	12.6	6,176	12.3	-136	-2.2
15~64세	35,943	71.9	35,752	71.3	-191	-0.5
65세 이상	7,746	15.5	8,206	16.4	460	5.9
평균연령(세)	42.5	-	43.1	-	0.5	-
중위연령(세)	43.7	-	44.3	-	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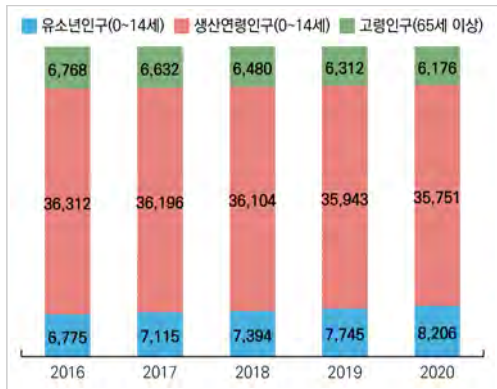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년에 비해 내국인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

■ 2020년 유소년인구는 618만 명(12.3%)으로 2019년에 비해 14만 명 감소, 생산연령인구는 3,575만 명(71.3%)으로 19만 명 감소, 고령인구는 821만 명(16.4%)으로 46만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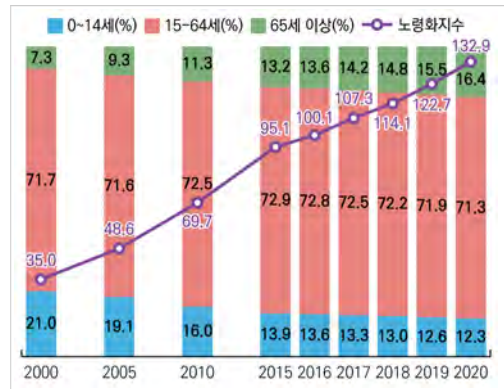
- 고령인구 증가폭이 유소년인구 감소폭보다 3배 이상 컸으며, 고령인구의 비중은 내국인 총인구의 16.4%로서 2019년에 비해 0.9%p 증가
-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는 2019년 122.7에서 132.9로 10.1 증가

[그림 6] 연령별 내국인 인구규모 현황 및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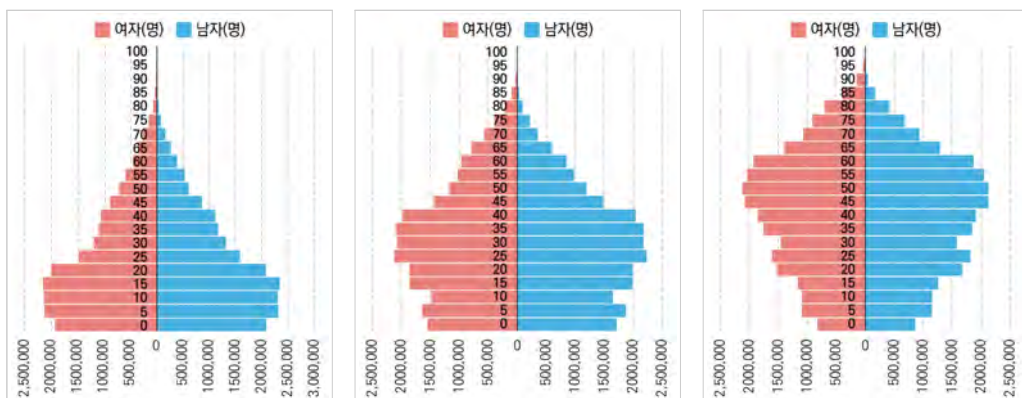
[그림 7] 연령별 인구구조 및 노령화지수



인구규모가 가장 큰 연령대는 1980년에는 10대(10~19세)였으나, 2000년에는 30대(30~39세), 2020년에는 50대(50~59세)로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음

- 1980년에는 10대의 인구규모가 898만명, 2000년에는 30대의 인구규모가 850만명, 2020년에는 50대의 인구규모가 834만명으로 각각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큰 규모였음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연령대 인구비중이 감소하고 50대 이상 고연령대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향아리형 인구피라미드가 심화되고 있음

[그림 8]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피라미드



주: 1980년과 2000년의 85세 이상 인구는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시사점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인구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총가구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청년 및 주거정책이 필요

- 2019년 대비 총인구 증가율은 0.1%이지만, 총가구 증가율은 2.8%로 높았으며, 20대 미혼 청년과 고령층 위주의 1인 가구가 50만 가구 증가
- 향후 총인구는 감소하지만 총가구는 상당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특별·광역시에서 인접 시·도로의 인구가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대전·충남→세종, 서울→경기, 부산→경남”과 같이 특별·광역시의 인구가 주로 감소하고 인접한 시·도의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이동 패턴을 보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연령대 인구비중이 감소하고 50대 이상 고연령대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가 심화되고 있음

- 인구규모가 가장 큰 연령대는 1980년에는 10대(10~19세)였으나, 2000년에는 30대(30~39세), 2020년에는 50대(50~59세)로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음

PART

3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이슈

I.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변동요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120

I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변동요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최세중 경제분석관(6788-4679)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OLED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총수출은 2015년 대비 39.5% 감소한 170.2억 달러를 기록
 - LCD 부문에서 2020년 중국의 생산능력은 1억 5,694만㎡로 한국(5,850만㎡)의 약 2.7배를 기록하였으며,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에서 한국은 대만에도 뒤진 3위를 나타냄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변동요인에 대한 불변시장점유율 분석 결과, LCD는 수요 감소와 경쟁력 약화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수출 감소가 이어진 반면, OLED의 경우 경쟁력 강화와 수요 증가에 기인하여 2015년 이후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수요 요인)은 LCD 수출에 2011~2015년간 -82.4억 달러, 2015~2019년간은 -104.1억 달러의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시장점유율 변동요인(경쟁력 요인)은 특히 2015~2019년간 -86.8억 달러의 부정적 영향을 미침
- 2011~2015년간 OLED 수출(15.1억 달러 증가)은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수요 요인)이 10.6억 달러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2015~2019년간 수출(59.5억 달러 증가)은 시장점유율 변동요인(경쟁력 요인) 30.7억 달러,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수요 요인) 23.6억 달러의 영향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경제적 기여도 분석 결과, 수출액 변동 및 단위당 파급효과 변화로 인하여, 기타전자표시장치(OLED 등) 부문이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서 기타전자표시장치(OLED 등)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 각각 20.7%, 20.0%, 22.8%에서 2020년에는 70.5%, 68.8%, 76.2%로 증가
- OLED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수출에 의한 절대적 파급효과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간재 공급구조 변화 등에 의하여 단위당 기여도(효율성)도 향상됨을 보여줌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가 큰 수출 산업으로서, 수출경쟁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한 정부 및 산학연의 연계 강화 필요

- OLED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및 대중국 품질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고 품질우위도 약화되는 추세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더불어, R&D 투자확대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점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

1. 분석배경

디스플레이 산업은 정부에서 선정한 13대 주력 품목 중 하나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지만, 최근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

- 2019년 디스플레이 산업¹⁾의 총 산출액(Gross Output)²⁾ 57억 834억 원 중 수출이 26조 8,385억 원으로 직접적 수출수요 의존도가 47.1%로 전체 제조업 평균(34.4%)을 상회
-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은 2017년 265.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연평균 13.7% 하락하여 2020년 수출은 170.2억 달러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우려가 있음

- 최근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점유율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로 2015년 31.1%p에서 2020년 3.0%p로 축소

[표 1] 국적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금액 기준)

(단위: %, %p)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	45.2	45.8	44.4	42.6	40.2	36.8
중국	14.1	17.6	21.0	25.0	29.2	33.8
대만	24.6	21.3	22.9	24.5	21.9	22.6
일본	15.4	14.3	10.8	6.7	5.9	3.6
격차	20.6	24.5	21.5	17.6	11.0	3.0

주: 격차는 한국의 시장점유율 - 2위 국가의 시장점유율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관련 국내외 논문, 한국은행 시계열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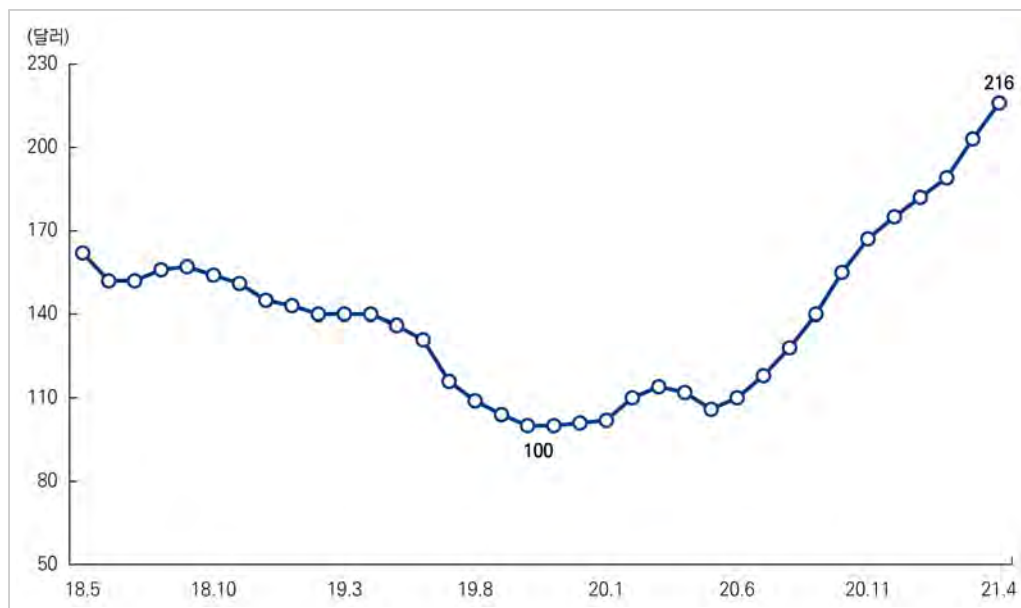
1) 산업연관표 상의 전자 표시장치 제조업

2) 총산출액 = 중간수요 + 최종수요 - 수입

■ 중국의 LCD 패널 대규모 양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LCD에서 OLED로의 사업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IT 제품 및 TV 수요가 증가하면서 LCD 패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국내 기업들은 LCD 연장생산을 결정

- 2019년 10월 LCD TV 55인치 패널 가격이 100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며 2021년 4월에는 216달러를 기록

[그림 1] LCD 55인치 TV 패널 평균 판매가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입동향 발표 보도자료

디스플레이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수출 환경변화를 점검해보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ICT 산업 중 디스플레이 산업은 상대적으로 수출 변동성이 적은 편으로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것으로 분석됨

- 2010년 1월~2020년 12월간의 수출 증가율의 표준편차는 디스플레이(13.9%)가 반도체(22.8%)보다 적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가격·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TV, 모바일 등 전방산업의 수요 및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세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징 및 현황

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징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한 자본·기술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큼

■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규모 생산설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춘 패널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장치 및 부품·소재를 공급받는 분업형 생산구조로 운용되는 특징을 지님

- 디스플레이 산업은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가공·조립하는 산업인 동시에 컴퓨터, 휴대폰, TV 등의 전방산업의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산업의 특성을 겸비

■ LCD 평판디스플레이와 기타 전자표시장치(OLED 등)의 감응도계수³⁾는 각각 2.298, 1.229로 상대적으로 다른 ICT 산업보다 높아서 각 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전방연쇄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감응도계수: 컴퓨터(0.533), 컴퓨터 기억장치(0.560), 컴퓨터 주변기기(0.609), 이동전화기(1.138)

■ LCD 평판디스플레이와 기타 전자표시장치(OLED 등)의 영향력계수⁴⁾는 각각 0.802, 1.077로 기타 전자표시장치의 후방연쇄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음

- 영향력계수: 컴퓨터(0.885), 컴퓨터 기억장치(0.813), 컴퓨터 주변기기(0.931), 이동전화기(0.767)

디스플레이의 기능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LCD로부터 신기술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됨

■ 디스플레이는 CRT, LCD·PDP, OLED의 기술을 거쳐 최근에는 마이크로 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3D 디스플레이 등으로 발전

3) 감응도계수는 모든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부문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임(2015년 산업연관표 해설편)

4) 영향력계수는 어떤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전 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임(2015년 산업연관표 해설편)

■ 디스플레이 기술이 융복합 기술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가정용 소비산업에서 교육용, 자동차용, 의료용, 산업용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시장의 범위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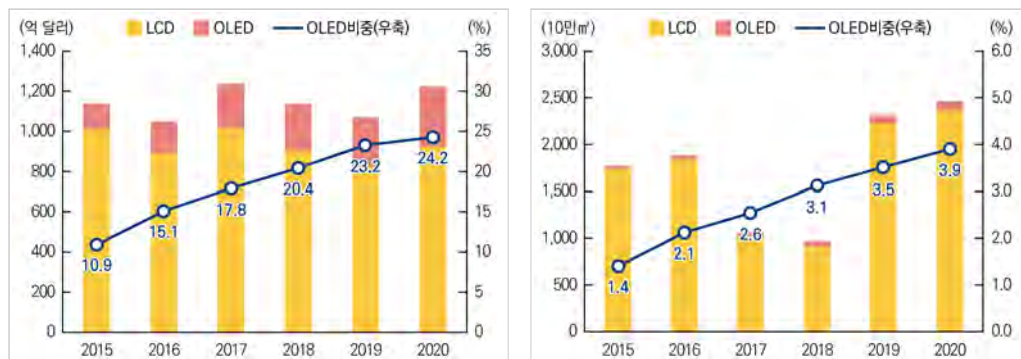
- 실감형 디스플레이, 촉·질감 디스플레이의 개발과 AR/VR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피, 전자 피부 등 새로운 응용 분야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나.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

코로나19 발생 이후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비대면 IT 제품 수요 증가와 TV·스마트폰의 대형화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 2019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는 1,073억 달러로 전년대비 5.6%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1,22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3.8% 증가
- 면적 기준으로도 TV, 스마트폰의 대형화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6.3% 증가한 2억 4,580만㎡를 기록

[그림 2]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금액, 면적) 규모 추이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국은 공격적인 시장전략으로 디스플레이 생산능력을 확충하며 한국의 경쟁국으로 등장

- 중국은 산업육성정책 이외에도 중앙 및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지원

- 공장 설계 단계에서 비용의 30~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부품 및 소재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형성을 가속화

■ 중국은 정부의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정책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LCD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OLED 패널 생산도 유사한 방식으로 성장을 가속화⁵⁾

- 중국의 LCD 생산능력은 2020년 1억 5,694㎡로 한국(5,850㎡)의 약 2.7배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에는 한국의 14배 수준인 2억 8,300만㎡로 확대될 전망
- 중국의 OLDE 생산능력은 2015년 한국의 1.5% 수준에서 2020년에는 28.2%(543만㎡)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는 한국의 63% 수준인 2,700만㎡로 확대될 전망

최근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은 OLED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LCD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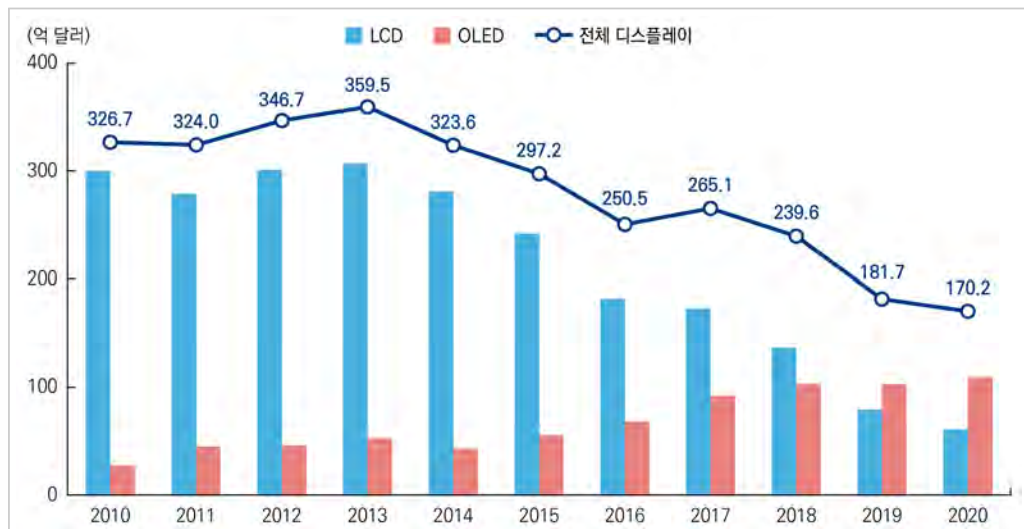
■ 2020년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은 2015년 대비 39.5% 감소한 170.2억 달러를 기록

- LCD 수출은 2014년 이후 연평균 20.6%씩 감소하며 2020년에는 61.2억 달러를 기록

■ 반면, 2020년 OLED 수출은 109.0억 달러로 전년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 OLED 수출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4.9%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 109.0억 달러로 3년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

[그림 3]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추이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한국은 LCD 분야에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부터 중국과 대만보다 낮은 순위를

5) 한국디스플레이협회,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통계」, 2021.2.

차지

- 2018년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대비 5.4%p 상승한 30.6%를 기록하였으며, 대만도 2.8%p 상승한 30.5%를 기록하며 한국(29.2%)을 추월

[표 2] 국적별 LCD 시장점유율(금액 기준)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	38.9	36.9	32.9	29.2	25.8	20.8
중국	15.8	20.5	25.2	30.6	37.2	44.0
일본	17.1	16.7	13.0	8.2	7.6	4.8
대만	27.5	24.9	27.7	30.5	28.3	29.5
기타	0.7	1.0	1.1	1.5	1.2	0.9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한국은 OLED 분야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

- 2020년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85.8%로 전년대비 3.8%p 하락하였으나, 중국은 13.2%로 3.4%p 상승

[표 3] 국적별 OLED 시장점유율(금액 기준)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한국	98.5	98.1	97.9	95.9	89.4	85.8
중국	0.5	1.1	1.4	3.2	9.8	13.2
일본	0.6	0.5	0.4	0.4	0.3	0.4
대만	0.2	0.2	0.2	0.4	0.4	0.5
기타	0.2	0.1	0.1	0.1	0.1	0.1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3.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경쟁력 및 수출 변동요인 분석

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

LCD는 대세계·대중 교역에서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기술적 품질우위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임

■ LCD의 2020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0.66으로 수출특화 상태이나 수출입단가 비율은 1.21로 수평적 산업내무역(품질 차이 없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무역특화지수는 2014년(0.75) 이후 하락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0.66을 기록
- 2014~2017년간에는 품질우위였으나, 2018년 이후 수평적 산업내무역으로 전환되어 품질의 격차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남

■ LCD의 2020년 대중 무역특화지수는 0.74로 수출특화 상태이며, 수출입단가 비율은 1.92로 품질우위를 나타내고 있음

- 2011년 이후 품질우위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격차 감소 추세

[표 4] LCD 및 OLED의 수출입단가비율 추이

	LCD		OLED	
	전 세계	중국	전 세계	중국
2011	0.92	1.41	6.79	6.35
2012	1.23	1.82	9.86	18.02
2013	1.11	1.44	20.31	74.99
2014	1.29	1.81	12.15	63.56
2015	1.63	2.12	12.91	56.09
2016	1.69	2.36	10.06	40.22
2017	1.45	2.27	2.84	5.80
2018	1.17	1.78	3.24	4.22
2019	1.16	1.72	2.45	3.83
2020	1.21	1.92	2.86	2.30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OLED는 중국에 대해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품질우위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품질열위 상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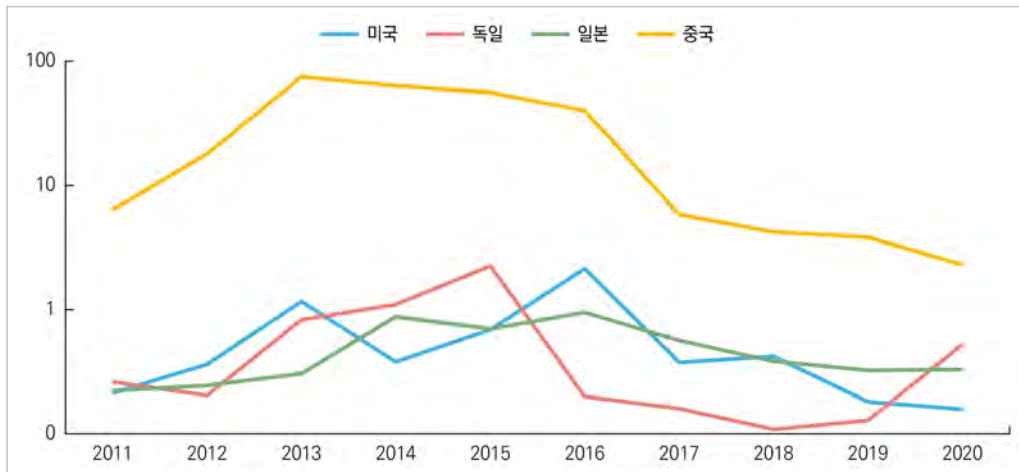
■ OLED의 2020년 대세계 무역특화지수⁶⁾는 0.77로 수출특화 상태이며, 수출입단가 비율은 2.86으로 품질우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무역특화지수는 2017년(0.95) 이후 하락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0.77을 기록

■ OLED의 2020년 대중 무역특화지수는 0.73으로 수출특화 상태이나, 수출입단가 비율은 2.30으로 급격히 품질우위가 약화되는 추세를 보임

-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품질열위를 보이는 것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소재 및 부품 의존도가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그림 4] OLED 수출입단가비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 산업내무역은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상품의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출입단가 비율에 따라 수직적 산업내무역과 수평적 산업내무역으로 구분

- 수직적 산업내무역은 품질 차이에 의한 것이어서 수입재와 수출재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수평적 산업내무역은 비슷한 품질로 수입재와 수출재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
- 수출입단가 비율이 0.75~1.25 이내에 있는 경우 수평적 산업내무역(품질 차이 없음)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 1.25 초과이면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품질 우위), 0.75 미만이면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품질 열위)으로 분류함

6) 무역특화지수(TSI)는 양국간 교역에서 한 국가의 상대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1 ~ 1 사이에서 부호가 양(+)이면 그 상품은 수출특화상태를, 음(-)이면 수입특화상태를 나타냄

나.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에 의한 수출 변동요인 분해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경쟁력 변동요인을 시장점유율 요인(경쟁력 요인), 상품공급구조 요인(수요 요인), 시장규모 요인(경기 요인)으로 분해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CMS) 분석

수출국의 수출증감액(EX_i) = 수출국의 비교 년도 수출액 - 수출국의 기준 년도 수출액
= 시장점유율 변동요인 +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 + 시장규모 변동요인

$$EX_i = \sum_i IM_{it_1} (\mu_{it_1} - \mu_{it_0}) + \sum_i \mu_{it_0} IM_{t_1} (\omega_{it_1} - \omega_{it_0}) + \sum_i \mu_{it_0} \omega_{it_0} (IM_{t_1} - IM_{t_0})$$

EX_i : 수출국의 i제품 수출, IM_i : 세계의 i제품 수입액, IM : 세계 총수입액

μ_i : 수출국의 i제품 세계시장 점유율, ω_i : 세계 수입액 중 i제품의 비중

t_1 : 비교년도, t_0 : 기준년도

항 목	수 식	내 용
시장점유율 변동요인(경쟁력 요인)	$\sum_i IM_{it_1} (\mu_{it_1} - \mu_{it_0})$	수출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경쟁력) 증감이 해당 품목의 수출규모 증감에 미친 효과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수요 요인)	$\sum_i \mu_{it_0} IM_{t_1} (\omega_{it_1} - \omega_{it_0})$	세계 수입시장에서 특정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국의 해당 품목 수출규모 증감에 미치는 효과
시장규모 변동요인 (경기 요인)	$\sum_i \mu_{it_0} \omega_{it_0} (IM_{t_1} - IM_{t_0})$	세계 경기 변화가 수출국의 특정 품목 수출규모 증감에 미친 효과

LCD의 대세계 수출 변동요인의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가 LCD에 대한 수요 감소와 경쟁력 약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⁷⁾

- 2011~2015년간 시장점유율 변동요인(경쟁력 요인)은 LCD 수출에 -7.1억 달러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15~2019년간은 -86.8억 달러로 확대됨

7) 이상진, 김진호, 문성원, 「충남·경기지역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분석 및 과제」, 한국은행, 2018. 에 따르면 LCD 디스플레이는 시장의 포화와 중국과의 격차 축소에 따른 경쟁력 악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2015년간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수요 요인)은 LCD 수출에 -82.4억 달러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15~2019년간은 -104.1억 달러로 확대됨
- 2011~2015년간 시장규모 변동요인(경기 요인)은 LCD 수출에 31.8억 달러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15~2019년간은 -10.5억 달러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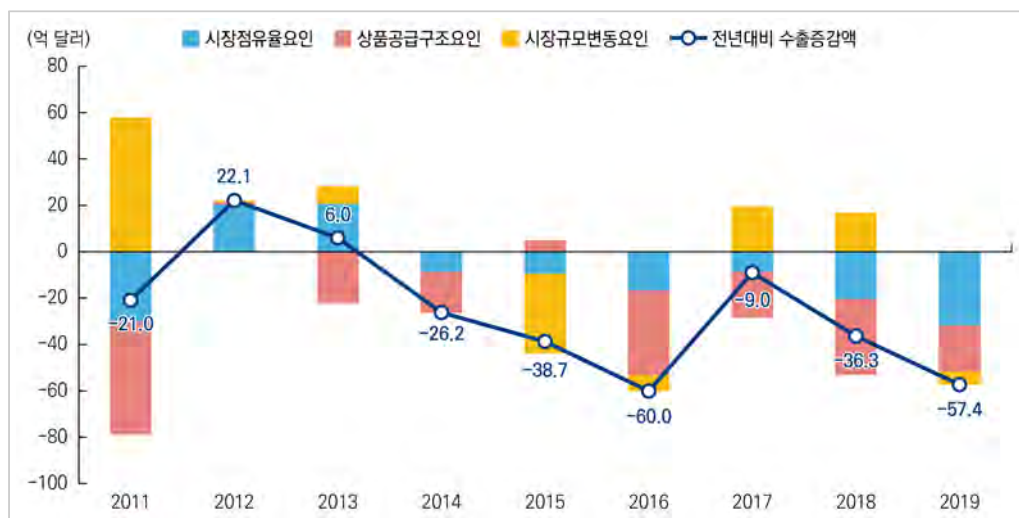
[표 5] LCD 디스플레이 대세계 수출증감 요인분해

(단위: 억 달러)

	요인 분해			수출증감
	시장점유율 변동요인 (경쟁력)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 (수요)	시장규모 변동요인 (경기)	
2011	-30.2	-48.8	57.9	-21.0
2012	20.3	1.3	0.5	22.1
2013	20.8	-22.2	7.4	6.0
2014	-8.5	-17.8	0.1	-26.2
2015	-9.5	5.0	-34.2	-38.7
2016	-16.6	-36.6	-6.8	-60.0
2017	-8.6	-19.9	19.5	-9.0
2018	-20.3	-32.8	16.8	-36.3
2019	-31.7	-19.9	-5.8	-57.4
2011~2015	-7.1	-82.4	31.8	-57.8
2015~2019	-86.8	-104.1	-10.5	-201.4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 LCD 디스플레이 대세계 수출증감 요인분해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산 LCD의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은 중국의 LCD 산업 성장으로 하락하면서 2014년부터 시장점유율 변동요인(경쟁력 요인)이 LCD 수출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국의 LCD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2013년(38%) 이후 하락세로 2019년에는 26%를 기록
 - 반면, 중국의 LCD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한국과 대만을 제치고 2018년부터 1위를 유지
 - * 2018년: 한국(29%), 대만(30%), 중국(31%)
 - * 2019년: 한국(26%), 대만(28%), 중국(37%)
- 중국의 LCD 생산 확대와 LCD 시장규모의 축소로 2016년 이후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수요 요인)이 LCD 수출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LCD 세계 시장(판매액) 규모는 2013년(1,155억 달러)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834억 달러를 기록
 - * 글로벌 LCD 매출액 증감률(%): (2015)-7.2→(2016)-11.9→(2017)14.4→(2018)-11.8→(2019)-6.8
- 글로벌 경기의 호조는 LCD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2017년과 2018년에는 LCD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19년의 불경기 시에는 수출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함
 - 2017년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강화되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도 양호한 성장흐름을 지속하였으나,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투자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둔화

OLED의 대세계 수출 변동요인의 분석 결과, 2015년 이후 OLED 수출의 증가는 경쟁력 강화와 함께 OLED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⁸⁾

- 2011~2015년간 OLED 수출은 15.2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그 요인으로는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수요 요인)으로 10.6억 달러, 시장점유율 변동요인(경쟁력 요인)으로 1.3억 달러, 시장규모 변동요인(경기 요인)으로 3.2억 달러 발생하면서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수요 요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
- 2015~2019년간 OLED 수출은 59.5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그 요인으로는 시장점유율 변동요인(경쟁력 요인)으로 30.7억 달러,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수요 요인)으로 23.6억 달러, 시장규모 변동요인(경기 요인)으로 5.2억 달러 발생하면서 시장점유율 변동요인(경쟁력 요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

8) 이미혜, 「디스플레이산업 전망 및 경쟁력」, 한국수출입은행, 2019. 에 따르면 OLED 부문은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국과의 경쟁이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이 선제적 진출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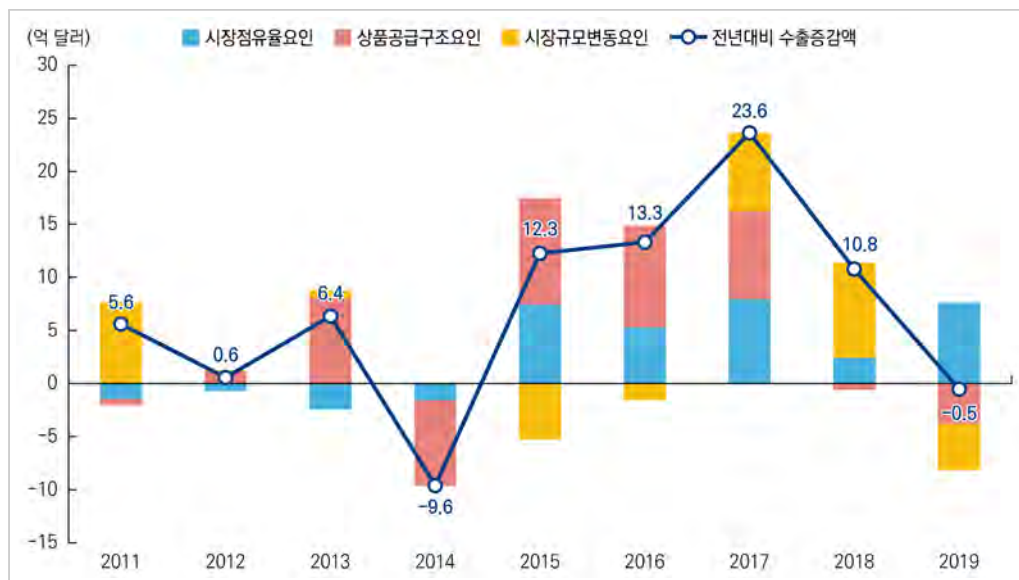
[표 6] OLED 디스플레이 대세계 수출증감 요인분해

(단위: 억 달러)

	요인 분해			수출증감
	시장점유율 변동요인 (경쟁력)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 (수요)	시장규모 변동요인 (경기)	
2011	-1.5	-0.6	7.7	5.6
2012	-0.7	1.2	0.1	0.6
2013	-2.4	8.1	0.7	6.8
2014	-1.6	-8.1	0.0	-9.6
2015	7.5	10.0	-5.2	12.3
2016	5.3	9.6	-1.6	13.3
2017	7.9	8.3	7.4	23.6
2018	2.4	-0.6	9.0	10.8
2019	7.6	-3.8	-4.3	-0.5
2011~2015	1.3	10.6	3.2	15.2
2015~2019	30.7	23.6	5.2	59.5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6] OLED 디스플레이 대세계 수출증감 요인분해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산 OLED는 수출입단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품질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5년 이후 시장점유율 요인(경쟁력 요인)이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대세계 수출입단가 비율은 2015년 이후 하락하였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

* 대세계 수출입단가 비율: 2015년(12.91), 2017년(2.84), 2019년(2.45)

- OLED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은 한국이 1위를 유지

*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 2015년(98.4%), 2017년(97.8%), 2019년(89.3%)

■ 중국의 OLED 판매 확대와 글로벌 OLED 판매시장 규모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이 2018년부터 OLED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중국의 OLED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은 2017년까지 1% 대에 머물렀으나, 2018년 3.2%, 2019년 9.8%를 기록하며 급성장

- 글로벌 OLED 매출액 증가율은 2018년 5.5%를 기록하며 둔화세

* 글로벌 OLED 매출액 증가율(%): 37.6(2015)→24.3(2016)→42.2(2017)→5.5(2018)→7.4(2019)

■ 2015~2018년간 수출증가의 요인은 글로벌 경기 호황에 따른 각국의 수입시장 확대에 의한 수입규모 요인으로 발생하였으나, 2019년의 글로벌 경기 불황은 OLED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시장규모 변동요인(경기 요인)은 세계 경제가 2017·2018년 호조를 보이면서 OLED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수요가 줄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경제적 기여도 분석

2015~2019년 생산자가격기준의 기본부문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LCD디스플레이와 기타전자표시장치(OLED 등)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2011~2014년 투입산출표(연장표)는 기초가격으로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⁹⁾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2015~2019년 동안의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수행

감응도계수¹⁰⁾와 영향력계수¹¹⁾를 산정한 결과, LCD디스플레이와 기타전자표시장치(OLED 등) 부문 모두 전방연쇄효과가 후방연쇄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9) 기초가격 공급사용표는 순생산물세(생산물세-보조금)가 중간투입이나 부가가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투입계수 및 각종 유발계수 도출 시 순생산물세를 별도로 고려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함.(한국은행, 「2015년 산업연관표」, 2019.)

10) 감응도계수는 모든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부문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임(2015년 산업연관표 해설편)

11) 영향력계수는 어떤 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전 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 정도를 전산업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내는 계수임(2015년 산업연관표 해설편)

- 디스플레이 산업이 생산된 패널을 컴퓨터 주변기기, 가전, 무선통신기기 산업 등의 전방산업에 중간재로 공급하기 때문인데, 특히 LCD디스플레이 부문의 전방연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전방연쇄효과를 보여주는 감응도계수는 최근 두 부문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후방연쇄효과를 보여주는 영향력계수는 LCD디스플레이 부문에서 감소

[표 7] LCD 디스플레이 및 기타전자표시장치(OLED 등)의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계수 추이

		2015	2016	2017	2018	2019
감응도 계수	LCD	1.411	1.637	2.064	1.637	2.298
	OLED	0.777	0.756	0.792	1.029	1.229
영향력 계수	LCD	0.864	0.822	0.760	0.855	0.802
	OLED	0.987	0.979	0.940	0.975	1.077

자료: 각 년도 산업연관표

LCD 디스플레이 부문은 최근 중간재 국산화율이 하락하고, 단위당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계수도 하락

- LCD디스플레이 부문은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에 의한 절대적 파급효과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중간재 공급구조 변화 등에 의하여 단위당 기여도(효율성)도 저하됨을 보여줌

[표 8] LCD디스플레이 부문의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계수 및 중간재국산화율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중간재 국산화율(%)
2015	1.651	0.575	3.970	58.480
2016	1.572	0.604	3.440	53.567
2017	1.454	0.594	2.610	47.165
2018	1.652	0.602	3.520	57.733
2019	1.554	0.596	2.900	53.132

주: 중간재 국산화율=국산 중간재 투입액/중간투입액

자료: 각 년도 산업연관표

기타전자표시장치(OLED 등) 부문의 중간재국산화율은 최근 상승하는 추세이며, 생산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도 최근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OLED의 경우 수출경쟁력 강화로 수출에 의한 절대적 파급효과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간재 공급구조 변화 등에 의하여 단위당 기여도(효율성)도 향상됨을 보여줌

[표 9] 기타전자표시장치(OLED 등) 부문의 생산·부가가치·취업유발계수 및 중간재 국산화율 추이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중간재 국산화율(%)
2015	1.886	0.711	4.449	79.334
2016	1.874	0.745	4.370	80.265
2017	1.798	0.720	3.740	75.783
2018	1.883	0.745	3.780	82.015
2019	2.085	0.738	3.860	85.223

주: 중간재 국산화율 = 중간투입액/국산 중간재 투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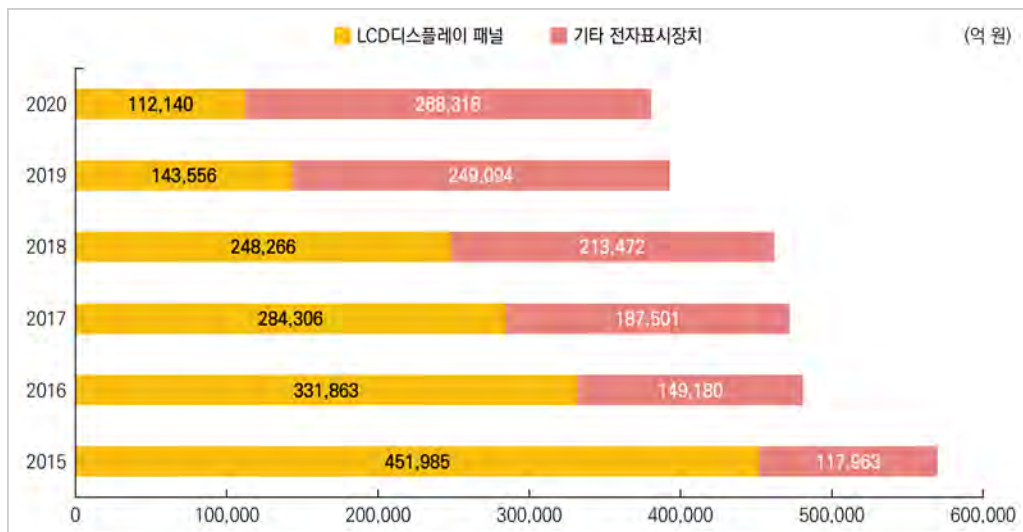
자료: 각 년도 산업연관표

앞서 살펴본 수출액 변동 및 단위당 파급효과 변화로 인하여, 기타전자표시장치(OLED 등) 부문이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0년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의 생산유발효과는 38조 458억 원으로 LCD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29.5%(11조 2,140억 원)가 발생하고, 기타전자표시장치 부문에서 70.5%(26조 8,318억 원)가 발생

- LCD 디스플레이 부문 비중: (2015년)79.3% → (2020년)29.5%
- 기타전자표시장치 부문 비중: (2015년)20.7% → (2020년)70.5%

[그림 7] 디스플레이 산업 생산유발효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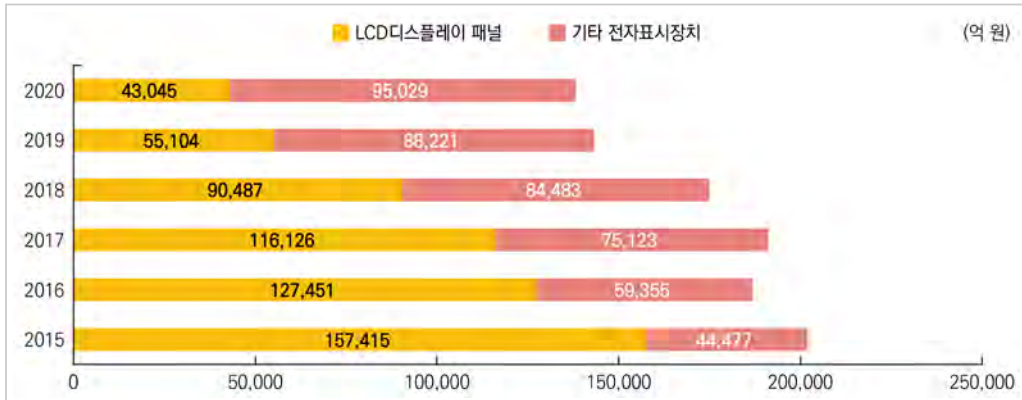
주: 수출액에 각 연도별 평균 원·달러 환율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

자료: 한국은행,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0년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3조 8,075억 원으로 LCD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31.2%(4조 3,045억 원)가 발생하고, 기타전자표시장치 부문에서 68.8%(9조 5,029억 원)가 발생

- LCD 디스플레이 부문 비중: (2015년)78.0% → (2020년)31.2%
- 기타전자표시장치 부문 비중: (2015년)22.0% → (2020년)68.8%

[그림 8] 디스플레이 산업 부가가치유발효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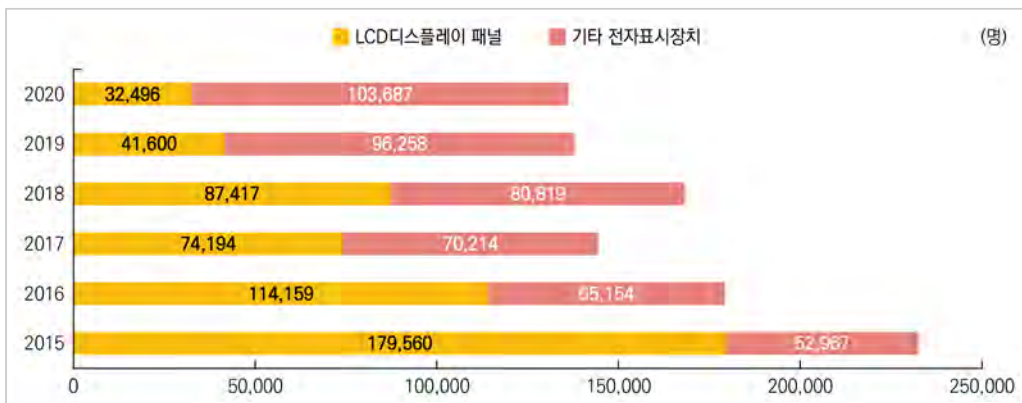
주: 수출액에 각 연도별 평균 원·달러 환율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

자료: 한국은행,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0년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의 취업유발효과는 136,183명으로 LCD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23.8%(32,496명)가 발생하고, 기타전자표시장치 부문에서 76.2%(103,687명)가 발생

- LCD 디스플레이 부문 비중: (2015년)77.2% → (2020년)23.8%
- 기타전자표시장치 부문 비중: (2015년)22.8% → (2020년)76.2%

[그림 9] 디스플레이 산업 취업유발효과 추이



주: 수출액에 각 연도별 평균 원·달러 환율을 곱하여 원화로 환산

자료: 한국은행,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요약 및 시사점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으로 성장해 왔으나,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OLED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총수출은 2015년 대비 39.5% 감소한 170.2억 달러를 기록

- LCD 부문에서 2020년 중국의 생산능력은 1억 5,694㎡로 한국(5,850㎡)의 약 2.7배를 기록하였으며,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에서 한국은 대만에도 뒤진 3위를 나타냄

LCD 수출의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가 LCD에 대한 수요 감소와 경쟁력 약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수요 요인)은 LCD 수출에 2011~2015년간 -82.4억 달러, 2015~2019년 간은 -104.1억 달러의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시장점유율 변동요인(경쟁력 요인)은 특히 2015~2019년간 -86.8억 달러의 부정적 영향을 미침

OLED 수출의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OLED 수출의 증가는 경쟁력 강화와 함께 OLED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2011~2015년간 OLED 수출(15.1억 달러 증가)은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수요 요인)이 10.6억 달러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2015~2019년간 수출(59.5억 달러 증가)은 시장점유율 변동요인(경쟁력 요인) 30.7억 달러, 상품공급구조 변동요인(수요 요인) 23.6억 달러의 영향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경제적 기여도 분석 결과, 수출액 변동 및 단위당 파급효과 변화로 인하여, 기타전자표시장치(OLED 등) 부문이 디스플레이 산업 수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에서 기타전자표시장치(OLED 등)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 각각 20.7%, 20.0%, 22.8%에서 2020년에는 70.5%, 68.8%, 76.2%로 증가

- OLED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수출에 의한 절대적 파급효과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중간재 공급구조 변화 등에 의하여 단위당 기여도(효율성)도 향상됨을 보여줌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가 큰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서, 수출경쟁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한 정부 및 산학연의 연계 강화가 필요

- OLED는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및 대중국 품질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고 품질우위도 약화되는 추세
-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더불어, R&D 투자확대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점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

nabo Economic-Industrial Trends & Issues
경제·산업동향&이슈

2021년 8월호 | 통권 제20호

발행일	2021년 8월 25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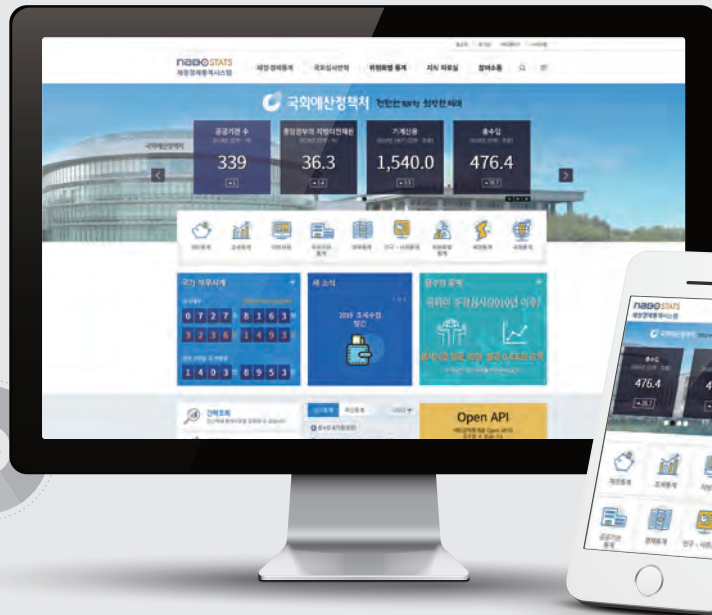
예·결산
심사연혁 제공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업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287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